금주의 법구–〈중부경전〉
지나간 것을 쫓아가지 말라.
오지 않은 것을 바라지 말라.
'지금 여기'를 살도록 노력하라.

현대불교

행복 더하는
현대불교 ARS 후원
060-700-1080

1994년 10월 15일 창간 주1회 발행 제1228 호 구독신청 (02)2004-8212 hyunbulnews.com (불기 2563년 · 단기 4351년 음력 11월 26일) 2019년 1월 1일 화요일



佛心 가득한 한 해 여는 종소리

2019년 새해 첫 범종소리가 어둠을 두드린다. 우리 모두 고단했기에 오늘의 종소리는 하나하나 특별한 뜻을 품었다. 다시 고단해야 할지라도 우리는 또 새아침을 열어야 하기 때문이다. 종소리가 어둠을 물리고 나면 새아침이다. 범종소리 시방에 울려 퍼지듯 올 한 해는 더욱 불심으로 가득한 한 해가 되기를 서원한다. 한국불교 1번지 조계사 종루에서 새해 새아침을 맞는다.
글 · 사진=박재완 기자

3.1운동 1백년 '불교 항일운동' 재조명 본격화

신성민 · 노덕현 · 하성미 기자

3.1운동 100주년을 맞아 당시 불교 역할을 재조명하는 다양한 사업이 진행된다. 일제강점기 국난 극복을 위해 앞장선 불교의 위상과 가치를 다시 높여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먼저 동국대 만해연구소(소장 고재석)는 구랍 29일부터 1월 3일까지 요녕성과 길림성 일대의 독립운동 유적지를 중심으로 '제3차 국외 만해로드대장정'을 개최한다.

동국대 만해연구소는 '만해 한용운 선양사업 지방정부행정협의회(서울 성북구 · 서대문구 · 충남 홍성군 · 강원도 속초시 · 인제군 · 고성군)'와 함께 4년째 만해로드를 운영하고 있다.

이번 '제3차 국외 만해로드대장정'은 대련(여순감옥, 관동법원) · 단동(압록강철교) · 집안(광개토대왕비, 장수왕릉) · 백두산 · 통화(신흥무관학교 유적지) · 환인(졸본성, 고구려 산성) 일대를 중심으로 만해 선사의 발자취를 따라가며 그의 독립의지를 체험하는 세 번째 기획이자 완결편이라고 할 수 있다.

동국대 만해연구소 측은 "만해 탄생 140주년을 기리기 위해 마련된 '제3차 국외 만해로드대장정'은 범정부적인 차원에서 진행될 3.1운동 100주년 기념행사의 기폭제가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부산 불교계는 3.1운동 100주년을 맞아 독립 만세 운동 역사 바로세우기에 나선다. 현재 부산 3.1만세 운동은 1919년 동래고등보통학교(現동래고) 학생이 주축이 돼 3월 13일 동래 시장에서 일어났다고 알려져 있다. 부산불교계는 그보다 앞선 3월 7일 범어사 명정학교에서 스님과 학생들이 먼저 만세운동을 시작한 점을 알릴 계획이다.

부산불교연합회 측은 "부산 만세운동은 스님들과 학생들이 주축이 돼 시작됐다. 이와 관련된 문헌도 발견된 상태"라며 "부산지역 만세운동의 역사를 바로 세우고 독립운동을 위해 불교가 나선 활약상을 재고찰해 널리 알릴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용성 스님의 가르침을 선양하는 장수 죽림정사는 구랍 23일 3.1운동 100주년을 기념해 '대한민국 800년 대운성취 2000일 기도'에 입재했다. 총무 유수 스님은 "용성조사가 민족을 위해 독립운동을 했던 마음처럼 후손들이 이어 나라와 민족을 준비하기 위해 이번 기도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3.1운동과 항일운동에서 불교가 가지는 위치와 위상을 조명하는 학술행사들도 예정돼 있다. 조계종 불교사회연구소(소장 원철)는 오는 2월 27일 '불교계의 3 · 1운동과 항일운동' 5번째 학술세미나를 개최한다. 앞서 불교사회연구소는 지난 2017년부터 4차례에 걸쳐 학술세미나를 개최해오고 있다.

부산 만세운동 범어사 주도
명정학교 역할 알리기 나서
"문건도 발굴돼 조명 노력"
죽림정사 2000일 기도 입재
제3차 국외 만해로드 개최

불교계 항일운동 조명하는
범종단 차원 학술대회 계획

이날 세미나에서는 △불교 3 · 1운동의 이념 △불교 3 · 1운동정신의 계승 △해인사의 3 · 1운동 △통도중의 민족교육과 폐교 사건 등에 관한 연구 결과가 발표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한국불교종단협의회(회장 원행)도 2월 말경 3.1운동 관련 학술대회를 개최한다. 현재 불교 대표 학술 계간지 〈불교평론〉과 함께 행사 내용 등을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자비광명이 충만한 복된 새해 되십시오.
현대불교신문 임직원 일동



종정 진제 법원

원로회의의장 세 민 총무원장 원 행
중앙종회의장 범 해 교육원장 현 응
호 계 원 장 무 상 포교원장 지 홍

대한불교조계종

2019년 신년특집호
A · B 섹션 60면 발행

신년특집
Buddha's Detox A12~15



必환경& 그린부디즘 B5~10
새해 불교계 주목 뉴스 B20
불교와 돼지 B21
신년 불교동화 B22

데스크 초대석 A5
조계종 원로의원 일면 스님



산문 밖의 禪 B1~2
이근후 신경정신과 전문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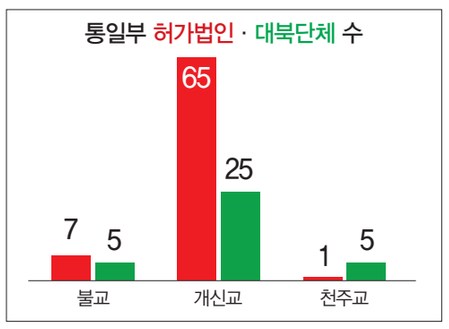
종단 신년법어 · 신년사 A8~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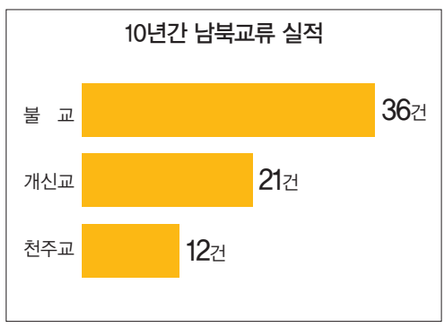
1월 9일자 신문은 쉽니다

10년간 남북교류 실적 불교 '최다'

문화체육관광부 발간한 〈2018 한국의 종교 현황〉 결과

윤호섭 기자 sonic027@hyunbul.com





통일부 허가법인 불교 7개
개신교 65개에 뒤처지지만
남북공동행사 등 실적 36건
이웃종교보다 월등히 앞서

2008년부터 2018년까지 10년 동안 남북교류 실적이 가장 많은 종교는 불교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한국학중앙연구원이 문화체육관광부 연구용역을 수임해 수행한 조사 결과다. 문체부는 최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18 한국의 종교 현황〉을 발간했다. 이 자료는 2008년과 2011년에 이어 국내 종교현황을 파악하기 위해 조사한 것이다.

문체부가 발간한 〈2018 한국의 종교 현황〉에는 기존 자료에 없던 '종교계 남북교류 현황' 이 담겼다. 이에 따르면 통일부 허가법인 총 391개 중 종교계 법인은 81개, 대북지원 지정단체는 종교계 단체는 108개 중 38개로 조사됐다.

이 중에서 불교계 통일부 허가법인은 △나누며하나되기 △조계종 민족공동체추진본부 △민족통일불교협의회 △위드아시아 △조국평화통일불교협회 △좋은벗들 △한국불교자유총연합회 등 7개, 대북단체는 좋은벗들과 한국불교자유총연맹을 제외하고 한국불교종단협의회가 포함된 5개로 그 규모는 크지 않았다. 반면 개신교는 허가법인 65개, 대북단체 25개로 가장 많았고, 천주교는 허가법인 1개, 대북단체 5개로 나타났다.

하지만 최근 10년간의 '종교계 남북교류 추진 현황' 서는 불교계가 작은 규모로 가장 많은 실적을 보였다. 불교계는 공동 종교행사 24건과 인도적 대북지원 6건, 공동 성명서 발표 3건, 인적 교류 및 회동 3건 등 총 36건의 실적을 올렸다. 개신교 21건과 천주교 12건에 비해 월등한 성적이다. 조사에서 종교인 개별 접촉과 실무협의 등은 제외됐다.

2008년 조선불교도연맹과 대북교류의 신호탄을 쏘아올린 건 조계종이었다. 그해 4월 10~11일 금강산 신계사에서 '남북화해와 평화통일기원 대법회' 를 봉행했다. 이후 쌀과 감기약 등 물품 지원을 비롯해 부처님오신날 남북합동법회, '일제 약탈문화재 반환 촉구' 남북불교도 합동법회(평양 광법사) 및 공동 합의, '팔만대장경 판각 1000년 기념' 조국통일기원 합동법회(묘향산 보현사) 등의 성과를 낳았다.

천태종 역시 2009년 11월 의천 대각국사 908주기 열반 다례재를 시작으로 북한주민 수해지원(쌀 10톤), 북한 영유아 지원(분유 1톤) 등을 이어갔다. 이웃종교계서는 개신교 NCCK가 15건으로 가장 많은 교류를 펼쳤다.

한편 남북교류 현황에서 종교계는 주로 인도협력(27개 법인) 분야에서 가장 많은 활동을 펼쳤다. 이어 북한이탈주민 정착 지원(21개 법인), 통일 활동 전반(19개 법인), 사회문화협력(11개 법인), 북한인권 개선(3개 법인) 순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북한이탈주민 정착 지원 법인은 모두 개신교계가 담당하고 있어 향후 불교계가 해결해야 할 과제로 남았다.

이번 자료는 종교별 교세를 비롯해 종단, 법인, 선(포교사), 사회참여, 언론, 종립학교, 종교계 연구소, 요양 · 의료기관, 사회복지사업, 국방부 군종장교, 법무부 허가법인 및 교정위원, 전통사찰 및 향교, 국가지정 문화재, 박물관 및 미술관, 종교문화축제, 주요 기념일 등 국내 종교와 관련된 제반현황을 300여 페이지에 걸쳐 담았다.

중앙승가대 제8대 총장 원종 스님

승가학원 이사회 구랍 21일 회의서 만장일치로

학교법인 승가학원(이사장 원행)은 구랍 21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4층 대회의실에서 제117차 이사회를 열고 대학 총장 선출 등의 안건을 처리했다.

이날 총장 후보로는 원종 스님이 중앙승가대 총동문회의 추천으로 올라왔으며, 논의를 통해 만장일치로 중앙승가대 제8대 총장으로 선출했다.

중앙승가대 신임 총장 원종 스님의 임명은 선출 직후 곧바로 이뤄졌다. 임명장 수여 후 승가학원 이사장 원행 스님(조계종 총무원장)은 "그간 총장 부재로 이사 스님들이 마음 고생이 많았다. 총장 스님은 바로 학교로 가서 교내 행정 파악을 진행해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신임 총장 원종 스님은 "그동안 닦고 익힌 모든 것을 쏟아 붓겠다"면서 "이사장 · 이사 스님들의 뜻을 받들어 시대에 맞는 수행자 양성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임명 직후 이뤄진 인터뷰에서 원종 스님은 중앙승가대의 어려움을 획기적으로 극복할 것을 다짐했다.

이에 대해 스님은 "평소 승가 교육에 관심이 많았다. 중앙승가대 소임도 여러 번 지낸바 있다"면서 "학교의 어려운 실정은 잘 알고 있으며 획기적으로 극복할 방안을 찾고 있다. 종단 종립학교로서의 위상을 바로 세울 것"이라고 말했다.


승가학원 이사장 원행 스님(조계종 총무원장, 사진 왼쪽)은 구랍 21일 중앙승가대 제8대 총장으로 선출된 원종 스님에게 임명장을 수여했다. 원종 스님은 이날 승가학원 이사회서 만장일치로 총장으로 선출됐다.

범어사에서 흥교 스님을 은사로 출가한 원종 스님은 1980년 범어사에서 지관 스님을 계사로 사미계를, 1982년 자운 스님을 계사로 비구계를 수지했다. 범어사 승가대학과 중앙승가대를 졸업했다. 이후 스님은 원통사, 성주사 주지 등의 사찰 소임 이외에도 교육직에서 꾸준히 활동했다. 범어사 승가대학 강사(중강)을 비롯해 중앙승가대 교학국장, 기획실장과 중앙승가대 동문회장, 승가학원 이사를 역임한 바 있다.

한편, 원종 스님의 임기는 임명 이후 4년이다.

신성민 기자 motp79@hyunbul.com

대종사 · 명사법계 품서식 일정 확정

조계종 계단위원회, 수계산림 일정도 정해

대종사 · 명사 각각 1월 · 3월
동화사서 총 15人 품수 예정

조계종 최고법계인 대종사와 명사법계 품서식 일정이 정해졌다.

조계종 계단위원회(위원장 성우)는 12월 26일 제48차 회의를 열고, 대종사 법계 품서식을 1월 8일 오후 2시 동화사에서 신년하례와 병행해 봉행키로 했다. 또한 비구니 최고법계인 명사법계 품서식은 3월 19일 동화사서, 종덕 · 현덕 법계품서식은 4월 11일 조계사서, 중덕 · 정덕 법계산림은 4월 15일부터 18일까지 직지사서 봉행하기로 결정했다.

대종사법계 품서 대상자는 현 원로의원 우송 · 현호 · 일면 · 원행 스님 등 4인, 비구니 명사법계 품서 대상자는 소림 · 행돈 · 묘관 · 자민 · 법희 · 수현 · 혜운 · 자행 · 불필 · 자광 · 재운 스님 등 11인이다.

이외에 39회 단일계단 구족계 수계산림은 3월 27일부터 4월 4일까지 범어사서 전계대화상 성우 스님과 갈마아사리 종진 스님, 교수아사리 무관 스님을 3사로 한 7증사가 증명으로 나선다. 니7증사로는 니화상 자민 스님, 니갈마아사리 일초 스님, 니교수아사리 지형 스님 등이 참석한다.

아울러 단일계단 식차마나니계 수계산림은 4월 23~26일 수원 봉녕사에서 봉행된다. 또한 사미 · 사미니 56기 수계교육은 2월 23일부터 3월 6일까지, 57기 수계교육은 9월 19일부터 30일까지 직지사에서 전계사 종진 스님과 갈마아사리 무관 스님, 교수아사리 덕문 스님을 3사로 진행될 예정이다.

계단위원회는 회의서 사분율장 보급을 통한 한국불교 중흥의 기틀을 다지기로 뜻을 모았다. 이에 따라 위원회는 계단위원을 중심으로 사분율장편찬위원회를 구성해 철우 스님 번역본을 모본으로 편찬 작업을 실시하기로 했다. 작업이 완료되면 구족계를 수지한 모든 스님들에게 사분율장을 보급, 청정승풍 진작에 나설 계획이다.

윤호섭 기자

김천 직지사 주지 웅산 스님 사직

직지사 운영위, 법보 스님 차기 주지후보 추천

조계종 제8교구본사 김천 직지사 주지 웅산 스님이 구랍 20일 사직원을 총무원에 제출했다. 스님은 앞서 12일 녹원 스님 입적 1주기 추모다례재 이후 주지직에서 물러나겠다는 뜻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직지사는 1월 17일 오후 1시 차기 주지후보 선출을 위한 산중총회를 열기로 했다. 하지만 직지사 승가운영위원회는 웅산 스님이 사직원을 제출한 날 차기 주지후보로 前 중앙종회의원 법보 스님을 만장일치로 추천하면서 별다른 경선 없이 주지 선출이 이뤄질 것이라는 견해가 지배적이다.

웅산 스님은 2016년 10월 28일 직지사 주지로 선출됐다. 2년여의 임기가 남은 상황에서 돌연 사직 의사를 밝힌 사유는 구체적으로 알려지지 않았다. 다만 직지사 관계자에 따르면 웅산 스님은 취임 당시부터 문중 안정과 교구복지사업이 정착되면 임기 이전에라도 물러나겠다는 뜻을 밝혔다. 또한 웅산 스님은 은사인 직지사 조실 녹원 스님 입적 1주기를 맞아 부도탑을 건립하고, 교구복지사업 운영 토대를 만들었다고 판단해 사직원을 낸 것으로 전해졌다.

윤호섭 기자 sonic027@hyunbul.com

"불교음악 저작권 문제 해결 모색"

한국음악저작권협회, 조계종 예방해 업무협약

조계종과 한국음악저작권협회가 불교음악 저작권 문제 해소를 위해 뜻을 모으기로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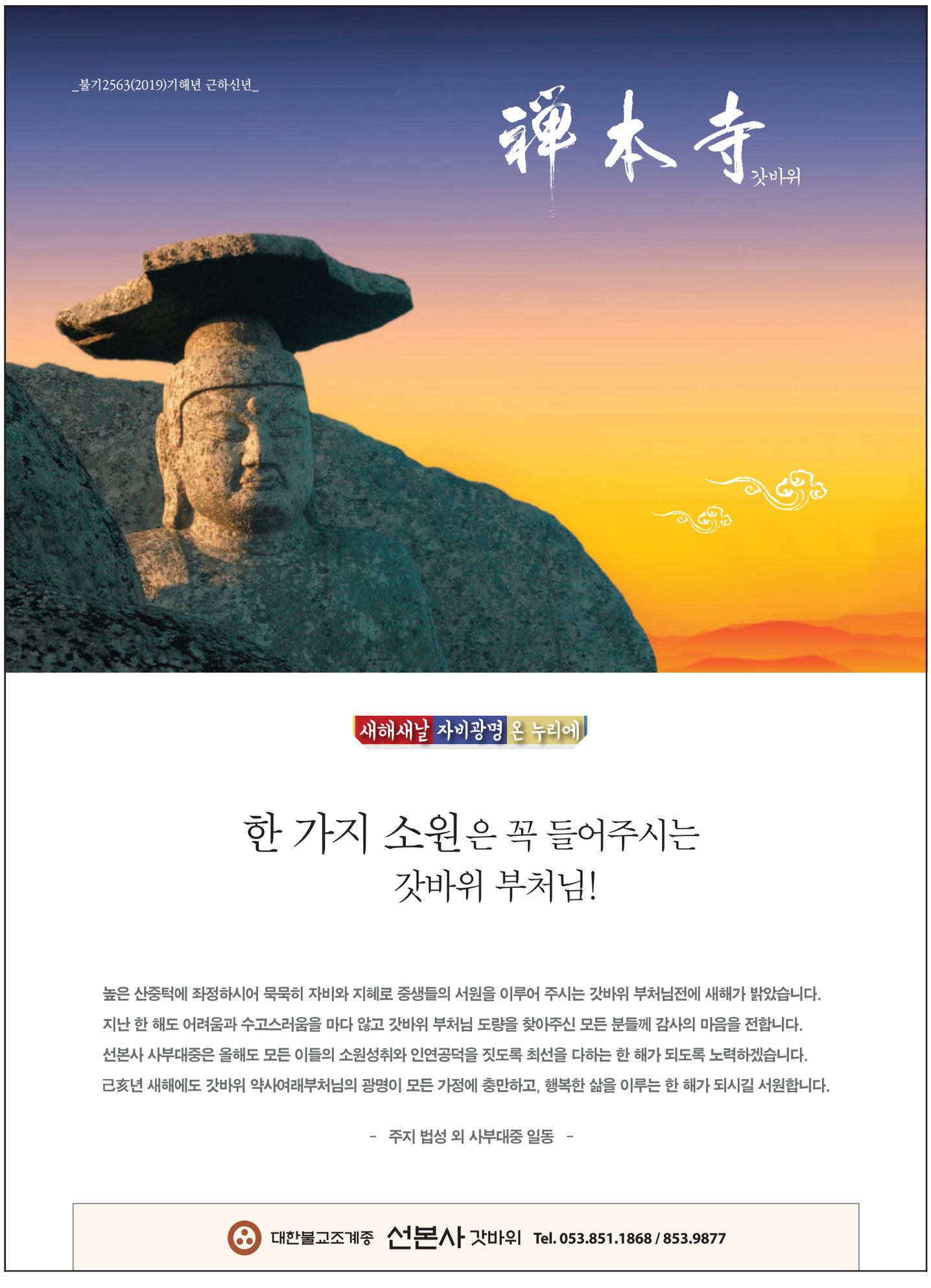
조계종 총무원장 원행 스님은 구랍 24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서 한국음악저작권협회 홍진영 회장 예방을 받고, 불교음악 발전을 위해 조계종과 저작권협회와 협력할 것을 당부했다.

이에 앞서 조계종 문화부와 한국음악저작권협회는 불교음악 저작권 문제에 관한 업무협약을 체결했으며, 특수성을 감안해 발전적인 관계를 모색키로 했다. 구체적인 내용은 실무협의를 거친 뒤 공개하기로 했다.

홍진영 회장은 원행 스님을 만나 "찬불가를 비롯해 불교음악 업계에 종사하는 분들은 열악한 환경에서 어려움을 겪는다"며 "이번 업무협약이 불교음악을 하는 분들에게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인사했다.

이에 원행 스님은 "가수나 음악을 잘 알지는 못하지만 불교음악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많은 건 알고 있다. 다만 저작권에 있어 다소 불합리한 부분이 있던 것 같다"며 "불교음악 발전을 위해 종사자들을 배려하고 도움이 되도록 협회에서도 신경써주시길 부탁한다"고 말했다.

윤호섭 기자



새해 불교 중흥, 이들이 나선다

1969년 3월 한국불교종단협의회 창립 50주년
1979년 2월 중앙승가대학교 개교 40주년
1999년 9월 풍경소리 창립 20주년
1999년 12월 불교평론 창간 20주년
2009년 10월 불교호스피스협회 창립 10주년

창립기념일 맞아 쇄신 나선 불교계 단체들

신성민 · 노덕현 기자

새해 불교계는 다양한 기념일이 있다. 불교 각 단체들이 각각 창립 10주년부터 50주년을 맞이하는 것이다. 해마다 오는 창립기념일이지만 불교단체들은 새로운 발전을 위한 준비에 나서고 있다.

가장 먼저 불교 종단 협의체인 한국불교종단협의회(이하 종단협)가 50주년을 맞는다. 종단협은 1969년 3월 12개 종단 대표발기인 200명이 모여 한국불교총연합회로 창립됐다. 이후 1974년 대한불교총연합회로 명칭변경 후 1989년 현재 명칭인 사단법인 한국불교종단협의회로 정식 발족했다. 종단협은 현재 30여 개 회원종단이 매년 한중일불교우호교류대회를 비롯해 연등축제 주최 등 다양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 아직까지 기념법회 등 행사일정을 논의하는 단계는 아니지만 의미있는 해인 만큼 이목이 집중된다.

현대적 승가교육의 중심인 중앙승가대학교(총장 원종)도 올해 개교 40주년을 맞는다. 중앙승가대는 1979년 2월 24일 의정부 쌍룡사에서의 중앙불교승가학원 설립 발기 모임을 처음으로 시작됐다. 당시 발기인들은 한국승가 전통교육의 문제점을 보완할 수 있는 새로운 형

종단협력 · 승가교육 발전 계기
복지 · 전법 등 현장운동 배가

태의 교육기관을 설립하자는 발원을 했고, 같은 해 3월 18일 돈암동 소재 보현사를 학사로 하여 연수부 30명, 교양부 30명의 첫 입학생을 모집하며 본격적 교육이 시작됐다. 중앙승가대는 개교 40주년을 맞이해 오는 4월 14일 개교기념일에 기념법회를 봉행할 예정이다. 또한 다양한 개교 기념행사도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불교학계에서 단연 눈길을 끄는 것은 불교 대표 학술계간지 〈불교평론〉 20주년이다.

1999년 겨울, 불교의 현대적 해석과 사회 속에서의 불교 이해를 모토로 창간된 〈불교평론〉은 말 그대로 불교지성을 대표하는 잡지였다. 창간 이후 정치 · 경제 · 사회적 이슈에 대한 불교적 비판을 선도하며 불법(佛法)에 근거한 대안을 제시해왔다.

올해 〈불교평론〉은 20주년을 맞아 8월 말경 '포스트세속화시대, 종교의 위상과 불교의 역할'을 주제로 기념학술대회를 연다.

또한 여름호에는 20주년 특집으로 근현대사 속에서 재가불자의 역할을 살필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할 예정이다.

호스피스계의 대표주자인 한국불교호스피스협회(협회장 능행)도 10월 11일 창립 10주년을 맞이한다. 호스피스협회는 2009년 10월 11일 포교원장 혜총스님을 당연직 총재로 창립, 조계종 포교원 산하단체로 등록돼 활동해 왔다. 2010년 불교호스피스 만남의 날을 열고, 호스피스지도자 연수교육을 비롯해 봉사자 교육, 'The아름다운사람' 포상 등 호스피스 활성화에 앞장서 왔다. 호스피스협회는 세미나를 비롯해 호스피스 봉사자 상시교육 등 다양한 활동에 나설 예정이다.

지하철 역사 내 부처님 법음을 전해온 '법음을 전하는 사람들의 모임 풍경소리(대표 선묵 혜자, 이하 풍경소리)'는 올해로 1999년 9월 28일 창립된 지 20년을 맞이한다.

풍경소리는 2001년에는 세계 최초로 지하철에 '봉축열차'를 조성해 80일간 운행하고, 2004년 잠실 롯데월드 민속박물관서 심장병 어린이 후원을 위한 '불교문화체험전' 등을 실시한 바 있다. 풍경소리는 내년 창립 20주년을 맞아 각종 기념행사와 전국 게시판 교체 불사를 계획하고 있다.

이밖에 조계사 불교대학과 호남 최초의 불교대학인 전북불교대학도 30주년을 맞는다. 참여불교재가연대와 통도사 성보박물관도 각각 창립 및 증축개관 20주년을 맞이한다.

액운 쫓는 조선시대 '다라니' 보물된다

문화재청 지정예고…
경주 분황사지 사적 예고

부모 왕생극락 발원해 판각
불교신앙 · 인쇄 아는 중요자료
유사 사례 없어 희소성 높아


구랍 26일 보물로 지정예고된 〈불정심 관세음보살 대다라니경(佛頂心 觀世音菩薩 大陀羅尼經)〉.

조선시대 액운을 쫓는 영험이 있었던 것으로 전해지는 다라니경이 보물로 지정된다.

문화재청(청장 정재숙)은 조선시대 불경인 〈불정심 관세음보살 대다라니경〉과 철기시대 매장문화인 '경산 신대리 1호 목관묘 출토 청동호랑이모양 띠고리'를 구랍 26일 보물 지정예고했다.

보물로 지정예고된 〈불정심 관세음보살 대다라니경(佛頂心 觀世音菩薩 大陀羅尼經)〉은 관세음보살의 영험한 힘을 빌려 이 경을 몸에 지니고, 독송하면 액운을 없앨 수 있다는 다라니의 신통력을 설교한 경전이다.

이 경전은 남아있는 시주질을 통해 1425년(세종 7) 장사감무(長沙監務) 윤희(尹希)와 석주(石柱) 등이 돌아가신 부모의 극락왕생을 기원하고 자신과 가족의 복락을 발원하며 판각된 불경임이 확인됐다.

문화재청은 "3권 1첩으로 구성된 수진본(袖珍本, 옷소매에 넣을 수 있는 작은 책자)으로 지금까지 알려지지 않은 판본이자 국보 · 보물 등으로 지정된 유사한 사례가 없어 희소성이 있다"면서 "조선 초기의 불교 신앙과 사회사, 목판인쇄문화를 살필 수 있는 경전이라는 점에서 보물로 지정해 체계적으로 연구하고 보존관리 할 가치가 있는 경전"이라고 평가했다.

함께 지정예고된 '청동호랑이모양 띠고리'는 청동기 시대부터 초기철기 시대의 지배층을 상징하는 중요한 위세품(威勢品)으로 문화사적 가치가 높다.

이와 함께 문화재청은 경주 분황사지와 경주 구황동 원지 유적 일원을 사적으로 지정 예고했다.

이번에 지정예고된 2건의 유적은 담장을 사이에 두고 나란히 붙어 있지만 다른 시기의 다른 유적이다. 한때 구황동 원지가 분황사에 속한 사원지(寺園池)로 여겨진 적도 있었으나, 발굴조사 결과 출토되는 다양한 유물들을 통해 두 유적은 별개의 것으로 확인됐다.

'경주 분황사지'는 신라의 대표적인 사찰 가운데 하나인 '분황사'가 있던 곳으로, 〈삼국유사〉 등의 기록에 따르면 선덕왕 3년(634)에 창건됐다. 특히 원효스님과 자장 스님이 주석하며 불교를 전한 곳으로도 잘 알려져 있다. 한편, 문화재청은 보물과 사적으로 지정예고된 문화재들을 30일간의 예고 기간을 거쳐 지정 확정할 예정이다. 신성민 기자

동국大 경주캠 발전기금 역대 최고액

모금액 44억 원 넘어서… 최근 3년간 매년 증가

동국대 경주캠퍼스에 답지된 발전금이 역대 최고액을 달성했다.

동국대 경주캠퍼스는 "2018년 1년간 발전기금 모금액이 역대 최고액인 44억 원을 넘어섰다"고 구랍 21일 밝혔다.

2015년 28억 원에서 이대원 동국대 경주캠퍼스 총장 취임 이후 2016년 31억 7천만 원, 2017년 39억 4천만 원, 2018년 44억 원을 넘어서며 3년 연속 증가 추세다.

이 같은 기부금 증가는 대학평가에서도 성과를 냈다. 지난해 10월 발표된 중앙일보 대학평가에서 동국대 경주캠퍼스가 세입 대비 기부금 비율 전국 10위를 기록했으며, 비수도권 사립대 중에서는 영남대, 울산대에 이어 3위를 차지했다. 지방캠퍼스로서는 전국에서도 유례 없는 기부금 모금이다.

동국대 경주캠퍼스 기부금 전국 10위의 원동력은 인재불사를 향한 불교계의 원력이라고 평가받는다. 불교계 기금이 전체 기금 모금액의 70%를 차지한다.

동국대 경주캠퍼스는 이러한 기부자의 뜻을 새겨 불교종립대학의 건학이념에 맞는 인성 교육을 위해 장학제도도 개편했다. 성적 수석장학을 없애고 '참사람인재장학'을 신설해 성적이 높으면서 봉사와 튜터링에 참여해야 장학금을 받을 수 있게 했다. 성적 장학제도의 서열화 및 경쟁 위주의 학습 분위기를 지양하고 협동성 및 협업능력을 신장하는 데에도 중점을 둔 것이다.

또한, 지역 업체들이 장학금을 후원하는 '후원의 집 장학기금'도 10년째 이어오고 있다. 지난 2009년부터 시작한 '후원의 집' 장학사업은 다양한 업종의 자영업체 대표들이 '후원의 집'으로 가입해 동국대 경주캠퍼스 인재육성을 위해 매달 일정액을 후원하는 장학금 후원사업이다. 처음에는 10개 업체 정도였지만 현재는 312개 업체로 늘어났다. 올해에도 '후원의 집' 장학생으로 54명을 선발해 5400만원의 장학금을 지급하기도 했다.

이대원 동국대 경주캠퍼스총장은 "동국대 경주캠퍼스는 사회에 꼭 필요한 능력을 갖춘 훌륭한 인재를 배출하는 학교로 변화하고 있다"면서 "기부자들의 뜻에 따라 참사람 양성과 대학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신성민 기자 motp79@hyunbul.com


사회노동위원회는 구랍 27일 화재현장인 고시원 앞에서 희생자 49재를 봉행했다.

"文정부, 가난한 이들 주거문제 해결을"

조계종 사노위, 종로 고시원 화재 희생자 49재

지난해 11월 국일고시원 화재참사로 7명이 숨진 지 49일을 맞은 가운데, 조계종이 희생자들의 넋을 위로하고 정부에 재발방지대책을 촉구했다.

조계종 사회노동위원회(위원장 혜찬, 이하 사노위) 등 2018홈리스추모제 공동기획단 · 주거권네트워크는 구랍 27일 화재현장인 고시원 앞서 희생자들을 위한 49재를 봉행했다. 행사에는 집전을 맡은 사노위 소속 스님들을 비롯, 제천 화재참사 희생자 유가족 및 국일고시원 화재 피해생존자 등이 함께해 더욱 의미를 더했다.

앞서 국일고시원 앞에는 일일 분향소가 차려졌다. 분향소는 화재로 인해 7명이 숨지고, 11명이 다친 지 49일째 되는 날인 당일 고인의 극락왕생을 발원하고자 마련됐다.

사노위원장 혜찬 스님은 "문재인정부는 가난한 이들을 위한 주거 문제 해결을 위해 적극 나서달라"면서 "고시원은 지옥고라 부를 정도로 열악한 주거지다. 이곳에서 불의의 사고로 유명을 달리한 분들이 편히 쉴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지원 기자 jayjace@hyunbul.com



자기계발·건강… 생활 밀착형 연재 강화

현대불교신문이 2019년 기해년 새해를 맞아 필진을 대폭 강화했다. 논설위원 인원을 늘려 더 풍부한 논단을 운영할 수 있게 했다. 또한 교리, 선종사, 미학 등 전문 연재부터 건강, 코칭, 명상 등 불자들이 생활에 도움이 될 연재들도 새로 시작한다. 신년 필진을 소개한다.

〈편집자 주〉

신임 논설위원들은


주경 스님


허남결


조기룡


이미령

종단·불교학 필진 보강
전문 오피니언 칼럼 강화

현대불교신문사가 2019년 기해년을 맞아 논설위원들을 보강했다. 기존 필진 중에는 선업스님·방영준 교수·이화행 교수·이윤호 교수는 자리를 지키고, 새로운 전문 필진들을 모셨다. 새 필진들은 종무행정·불교윤리학 분야의 전문가들이다.

조계종 중앙종회 차석부의장 주경 스님은 중앙종무기관 주요 소임을 비롯해 교육·포교·복지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을 펼쳐왔다. 그러면서도 잔잔하고 감성적인 에세이집 4권을 발간한 문인이기도 하다. 스님은 종단 안팎 문제에 대한 날카로운 시선과 사색과 성찰을 오가는 글을 독자들에게 전할 것이다.

허남결 동국대 불교학부 교수는 불교계를 대표하는 윤리학자로 불교생명윤리의 이론과 실천 방향을 주도해 왔다. 공리주의를 전공해서 서양철학에도 높은 식견을 가졌다. 사회 전반 문제에 대해 천착할 수 있는 글이 기대된다.

조기룡 동국대 불교학술원 교수는 학부는 인도철학, 석·박사학위는 행정학 전공인 종무행정 이론의 독보적 전문가다. 종단 종무행정 관련 전문적인 칼럼을 접할 수 있을 것이다.

이미령 칼럼리스트는 경전 번역자이자 이야기꾼으로 현재 BBS불교방송 진행자, 불교대학 강사 등으로도 활동하는 팔방미인이다. 이미 여러 저서를 통해 검증된 이미령 칼럼리스트의 글을 현대불교신문에서 만날 수 있다.

불교사

정운 스님의 '인물로 읽는 禪의 역사'



조계종 불학연구소장 정운 스님은 출가 이후 모든 삶을 연구와 강의에 전념한 학승이다.

마조 선사를 전공하고 중국 선종 사찰 순례기인 〈구법〉을 발간했을 정도로 중국 선불교에 매우 정통하다. 초조 달마에게 전래된 이후 유구한 역사 속에 이어진 동아시아 선의 역사를 인물사를 통해 조명한다. 역대 선사들의 이야기를 통해 선의 흐름을 조망할 수 있다.

건강

대안 스님의 24절기 사찰밥상



사찰음식의 대가 대안 스님(금당전통음식연구원 이사장)이 선조들의 지혜가 담긴 24절기에 맞춘 사찰음식을 소개한다. 연재는 24절기 중 23번째인 1월 첫 절기 소한부터 22번째인 12월 마지막 절기 동지까지 이어진다. 1998년부터 대학과 병원 각종 지자체에서 사찰음식 강의를 해온 대안 스님은 연재를 통해 독자들이 집안에서 직접 사찰음식을 만들어볼 수 있도록 잔잔한 이야기와 레시피를 함께 버무려 맛깔나게 대접한다.

김동일의 '건강 한방'



책 〈마흔, 여자는 아프다〉 〈수행과 건강〉 등의 저자인 김동일 동국대 일산불교한방병원 병원장의 건강 칼럼이다. 단순히 증상의 원인과 처방만을 전해주는 칼럼이 아니라 우리 몸의 구조와 원리 등 근원을 살펴 증상의 배경을 집고, 그 원인을 설명한다. 그리고 음식, 생활습관, 운동, 약물 등 다양한 처방을 소개한다. 의사로서 전하는 딱딱한 제언이 아닌 스토리텔링 형식의 '건강 이야기'다.

스토리텔링

김경집의 '사찰 속 숨은 이야기'



사찰에는 이야기가 많다. 드러난 이야기만큼이나 숨은 이야기도 많다. 김경집 진각대 교수는 사찰의 숨은이야기에 천착해 연구해왔다.

불교사상과 관련된 60여 편의 논문을 자랑하는 전문 학자에게 우리가 알지 못했던 사찰 스토리를 들어보자. 사찰의 다양한 이야기 속에 담긴 재미와 감동을 독자에게 전한다.

기행

조준호의 '미얀마 수행처 이야기'



조준호 한국외대 인도연구소 연구원은 한국불교학계에 몇 명 안 되는 남방불교 전문가다. 그는 미얀마의 대표적인 수행처와 전통사찰 등을 탐방했고, 이를 기록했다. 그는 연재에서 당시 보고 듣고 느낀 점들을 소개한다.

이를 통해 독자들은 미얀마와 한국의 불교문화를 비교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

불교용어

윤창화의 '新 불교사자성어'



염화미소, 다정불심 등 우리 생활 속에는 불교와 관련된 사자성어가 많다. 우리가 생활 속에서 흔히 쓰고 있는 사자성어를 도서출판 민족사 윤창화 대표가 자세하게 해설한다. 기본적인 뜻은 물론 성어의 배경과 관련된 이야기와 그 속에 등장하는 또 다른 낱말 풀이까지, 성어에 관련된 모든 것들을 재미나게 들려준다.

교리강좌

김성규의 '연기이야기'



방사선종양학의 권위자인 김성규 영남대 의대 교수가 이번에는 불자들이 가진 잘못된 불교의 이해를 치료한다.

의학물리학자인 김 교수는 부처님 깨달음의 원리인 '연기(緣起)'를 과학·사회 등과 연계해 현대인에 눈높이에 맞춰 설명할 것이다. 그의 강의를 따라가면 부처님의 연기 사상의 일컫을 만날 수 있다.

이일야의 '신해행증으로 본 백문백답'



수행의 첫 단계는 먼저 법을 믿고(信), 다음에 그 법을 요해(了解)하고, 그 법을 실천(行)하여 열반을 증득하는(깨닫는) 것이다. '신해행증'이라고 한다. 불법을 깨치는 단계를 일목요연하게 설명해주는 말이다. 철학박사이고 보조사상연구원 연구위원을 지낸 전북불교대학 이창구(필명 이일야) 학장이 일상 속의 막연한 개념들을 신해행증의 시각에서 철학적으로 조명한다.

강승욱의 '격절록 강설'



〈격절록〉은 원오극근 선사의 공안집으로 설두중현의 백칙(百則) 염고(拈古)에 착어(着語)와 평창(評唱)을 한 것이다. 군법사를 지낸 강승욱 법사가 〈격절록〉에 대해 자세하게 알려준다. 연재는 〈만신속장경(卍新續藏經)〉 67 책(冊)에 수록된 내용으로, 중화전자불전협회(中華電子佛典協會)에서 2014년도에 전산화한 것이다.

자기계발

남혜경의 'Buddhist Coaching'



코칭은 내면의 잠재력을 끌어올리는 방법이다. 이를 위해서는 상대방의 마음을 열어야 한다. 대중들마다 대기설법으로 가르침을 준 부처님은 가장 훌륭한 코치가 아니었을까. 남혜경 코치는 불교 사상과 접목한 코칭을 진행하는 전문코치다. 한국코치협회 전문코치(KPC)로 사회초년생을 위한 진로코칭 등을 하고 있는 남 코치와 함께 부처님 가르침이 있는 불교 코칭의 세계로 다가가 보자.

임종욱의 '붓다 인생독법'



우리는 인생에 있어 본받을 만한 이들을 위인이라하며, 이들의 인생을 읽는다. 우리들 인생에서 많은 점을 변화시킬 위인들의 삶이지만 정작 어떤 부분에서 본받아야 되는지를 알려주는 기회는 드물다.

진주교대에서 학생들에게 문학과 작문을 가르치고 있는 임종욱 작가는 인생독법이란 새로운 시각의 인생 조언을 독자들에게 선사한다.

문화·명상

김성수의 '글쓰기 명상 상담'



글쓰기와 명상이 만났다. 명상은 으레 가부좌를 틀고 앉아 두 눈을 감고 호흡수행을 하는 것이라고 여길 터. 하지만 명상은 실생활 속에서 언제나 접할 수 있어야 한다.

1993년 〈현대문학〉 소설부문 신인상으로 등단한 김성수 마음과학연구소 대표가 불교명상과 글쓰기가 만난 응용명상을 바탕으로 편안하게 내면을 돌아보고, 스스로 상담하는 기회를 제공한다.

김원숙의 '불교미학'



김원숙 건국대 외래교수는 '미재(渼滓)'라는 이름으로 활동하는 불교미술학자다. 미적인 삶에 대한 관심에서 시작한 그녀의 미술활동은 현재 문화예술교육공동체운동으로 까지 확산되고 있다.

불교미학에서는 불교미술이 가진 독특한 미적 감각과 해석, 그리고 동서양의 여러 미술사상과의 비교를 통해 새로운 미적 지평을 열어 줄 것이다.

생활 불교 · 실천 불교 · 효행 불교

문화체육관광부 법인 인가 종단

사단법인 한국생활불교조계종

이사장 · 총무원장 석도선
고 문 석 암 도

승정원장 석벽봉 승정부원장 석화담 승정 석혜암. 석대원
원로부원장 석일우 원로위원 석법령. 석청산. 석우암. 석도명. 석정호. 석법산

총무원장	석도선	교육원장	석남산	기획원장	석보광	어 산 장	석도암
법계고시원장	석일두	호법원장	석청강	의전위원장	석명구	비구니회장	석혜담
총무부원장	석대공	총무부장	석도흥	감찰부장	석성보	조사부장	석성도
수행부장	석보각	사회부장	석종우	사서부장	석성우	조직부장	석성각
종무부장	석법민	문화부장	석성원	포교부장	석보현	연수부장	석원희
총무국장	석성덕	지원국장	석해인	봉사국장	석성호	포교국장	석혜성
포교국장	석법정	포교국장	석성원	의전국장	석균중	수행국장	석성탁
종무국장	석성안	문화국장	석원종	의식국장	석성혜		
비구니부회장	석효성	비구니부장	석지현	비구니국장	석충효		

제주중앙종무원장	석의공	예천중앙종무원장	석명허	강릉중앙종무원장	석성만	성주중앙종무원장	석홍재
칠곡중앙종무원장	석혜천	부천중앙종무원장	석원해	충북중앙종무원장	석선학	포항중앙종무원장	석체법
영주중앙종무원장	석문교	속초중앙종무원장	석태성	영천중앙종무원장	석도명	천안중앙종무원장	석함월
시흥중앙종무원장	석지일	경남중앙종무원장	석일지	태백중앙종무원장	석일현	김해중앙종무원장	석천각
문경중앙종무원장	석정현	창원중앙종무원장	석청암	대구중앙종무원장	석성담		

■종단법인 운영이사 이사장 도선 수석이사 남산 체법 일두 성만 성우
운영이사 청강 일현 도명 청암 혜천 수선화 성덕 의공 학산 법광 혜림 혜화 법수 성담 성원

■종단법률자문위원 변호사 : (明眞)김진우 | 법무사 : (雲虛)이익렬 | 세무사 : 이수열

사단법인 생활불교조계종

이사장 · 총무원장 석도선

■종립미래로봉사회

회 장	학 산 (이종길)	원 장	묘 각 (이재인)
부회장	진불심 (이순임)	부원장	혜 담 (이정민)
총 무	대각심 (김경숙)	국 장	불심화 (정형숙)
임 원	혜명심 (박현숙)	무 용	무애심 (박순애)
임 원	원명화 (윤영아)	연 출	원각심 (도지연)

■종립종합예술원

■법사승 임원

경남원장	도 혜	홍보부장	원 명	청주부장	혜 원
울산원장	법 광	부산부장	혜 성	전남부장	혜 명
경북원장	성 인	경기부장	자 운		
법사원장	목 암	구미부장	혜 진		
충북부장	상 학	대구부장	혜 련		

경남국장	성 광	포교국장	청 운	삼척국장	혜 원
사업국장	소 현	통영국장	덕 인	영천국장	원 명
포교국장	덕 운	포교국장	혜 림	통역국장	정 연
종무국장	도 연	봉화국장	혜 정	포교국장	혜 경
서울국장	명 덕	화순국장	보 정		

■ 총본산 : 경북 영양군 수비면 계2리 58-1번지 대표전화 054)682-5808 / 팩스 054)682-9848 ■ 총무원 : 서울시 은평구 증산서길 91, 2층 대표전화 02)303-5612



일면 스님은… 1947년 경북 경주서 태어나 해인사에서 명허(明虛) 스님을 은사로 출가했다. 1964년 해인사에서 자운 스님을 계사로 사미계를, 1967년을 구족계를 수지했다. 1968년 해인강원을 마치고 동국대 종비생으로 입학했다. 총무원 사회부장, 중앙종회의원, 제25교구본사 봉선사 주지, 조계종 교육원장과 호계원장, 초대 군종교구장, 동국대 이사장 등을 역임했으며, 현재는 광동학원 이사장과 생명나눔실천본부 이사장, 해인동문장학회 이사장, 조계종 원로의원 등을 맡고 있다.

생명나눔 · 포교…종무행정 '달인'

일면 스님 (생명나눔실천본부 이사장 · 조계종 원로의원)

대담=김주일 편집국장 kimji4217@hyunbul.com

조계종 원로의원인 일면 스님은 '원로'라는 말이 무색할 정도로 아직도 왕성한 현역이다. 취재 전 건넨 명함에는 광동학원, 생명나눔실천본부, 해인동문장학회 등 세 단체 이사장이라고 찍혀 있다. 그 이전에는 조계종 교육원장과 호계원장, 조계종 초대 군종교구장, 중앙종회 수석부의장 등을 지냈다. 직책만 맡으면 '올인'으로 확실한 성과를 일궈 내기에 많은 소임이 주어진다는 생각이 들었다. 일면 스님은 일단 주어진 일에 적극적으로 최선을 다한다. 전방위적인 포교 활동을 성공으로 이끈 비결이다. 궁금해졌다. 스님의 크나큰 원력과 자비는 어디서 비롯됐을까. 그래서 기해년 새해를 앞둔 구랍 21일 일면 스님이 주석중인 남양주 불암사 동축당(東竺堂)을 찾았다.

〈편집자주〉

▲2005년부터 13년간 헌신적으로 이끌고 있는 생명나눔실천본부의 활동이 제일 궁금합니다.

제 자신이 장기기증 수혜자로서 그 은혜를 회향하기 위해 생명나눔 확산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여지껏 맡은 소임중에서 가장 오랫동안 적극적으로 일하고 있는 것도 그 때문이죠. 개신교 등 다른 종교에 비해 늦게 출발했지만 매년 성장률만큼은 가장 앞섭니다. 큰 보람을 느낍니다. 생명나눔실천본부는 올해도 조혈모세포 희망등록사업, 장기기증 희망등록 사업 등 장기기증과 직접 관련된 사업뿐만 아니라 당장 의료비 지원이 절실한 환우를 돕는 치료비 전달, 입원 환자와 자원봉사자들을 위한 음악회, 시민 걷기대회, 유명 인사를 활용한 홍보 활동 등 다양한 사업을 펼쳤습니다.

▲그동안 생명나눔이 일군 구체적인 성과에 대해서도 소개주시지요?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조혈모 세포 희망 등록 사업 목표는 100% 달성했습니다. 매년 전국적으로 진행하는 릴레이 캠페인 참가 학교 수도 2016년 11개서 2017년 18개로, 올해에는 20개를 넘겼습니다. 특히 장기기증 희망등록자는 6천여 명(누계 6만3857명)을 넘어섰으며, 3천여 명이 후원에 새로 동참했습니다. 특히 지난 9월 29일 논산 육군훈련소서 제가 훈련병 3000여 명에게 수계했는데, 거의 모두 장기 기증을 서약했습니다. 큰 감동이었죠. 이외에도 60여 명 소아암, 난치병 환자가 생명나눔실천본부로부터 총 3억원의 치료비 지원 혜택을 받았죠.

▲생명나눔실천본부 하면 장기 기증 이식만 생각하는 경우가 많지만, 소외계층을 위한 다양한 사업도 펼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떤 일들을 하시는지요?

경제적 형편이 어려운 환자를 대상으로 '이달의 환우'를 선정해 치료비를 전달하는 환자 치료비 지원사업을 합니다. 올해 역시 많은 환자들에게 치료비를 전달했죠.

가수 수지씨가 자신의 25번째 생일을 맞아 지난해에 이어서 올해도 10월 19일 생명나눔실천본부에 1억원을 쾌척했는데, 이런 기부금들로 소아암과 백혈병 환자를 위한 치료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수지씨는 지난 2014년 불교계 유일 장기기증 등록기관인 생명나눔실천본부에 장기 · 조직기증 희망등록을 하며 난치병 환자들에 특별한 관심을 보여 온 바 있습니다.

▲조혈모세포 기증사업은 불교계서는 좀 생소한데, 어떤 사업인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조혈모세포 기증은 조직적합성항원형(HLA)이 일치해야 가능한데, 그 확률은 부모와는 5%, 형제간에도 25%에 불과합니다. 타인과 일치할 확률은 수천에서 수만 분의 1로 낮습니다. 기증희망 등록자가 많아져야 확률이 높아지기 때문에 조혈모 사업팀은 아주 많은 희망자를 모집하는 것이 가장 큰 임무입니다. 나아가 희망 등록자가 실제 기증까지 이어질 수 있게 다양한 사후관리를 합니다. 그런데도 기증희망 등록자 중 절반이 기증 동의 순간에 여러 사유로 의사를 번복하죠. 그래서 실제 기증으로 이어지도록 사전에 정확한 정보를 전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런 각고의 노력 끝에 조혈모세포기증 희망등록자 수는 각 3만 명을 돌파했습니다.

> **뇌사자 장기 받고 죽음 문턱서 소생**
> **'생명나눔'은 평생 실천 회향 할 '業'**
> **"새해, 자신 항상 돌아보는 삶 살길"**

▲급증하는 자살문제는 우리 사회가 신속히 해결해야 할 큰 과제중 하나입니다. 생명나눔 실천본부에서도 자살예방 사업을 활발히 진행하시는데, 이에 대한 방안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요?

청소년 자살률 세계 1위라는 오명을 입을 정도로 우리 청소년들은 학업스트레스 및 부모와의 갈등 등 많은 고민을 안고 삽니다. 이들에게 밝고 따뜻한 심성을 심어주고 생명의 소중함을 일깨워주기 위해 생명나눔 직원들이 직접 학교를 찾아가 강의와 캠페인을 전개합니다.

이들뿐만 아니라 청년들은 취업난 · 경제난 등 이중고를 겪고 있죠. 먹고 사는 문제로 걱정하고 정신적 스트레스로 우울증에 걸려 자살을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다고 합니다. 이들을 위한 구체적인 사회안전망 제도 마련도 시급하죠.

▲스님께서 이렇게 생명나눔실천 운동에 진력하시는 것도, 18년 전 죽음의 문턱서 살아 돌아 온 경험이 크셨다고 들었습니다. 당시엔 절망적이셨을 텐데요. 그 때의 상황을 들려 주시지요.

저의 삶에서 가장 큰 시련이었습니다. 의사로부터 간경화 진단을 받았죠. 1년에 16차례 입 · 퇴원을 할 정도로 간이 좋지 않았습니다. 당시엔 전혀 회복할 기미가 보이지 않았어요. 급기야 말기암으로 악화됐습니다. 육체적 고통도 컸지만 정신적 고통이 더 컸습니다. 우울증도 심해졌어요. '일체유심조'라고 했지만 40여 년 수행 생활을 한 나로서도 이 고통은 견뎌내기가 힘들었습니다. 병원서 이불 덮고 펑펑 울기도 많이 했어요. 모든 것들을 정리하고 부처님 앞에서 한 번만 살려달라고 간절히 기도했죠. 살려주시면 앞으로 부처님 시봉 잘 하겠다고요.

불은으로 네 번의 간이식 수술 시도 끝에 기적처럼 뇌사자와 인연이 돼 새 삶을 찾게 됐습니다. 2000년 1월, 20시간의 수술과 3일간의 혼수상태 끝에 다시 살아났습니다. 그 때부터 제게는 은혜를 갚으며 살아야 하는 새로운 인생이 펼쳐진 것입니다. 요즘도 저를 위해 장기 기증한 22살 청년의 은혜에 감사하는 기도를 매일 올립니다.

▲수행승으로 소문난 은사 명허 스님의 별명은 '호랑이'였다고 들었습니다. 명허 스님은 스님에게 "선방 가서 수행승이 돼 한국 불교를 일으켜 보라"고 권했지만, 스님은 당돌하게 불교 행정 전문가가 되겠다고 하셨다는데 사실인가요?

예 맞습니다. 지금 생각해도 제가 당돌했죠. 은사 스님은 늘 참선해서 불교를 일으켜 보라고 권했죠. 하지만 제겐 맞지 않다고 생각했어요. 시대에 걸맞은 역할을 하고 싶었죠. 스님들이 공부하는 데 필요한 행정을 뒷받침하는 것도 참선 공부 못지 않게 앞으로의 시대에 중요하겠구나 하는 생각을 당시에 했습니다. 은사 스님은 보기만 하면 계속 선방가라고 경책했지만, 제 입장에는 변함이 없었습니다. 참선이 아닌 행정승으로도 도인이 나와야 앞으로의 한국 불교가 발전할 수 있다고 수차례 설득해 은사 스님으로부터 기어이 허락을 받아냈습니다. (웃음)

▲얼마 안 있으면 기해년 새해가 밝아옵니다. 불자들에게 평소 강조하시는 말씀이 있으면 덕담 한마디 해주시죠.

저는 평소에 '한쪽 모퉁이를 비추면 천지가 다 밝아진다'는 〈법화경〉에 나오는 말을 좋아합니다. 홀로 천지를 모두 밝게 하려는 마음가짐보다는 내가 한 분야를 비추겠다는 각오로 살아왔고, 또 앞으로도 그렇게 살아가겠다는 서원이죠. 새해에 우리 불자들은 '회광반조(回光返照)' 하는 삶을 살았으면 합니다. 회광반조를 나는 항상 나를 돌이켜 본다는 뜻으로 이해합니다. 하루에도 몇 번씩 내 자신을 돌아보며 마음을 추스리면 바른 생각과 행동을 하며 살 수밖에 없습니다. 새해에 우리 불자들 모두 부처님처럼 바르게 살길 발원드립니다.



인욕 · 배려하며 이웃과 나누는 해로

자유인으로 살아가면 날마다 좋은 날 된다

진제 스님
조계종 종정



새해아침 복(福)을 여는 즈음에 그 가운데 부처님의 진리가 있느냐, 없느냐? 있다고 하겠습니다. 어떤 것이 새해에 복을 여는 것이냐? 높은 산은 스스로 높고 낮은 산은 스스로 낮음이로다.

시방법계(十方法界)에 기해년(己亥年) 새해의 아침이 밝았습니다. 우리의 마음에도 희망과 지혜의 새 빛을 비추어 사바(娑婆)의 짙은 어둠을 몰아냅시다. 본래 시간(時間)도 없고 생사(生死)가 없건만 우리의 분별(分別)로 생긴 시간이 흐르고 흘러 생로병사(生老病死)가 생겨 윤회(輪廻)의 고통에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개개인인(箇箇人人)이 시간을 부리는 주체적(主體的)인 자유인으로 살아가면 일각(一刻)이 무량겁(無量劫)이 되어 날마다 좋은 날입니다. 하지만 번뇌와 집착에서 벗어나지 못한다면 시간에 예속(隷屬)되어 무진세월(無盡歲月)도 경각(頃刻)의 생사(生死)일 것입니다.

어둠이 짙어지면 등불을 찾고 아픈 환자들은 의사를 찾듯이 탐진치(貪瞋癡) 삼독심(三毒心)에 빠진 중생들은 대자대비(大慈大悲)하신 부처님의 가르침에 귀의(歸依)해야 합니다.

부처님께서 수행자들에게 "그대들이 서로 화목하고 다투지 않고 감사하며 물과 우유처럼 서로 어울리고, 서로 사랑하고, 서로 돌보며 사느냐?"라고 하신 가르침이 절실한 때입니다.

세간(世間)의 극심한 경쟁과 인간의 끝없는 탐욕(貪慾)으로 모든 사람들이 고통의 바다 속에서 헤매고 있습니다. 나와 남이 둘이 아니고 인간과 자연이 한 몸입니다. 사람이 부처이고 일목일초(一木日草)가 설법(說法)하고 산하대지(山河大地)가 화엄세계(華嚴世界)입니다.

각자의 분상(分上)에서 자신의 일에 성실하고 인욕(忍辱)하며, 타인(他人)을 배려하고 존중하고 그리고 소외된 이웃과 더불어 나누며 함께 할 때 상생극락(相生極樂)입니다.

모든 인류가 삶에 주인(主人)이 되고자 한다면, 일상생활(日常生活)하는 가운데 '부모에게 나기 전에 어떤 것이 참나인가?' 하고 이 화두(話頭)를 챙기고 의심하면 홀연히 깨닫게 되어 우리 마음속에 번뇌와 갈등이 빙소와해(氷消瓦解)되어 대안락과 대자유와 대평안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필경(畢竟)에 진리의 한마디를 선사하니 잘 받아가지세요.

來年更有新條在(내년갱유신조재)하야
惱亂春風卒未休(뇌란춘풍졸미휴)로다
내년에 다시 새 가지에 새움이 자라서 봄바람에 어지러이 쉬지 못함이로다.

本分 소중히 여겨 정진하자

조계종 총무원장 원행 스님



국민 여러분의 가정과 일터에 밝고 건강한 기운이 가득하기를 기원합니다.

일상 속에서 바르게 자비를 실천하여 이웃과 함께 복과 덕을 나눕시다. 정법과 정의는 위대하며 영원하다는 것을 잊지 말고 지금의 인연과 자신의 본분을 소중히 하여 부단히 정진해야 합니다.

부처님께서는 모든 것은 서로 연계되어 있는 인연의 조건 속에서 변화한다고 하셨습니다. 오늘의 삶은 어제의 원력을 통한 행동의 결과입니다. 우리가 항상 깨어 있는 삶을 살아야 하는 이유입니다.

돼지는 근면과 성실, 복과 재물을 지키는 상징입니다. 더욱 풍요로운 세상을 만들어 어려운 이웃들에게 힘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특히, 청년 세대의 고통을 덜어주고 소외된 약자들을 지키는 친구가 되어 조화로운 세상을 만들어 갑시다. 나아가 3.1운동 100주년을 맞아 남과 북이 굳건한 평화체제를 이뤄내는 성과가 있기를 바랍니다. 국민 모두가 좋은 기운과 훈훈한 인연으로 밝은 새해를 활짝 열어 나가시길 기원합니다.

지구상 모든 생명 행복 발원

태고종 총무원장 편백운 스님



석존께서는 제행무상을 말씀하셨다. 우주 삼라만상과 일체만물은 변화의 법칙을 떠나서 존립할 수가 없음은 우리 모두가 잘 알고 있는 진리이다. 그러므로 한역할 때 제행무상을 삼법인 가운데 하나의 법인으로 확정했다. 이 제행무상은 불교의 표지(標識)로서 불법의 진실함이며 영원불변함이기 때문이다.

벌써 해가 바뀌고 있다. 단순히 태양계의 운행질서에 불과한 계절의 순환이라고 볼 수도 있겠으나, 우리 인간들은 이런 자연 질서와 운행에 의미를 부여하고 삶에 새로운 활력소를 불어넣기 위하여 새롭게 마음자세를 가다듬고 태도를 바르게 하고자하는 희망을 준비한다.

불완전한 인간이기 때문에 이런 감정을 갖고 해가 바뀌는 서두에서 몸과 마음을 가다듬고 새해 소망을 염원하면서 그 해의 할 일을 계획하고 성취를 발원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비록 부처님께서는 진리의 당체를 있는 그대로 교시하셨고, 우리는 그대로 믿고 따르면서 절대 공감하는 바이지만, 중생계에 사는 실존적 존재이기 때문에 감성적인 면에 영향을 받고 생존해야 하는 중생이다.

한국불교도는 물론이지만 세계불교도, 남북한과 해외 곳곳에 사는 한민족과 더 나아가서는 지구상의 인류전체가 인권과 생명의 존엄성에 침해받지 않고 인간답게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기해년이 되기를 제불보살님 전에 두 손 모아 축원 올린다.

세상 밝히는 法燈 거듭나자

천태종 총무원장 문덕 스님



己亥年 새 아침이 밝았습니다. 희망으로 솟아오른 자비광명이 일체 만물의 행복과 평화를 밝혀주고 있습니다.

올해는 '복된 돼지의 해' 입니다. 모든 사람들의 마음에 부귀가 깃들고 청정한 재물이 증익되는 축복의 한 해가 되기를 바라며, 국운의 융창과 인류의 행복을 기원합니다.

불자여러분 그리고 국민여러분. 새해에는 나를 낮추고 상대를 공경하며 화합과 상생의 길을 걸어갑시다. 부처님의 가르침에 더욱 귀 기울여 탐욕과 집착을 버리고 나와 남이 함께 행복한 세상을 만들어 갑시다.

우리들 대부분이 경험하는 일입니다만, 모든 사람의 꿈과 희망은 결코 쉽게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누구나 행복을 원하지만 모두가 행복할 수 없는 것이 중생계의 현실입니다. 그러나 행복의 씨앗을 뿌리는 사람은 언젠가 행복의 결실을 맛보고, 자비의 손길을 펼치는 사람은 반드시 그 공덕의 주인이 됩니다.

내가 행복하고 세상이 평화롭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나의 작은 실천이 필요합니다. 스스로 동체대비와 자리이타의 가르침을 실천할 때 자신과 세상을 밝히는 법등이 될 수 있습니다.

불자여러분 그리고 국민여러분. 기해년 새해의 밝고 힘찬 기운이 더욱 상승하여 소통이 원활하고 만생이 상생하여 우주법계가 행복해지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모두 더불어 잘 사는 세상을

진각종 통리원장 회성 정사



지혜(智慧)의 눈을 뜨고 자비(慈悲)의 행(行)을 실천합시다.

새해에는 새로운 각오와 다짐이 필요합니다. 바른 신행으로 지혜로운 생활을 하고, 기쁜 마음으로 자비로운 행을 하면 누구나 다 행복할 수 있습니다. 마음공부가 필요합니다. 마음공부는 스스로를 변화시킬 수 있는 힘입니다. 자기를 바로 세우고 가꾸는 방편입니다.

시방삼세, 가림 없이 생겨났다가 변하고 사라지는 모든 일은 인연의 소산입니다. 오늘 맞이한 해가 어제 떠나보냈던 해와 다르지 않습니다. 이 과정에서 역사적이며 전통적인 것은 계승하고 발전시켜나가야 합니다.

지난해 연이어 개최됐던 남북정상회담과 북미정상회담에서 손을 맞잡고 했던 약속도 반드시 지켜져야 합니다. 앞으로 제2차 북미정상회담 등이 성공적으로 이어져 남북문제는 물론 세계의 인류가 더불어 평화롭고 행복하게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올해는 국가 경제도 보다 발전되어 고용이 창출되면서 너나없이 누구나 넉넉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정진합시다.

부처님의 자비광명과 진각성존 회당대종사의 무진서원으로 인류가 화합되고 한반도에 영원한 평화가 깃들며 국내 정치와 경제가 안정될 뿐만 아니라 도덕윤리가 바로서서 인륜과 자연의 질서를 회복해 모두가 더불어 잘 살기를 서원합니다.

주인공으로 지혜롭게 살아가자

관음종 총무원장 홍파 스님



무술년의 해가 저물고 기해년의 태양이 떠올랐습니다. 돌이켜보면 어느 한 해 어렵지 않고, 힘들지 않았던 때가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들은 잘 견뎌왔고, 또 견뎌내고 있습니다. 우리 민족, 특히 우리 불자들은 우리나라에 불교가 전해진 이후 1700년 동안 부처님의 가르침을 통해 더욱 슬기롭고 지혜롭게 역경을 헤쳐 왔습니다.

기해년 새해 꿈과 희망을 이야기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혼란과 역경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지 마음을 바로세우고, 다잡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 마음을 다잡는 방법은 세상을 주인공으로 지혜롭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주인공은 희망을 살리고 역경을 극복하는 사람입니다. 기해년 황금 돼지의 해는 당신이 주인이고 여러분이 주인공입니다.

조금 덜 먹고 즐겨 중생 행복 살펴보자

혜초 스님
태고종 종정



희망과 의욕에 찬 발걸음은 백두영산에서 한라영봉까지 거침없이 달려갑니다. 반만년 민족의 정기와 혼은 항상 백의민족의 정체성을 잃지 않고 세월을 견디어 오고 있습니다.

이제 두 동강난 허리는 하나가 되고, 가시철조망 사이로 쌓인 눈물이 감로수로 변하고 70년 헤어짐의 설움은 만남의 기쁨으로 변하여 이 땅이 불국토가 되고 낙원이 되어 살기 좋은 삼천리금수강산에 온갖 생명체의 행복한 둥지가 되도록 우리 모두 발원하고 소원을 빕시다.

너나 하지 말고 우리는 하나다 그리고 지구촌은 우리의 마을이다 '세계는 한 송이 꽃이다' 는 큰마음 큰 뜻으로 함께 더불어 같이 웃고 뒹굴며 사는 공동체 민주사회를 건설하고 다 같이 배부르고 늴리리야 니나노 노래하며 춤추는 태평성대를 구가합시다.

부처님 제자들은 조금 덜 먹고 덜 즐기면서 남이 즐겁고 기쁘고 행복하도록 옆에서 뒤에서 살펴주는 큰 수레 보살의 정신과 마음으로 살아가는 미덕을 발휘하는 것이 도리이며, 남에게 손가락질 받는 언행은 삼가고 조용히 입을 닫고 마음속 깊은 심연의 천 길 낭떠러지에서 다시 살아나오는 출격장부의 기개를 보여, 인천의 사표가 되도록 정진하고 또 정진하는 수행자가 되는 것이 본분사입니다.

서원으로 삶을 장엄하라

도용 스님
천태종 종정



원력이 크면 고난을 이겨낼 수 있으니 업력에 이끌리는 삶에서 벗어나 욕망을 서원으로 바꾸어 삶을 장엄하라. 비우고 또 비워서 무심이 되면 바른 기도가 되고 복을 짓게 되어 지혜와 공덕을 갖추게 되는 것이니 분별을 떠나야 깨달음에 이를 수 있으리라.

자유로움은 스스로 만드는 것이니 지혜로운 이는 모두를 포용하지만 어리석은 이는 자신을 구속하네. 모든 것은 인연 따라 온 것이니 깃들어 있는 의미를 발견한다면 취하고 버릴 것이 따로 없어져 제법실상의 묘법을 보게 되리라.

자비행 펼치는 한 해로

법공 정사
총지종 종령



황금 돼지의 기해년에는 모든 교도들이 부처님의 자비와 지혜를 증장하고 복덕을 길러내는 한 해가 되기를 서원합니다. 그리고 토양 속에 있는 황금을 찾아내듯 우리 자신의 마음속에 있는 불성(佛性)과 자비심(慈悲心)을 발현하는 기해년이 되기를 발원합니다. 그 길은 바로 부처님의 법을 변함없이 믿고, 꾸준하게 닦아 지속적으로 실천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기도와 불공이라는 정진수행과 함께 구체적으로 봉사를 펼치는 것이 실천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실천이 곧 수행입니다. 수행은 자리(自利)이며 실천은 이타(利他)입니다. 다른 사람을 위하는 실천이야말로 진정한 수행입니다. 자리이타(自利利他)가 불이(不二)인 것입니다.

또한 수행과 실천, 봉사는 머리와 입으로 하는 것이 아니며, 팔만 사천교리에 있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 가까이에 있으며, 자신의 몸과 마음으로 직접 행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마음을 선심(善心), 자비심(慈悲心)이라고 하며, 그 실천이 선행(善行)이요 자비행(慈悲行)입니다.

자비의 실천을 부처님께서는 사무량심(四無量心)과 사섭법(四攝法)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사무량심과 사섭법을 실천의 지표로 삼아 기해년 새해에는 선행과 자비행을 무한히 펼치는 한 해가 되기를 바라며, 비로자나 부처님의 자비와 지혜의 광명, 황금의 복덕이 각 가정마다 충만하시기를 거듭 서원합니다.

옴마니반메훔. 옴마니반메훔. 옴마니반메훔.

삼업 바로 세워 모범을

회정 정사
진각종 총인



큰물이 강을 이루고 바다를 넘나들 듯이 둥글고 큰 해가 세상을 고르게 비춥니다. 누구라도 몸과 입과 뜻을 살펴 행할 때 자기 먼저 행복하고 이웃도 이롭습니다.

삼밀을 수행하여 육바라밀을 실천하면 그가 부처요, 머문 곳이 밀엄정토입니다.

진각성존 회당대종사께서 '불법(佛法)은 체(體요), 세간(世間) 법(法)은 그림자' 라고 했습니다. 기해년(己亥年)을 맞아 마음을 가다듬고 솔선수범(率先垂範)하는 자세(姿勢)를 가져야 하겠습니다. 부처님의 법을 공부하고 실천하는 불자(佛子)들이 바로서야 합니다. 자기 먼저 바로서면 가족(家族)이 바로서고 이웃과 사회, 나라, 세상의 모든 것이 더불어 바로 서게 됩니다.

바로 선다는 것은 자기(自己)의 양심(良心)을 좇아서 중심(中心)을 잘 세우는 것입니다. 새해에는 신(身) · 구(口) · 의(意)를 바로 세우는 삼밀수행(三密修行)으로 상구보리(上求菩提)를 실천(實踐)하고, 불자(佛子)로서의 근본수행(根本修行)인 육바라밀(六波羅密)을 수행(修行)하여 오대서원(五大誓願)을 성취(成就)하기 위한 서원(誓願)을 세워서 용맹정진(勇猛精進)합시다.

불교 최상의 해 발원

국제선불교조계종 대승정 목탁



正等覺無畏 漏永盡無畏(정등각무외 누영진무외)
設障法無畏 說出道無畏(설장법무외 설출도무외)
새해는 전 세계 67개국 불교 지도자들이 하나의 자리에 모여 세계불교 위상을 논하는 회의가 준비되어가고 있어 어느 해보다도 뜻 깊은 불교 최상의 해가 될 것입니다. 힘들고 지친 육신을 이끌고 어두운 외길을 지나 이제 드넓은 대지위에서 밝아오는 태양을 바라봅니다. 우리는 번뇌와 고통으로 끊임없이 싸워 이겨가야만 되는 숙명을 안고 중생계에 머무는 중생입니다. 부처님의 사랑에 축복하고 기뻐하며 기려야 할 만생명의 환희가 가득한 세상이 바로 부처님 세상입니다.

국태민안 가화만사성

불교조계종 종정대행 혜인



도량청정무하예 삼보천룡강차지(道場淸淨無瑕穢 三寶天龍降此地)
마음이 청정하면 소원이 이루어진다. 하늘은 푸르고 한강물 유유히 흐른다. 국태민안하고 가화만사성이라. 국가는 성장하고 국민은 행복하니 대한민국이 극락이로다.
존경하는 불자여러분 전자국가시대가 도래했습니다. 2019년 새해에는 청정한 마음으로 생활해야 합니다. 시대를 가름하지 못하면 함께 하기가 어렵습니다. 문재인 대통령께서 12월 18일 주재한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노 플러그인을 정책목표로 추진할 것을 지시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과 함께 복덕이 구족한 나라를 만들기 바랍니다.

새아침 새로운 희망이

대한불교화엄종 총무원장 화응



새해의 찬란한 태양은 우리 뭇 중생들의 얼어붙은 마음을 녹이려고 동녘 하늘에 붉게 타오르고 있습니다. 그 어느 해보다도 더 찬란하게 불타오르고 삼라만상의 모든 생명에 힘찬 기운을 불어 넣고 있습니다.
부처님 말씀에 천지는 한 뿌리요, 만물은 한 몸이라고 했습니다. 일체가 부처님이요, 부처님이 일체이니 모두가 평등하게 행복해야 합니다. 집착이 끊어진 그 자리가 해탈이요, 시시비비 끊어진 그 자리, 다툼의 대립이 영영 소멸된 이 세계가 화쟁의 세계요, 평화의 세상입니다. 우리 한반도에 평화가 온다면 그것은 세계의 평화입니다. 세상 모두가 웃을 수 있는 그날까지 복전(福田)을 일궈 나갑시다.

대자대비 유연중생 제도

대한불교 총화종 종정 남정



天月普照先照高山(천월보조선조고산)
佛慈廣大先濟有緣(불자광대선제유연)
感德道交如燈水月(감응도교여등수월)
一切水月一月總攝(일절수월일월총섭)

하늘의 밝은 달 높은 산봉우리 비추이고 부처님 대자대비 유연중생 제도하네. 천강에 비친 달, 하나에 깨어나니 중생이 절로 감탄하며 제불이 응하도다.

본성진아를 찾자

대한불교불입종 종정 면철



이 세상에서 영원한 것은 오직 본성진아뿐이건만 오욕락에 끄달린 중생에게는 구름에 가리운 달과 같아서 생과 사의 길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곳곳에서 아우성을 치고 있습니다. 이제 모든 인류는 제자리로 돌아가야 합니다. 오늘도 많은 사람들이 고통 속에 살면서 세월을 탓하고 남을 원망하며 자신을 학대하고 있습니다. 지금부터라도 각자의 본성으로 돌아가 참회하고 업을 맑히는 생활을 해야 합니다. 새해에는 자기 자신부터 본성으로 돌아가 악업을 멀리하고 선업을 쌓아 사람답게 사는, 참사람이 사는 사회를 만들어야 하겠습니다.

구화무쟁으로 선업을

(사)한국불교종단총연합회 이사장 산수



一言不中 千語無用(일언부중 천어무용)
한 마디 말이 맞지 않으면 천 마디 말이 무슨 소용 있으리. 우리 주변에는 말 한마디 잘하여 흥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 말 한마디 잘못하여 망한 사람이 수없이 많은 것을 볼 수 있다. 한 마디 말이 천냥 빚을 갚는다고 한 것도 그만큼 말의 위력이 크다는 것을 비유한 것임을 짐작하면서도 실천에 이르지 못하고 있는 것은 참으로 안타깝다 하지 않을 수 없다. 밝아온 기해년에는 六和敬行(육화경행)의 口和無諍(구화무쟁)을 실천하여 선업을 쌓으시길.

애착 버리고 자유를 찾아

대성불교조계종 총무원장 해일



청정한 마음을 이어가는 새해가 되도록 정진하자. 기해년에 우리영욕(榮辱)에 물든 세속의 감정으로 모든 이들을 더럽히지 않으며 겉모양의 실상은 허망한 것임을 알아 애착을 버리고 자유를 얻어 행복한 나날을 이어가고 모든 이들의 인연을 소중히 여기고 섬기는 기해년 한 해가 되기를. 나무아미타불 나무관세음보살.

만 중생 은혜에 보답을

대한불교삼보종 종정대행 법장



생사애욕단절(生死愛慾斷切)
번뇌고해초월(煩惱苦海超越)
불도천생은혜(佛道千生恩惠)
보은사장시주(報恩師長施主)
바다와 같이 넓고 큰 욕심과 집착을 끊어서 모든 번뇌와 일체의 고통에서 벗어나고져. 낳아주신 부모님 은혜에 보답하며, 나라님, 스승님, 시주하신 모든 분께 은혜에 보답합시다.
나라님은 국민경제와 안전에 힘써주시고 온 국민은 용기와 희망을 일으키시고 불교계 고승대덕 큰스님과 출가재가 불자들은 불국 중흥을 위하여 수행하며 포교하는 새해가 되시고 복덕구족 하십시오.

업의 허물을 벗어내자

(재)대한불교일붕선교종 종정 원각



기해년 새해 인사 올립니다. 척박한 사바세계에 인연 따라 태어나 궂은 비 모진 바람 양식 삼아 살아온 인생, 이제 그만 정리하고 부처님의 간절하신 보살핌을 받아 업(業)의 허물 벗고자 힘쓰겠습니다.
일도 많고 어려움도 많았던 2018(무술)년도 바람과 같이 지나가고 흘러간 세월만큼 쌓이는 회포인데, 그림자처럼 지나간 한 해를 되돌아봅니다. 새해에는 세상만사가 꿈과 같고 물거품 같고 아침이슬과 같다고 하신 부처님 말씀 바로 새겨, 보고 듣고 느껴지는 감각기관에 속지 말고 본래 마음 성품을 찾아야겠습니다.

분별없는 자비심의 해를

(재)대한불교일붕선교종 총무원장 경원



태양은 분별없이 모든 곳을 비추어 줍니다. 좋고 나쁨을 가리지 않고 평등하게 나누어 줍니다. 부처님께서는 선악을 초월하라는 큰 가르침을 말씀하셨습니다. 대부분 사람들이 주장하는 선악은 다분히 감정위주의 분별심이 작용하는 데서 올 뿐입니다. 즉 사바세계에서 말하는 선악은 대부분 아전인수 격인 독선과 자신만의 관점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절대적인 불성을 찾지 않고 상대성만으로 판단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유년 새해에는 태양과 같이 분별하지 않는 자비심을 널리 펼치는 한 해로 만들어 나갑시다.

자기본분 최선 다하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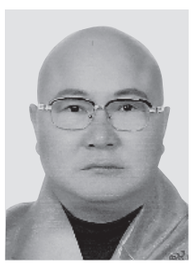
한국불교조계종 총무원장 대봉



기해년 새해를 맞이하는 마음자세를 바로 세워야 합니다. 대자대비가 지금의 이 세상을 구원하는 해법임을 알아서 선악을 구분 짓지 말고 자비로운 생활을 합시다. 이처럼 생활해 나간다면 '자비무적' 이라 어디 누가 있어 적이 될까요. 적이 있을까요. 우주 삼라만상이 하나인 도리를 부처님께서 설해주셨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나와 하나인데 누구를 미워할 수 있겠습니까. 나라가 힘들 때일수록 우리불자들은 본래의 자리에서 차분하고 지혜로운 자세로 자신의 본분에 맞추어 최선을 다하는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비로광명 가득한 새해

(사)대한불교한마음조계종 총무원장 청운



기해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매년 밝게 떠오르는 아침 해는 변함이 없는데 우리는 각자의 생각과 분별, 자기 판단을 기준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있어 밝아도 밝음을 보지 못하고 지난해를 보내고 새해를 맞이하는 것 같습니다.
모쪼록 새해에는 어려운 모든 일이 원만하게 해결되어 모든 국민이 환하게 웃는 해, 새로운 미래를 도약하는 해의 원년이 되어 우리 모두가 비로자나 부처님의 가피가 충만한 한 해가 되길 기원합니다.

세월 따라 인연 따라

(사)대한불교응공조계종 종정 법운



세월 따라 왔다가 세월 따라 갈 것이, 밝은 달은 비추고 맑은 바람은 떨치도다. 비록 본래 한 물건도 없다 하지만 봄이 오면 옛날을 의지해 초목이 스스로 일어나도다. 구름이 갔다가 구름이 올 것이 허공에는 오고 간 자취도 없도다. 묵은해는 가고 새해 오니, 탐진치 삼독을 버리고 원하는바 모두 이루어 행복한 한 해가 되소서. 부처님 자비광명이 함께 하시길 기원 드립니다.

흐르는 물 돌아오지 않는다

대한불교무량종 종정 혜안



비워라 비워라 비우지도 못하고 버려라 버려라 버리지도 못하고 또 한 해의 달력을 만들었네. 모든 것들은 무상(無常)하거늘 항상(恒常)하다고 착각 하지마라.
흐르는 물은 다시 돌아오지 않고, 떠도는 구름은 다시 볼 수 없다네. 용서할 줄 아는 사람은 행복(幸福)하지만 미움을 버리지 못한 사람은 불행(不幸)한 것을. 지지배배 꿍얼꿍얼 남 탓 하지 말고 돼지해 복(福)돼지 만들려 거든 어리석은 탐욕(貪慾)을 걷어내고 지난 그릇된 일들 참회하면서 베풀어 덕(德)을 쌓세. 수리수리 마음수리(修理) 수수리(修修理) 사바하. 나무아미타불.

새해 맞고 묵은해 보내며

(사)한국생활불교조계종 종정대행 도선



날과 날이 그냥 이어지는 것인데 우리 기준으로 새해니 묵은해니 합니다.
매일 매일이 새날이고 매일 매일이 묵은 날인 것인데. 서로를 둘러보고 보듬어 함께 잘 살아 봅시다. 같이 힘들고 같이 아파하는 열린 마음으로 모두가 하나 되어 밝게 미소 짓는 불자가 됩시다.
항시 자기를 낮추고 온화한 미소로 함께 살아갑시다. 아집과 이기심을 비우고 참회를 구현할 때 부처님의 크신 광명이 나투시고 중생들은 비로소 행복과 안위의 소원을 이룰 수 있습니다. 나무석가모니불.

집집마다의 부처님

(사)대한불교금강조계종 종정 법호



기해년 새해에는 우리 모두 참다운 불공을 합시다. 집집마다 부처님이 계시니 부모입니다. 내 집안에 계시는 부모님을 잘 모시는 것이 참다운 불공(佛供)입니다. 수없이 많은 이 부처님께 정성을 다하여 섬기는 것이 참다운 불공입니다. 이리가도 부처님, 저리가도 부처님, 부처님을 아무리 피하려고 하여도 피할 수가 없으리. 불공의 대상은 무궁무진하여 미래겁(未來劫) 다하도록 불공을 하여도 끝이 없습니다. 이것이 곧 불보살의 큰 서원이며 참다운 불공입니다. 새해에는 허망된 욕망과 아집을 버리시고 서로 베풀면서 복덕을 쌓아 복되고 희망찬 한 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생명의 실상 바로 보자

(재)한국불교여래종 종정 법수



세월이 흘러 기해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물은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흐릅니다. 이렇듯 자연스러운 자연을 닮아가는
것이 도입니다. 우리의 삶도 자연의 일부분 이듯이 자연스러움이 넘쳐나면 삼독이 저절로 녹아내릴 수밖에 없습니다.
새해 밝은 눈으로 생명의 실상을 바로 봅시다. 생명의 실상을 바로 볼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신 분이 바로 부처님이십니다. 부처님의 법에 따라 업을 닦고 정진한다면 어떠한 어려움도 능히 헤쳐 나갈 수 있습니다.
불자님의 가정에 부처님의 자비와 광명이 함께하기를 항상 기원 드립니다.

공동의 기도 원력을

대한불교법화종 총무원장 도성



또 다시 해가 바뀌었습니다. 하지만 우리 앞에 드리운 명운은 IMF구제금융 당시보다 더 어렵다고 합니다. 그렇다고 주저앉거나 물러설 이유는 없습니다. 나라 경제가 어렵고, 불교의 부침마저 계속되고 있는 현실의 벽에서 우린 다시 일어서야 합니다.
올해는 나를 위한 기도보다는 공동의 기도를 통해 원력을 세워 주시기를 바라마지 않습니다. 나라 위에 종교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나라가 있고 종교가 있습니다. 우리 법화종도들도 현재의 어려운 나라경제가 조속히 회복되고, 국운이 융성하고 한반도의 영원한 평화가 찾아오길 다함께 기원해야 하겠습니다.

참 마음 불성을 찾자

대한국불교조계종 총무원장 성보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항상 하시는 일마다 복되소서. 사람들은 불변하는 자기 마음을 항상 지니고 있다 생각합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마음은 잠시도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물처럼 쉼 없이 흐르고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물 같이 흐르는 마음을 따라다니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이처럼 쉼 없이 변하는 번뇌하는 마음이 참 마음이 아닌 것을 알고, 중생들이 지닌 영원한 본성 즉 불성을 찾으라고 하셨습니다. 기해년 선정과 물러서지 않는 정진으로 새해를 열어 갑시다.

자정기의를 실천하자

대한불교법성종 종정 만원



자정기의를 실천하는 참 불자가 되자. 하지만 우리는 아무리 진실한 것이 있다 하더라도 그것을 우리가 제각기 지니고 있는 알음알이로 차별을 하기 마련이다. 사실 우리는 모든 것을 제멋대로 개념지어 그 개념에 사로잡혀 진실된 자기 자신을 망각하는 것이다. 우리 승가와 불자들 그리고 공직자들은 자기자신을 일깨우고 발견하는 자정기의(自淨其意)를 실천하는 참모습으로 돌아가자. 자정기의란 바로 원(願)을 성취시켜주는 행(行)의 구체적인 방법이며, 그것을 우리에게 알리기 위하여 부처님께서는 위대한 가르침을 남겼고 그것은 실로 설산(雪山)의 침묵과 장광설과 무정설법인 것이다.

Buddha's Detox

현대불교 신년특집



프롤로그

三毒을 Detox하라

노덕현 기자 noduc@hyunbul.com

디톡스는?

현대인들에게 유행처럼 인기를 끌고 있는 것 중의 하나가 '디톡스' (detox)다. 디톡스는 인체 유해 물질인 '독' (毒)을 해소하는 것을 일컫는 말로 흔히 유해물질이 몸 안으로 과다하게 들어오는 것을 막고 장이나 신장, 폐, 피부 등을 통한 노폐물의 배출을 촉진하여 몸을 건강하게 하는 것을 칭한다.

진짜 이것만 먹으면 몸에 좋을까?

우리 사회에서는 디톡스 열풍이 불고있다. '해독주스' 등 칼로리를 줄이며 다이어트 효과를 노린 디톡스 음료가 유행하고 있다. 서구사회에서 유행한 레몬 해독법을 시작으로 사과 디톡스, 파인애플 식초 활용, 커피 다이어트, 아보카도 · 깔라만시 해독, 생양파 생식 등 다양한 디톡스 방법이 소개됐다. '슈퍼푸드' 라 하여 다양한 영양소를 섭취가능한 음식을 통해 한 종류 음식으로 하는 디톡스도 유행했다. 여기에 물만 마시거나 단식을 하는 등의 방법도 알려졌다.

문제는 디톡스만 하면 건강을 지킬 수 있을 것처럼 인식됐다는 점이다. 일부 언론은 마치 이것만 하면 건강을 지킬 수 있을 것처럼 소개했다. 디톡스를 맹신하는 이들은 탈수 증상 등 부작용을 디톡스 효과로 착각하여 이를 홍보하기도 했다.

이런 와중에 디톡스에 따른 부작용을 호소하는 이들은 점점 늘어났다. 최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SNS에서 판매 중인 '파인애플 발효식초' 를 먹고 장 트러블과 월경 이상 등 부작용을 겪었다는 청원 글이 올라왔다. 해당 제품으로 인해 부작용을 겪은 사람은 이 식초를 먹고 부정출혈 발생에도 부작용인지조차 몰랐다고 토로했다.

상황이 심각해지자 정부가 디톡스에 대한 과장 광고 단속에 나섰다. 식약처는 최근 다이어트와 디톡스에 효과가 있다고 허위 과장 광고를 한 소위 '클렌즈 주스' 판매업체 97곳을 적발했다. 대부분 디톡스 효과를 부풀린 부분이 문제로 지적됐다.

이들 광고만 보면 디톡스의 효과는 다양하다. 먼저 장을 깨끗이 하는 효과가 있다고 하며, 혈관을 건강하게 해주고 피부미용에도 도움이 된다고 한다. 매력적이다. 이처럼 독을 해소하는 디톡스가 문제되는 것은 왜일까.

진짜 '독'은 '탐진치'다

우리 몸을 맑게 하는 디톡스는 바람직하다. 하지만 과도한 집착은 오히려 우리의 몸을 해친다.

정지천 동국대 한의학과 교수는 "몸에 좋다고 해도 과도하면 균형을 잃게 되고, 오히려 건강을 해치게 된다"고 설명했다. 정 교수는 "건강에 대한 집착마저도 끊을 필요가 있다. 평소에 살아온 삶을 유지하면서 조금씩 균형있는 생활습관으로 갖춰나가는 것이 중요하다"며 "불교에서는 이러한 과도한 집착에 대해 경계한다"고 말했다.

불교에서는 이러한 집착을 '탐진치' (貪瞋癡) 삼독(三毒)으로 표현한다. 진짜 독인 것이다. 탐을 내고 그칠 줄 모르는 욕심과 노여움 그리고 어리석음이야말로 우리의 마음과 몸을 해친다.

불교의 수행목표는 탐진치의 단절이다. 과도한 디톡스는 탐심(貪心)과 연결된다. 탐욕은 무언가를 갖고 싶어서 그것에 집착하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말하는 욕심 정도가 아니라 과도한 집착에 가까운 마음을 내는 걸 말한다. 재물이나 물건에 대한 탐욕이 대표적이고 명예와 이익을 탐하는 것도 해당한다. 식욕이나 색욕 등도 빠지지 않는다. 건강을 위해 과도하게 건강음식을 섭취한다면? 이 또한 건강을 해치는 일이 되는 것이다.

진에(瞋恚)는 화를 내는 것이다. 자기의 뜻대로 되지 않는다고 분노하는 것이 일반적인 유형이다. 이런 분노에는 단순한 화만 있는 게 아니라 남에 대한 시기와 질투까지 포함되어 있다. 화를 내는 것은 아주 간단한 일이지만 불교에서는 진에가 가장 다스리기 어려운 것으로 본다.

우치(愚癡)는 어리석음을 말한다. 세상의 이치를 이해하지 못하거나 자기 앞에서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 판단할 능력이나 눈이 없는 것을 말한다.

불교에서는 이 세 가지 독소가 없어지면 인생이 행복해진다고 한다. 큰 번뇌가 없으니 마음이 편안해지고 사는 게 가벼워진다. 탐진치를 줄이는 것이 진정한 디톡스가 아닐까?

새해, '삼독'을 디톡스하자

최근 탐진치 삼독은 새로운 분야까지 퍼지고 있다. 디지털 분야다. 특히 SNS 등에서 익명을 통한 폭언과 막행을 비롯해 잔혹 범죄가 증가하고 있다.

대검찰청 범죄동향 리포트에 따르면 살인, 강도, 방화, 성폭력 범죄를 집계한 '강력범죄' 는 2016년 3만 2919건에서 2017년 3만5954건으로 증가했으며, 2018년에는 1분기 7302건과 2분기 8868건을 더해 상반기에만 1만 6170건으로 집계됐다. 2017년 상반기 1만 5848건에 비해 증가한 수치다. 전체 범죄가 감소 추세인 것에 비해 강력범죄율이 대폭 늘고 있다. 청소년 강력범죄도 늘어 2007년 2.2%에서 2016년 4.4%로 해마다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이들 중 약 30%가 분노로 인한 우발적 범죄에 속한다. 순간적으로 욱하는 감정으로 강력범죄를 저지르는 것이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빅데이터에 따르면 분노조절 장애를 포함하는 '습관 및 충동장애' 로 진료를 받는 사람이 한 해 6000여 명에 달한다. 2013년 4934명, 2014년 2962명, 2015년 5390명, 2016년 5920명으로 4년 새 20%넘게 늘었다.

삼독을 제거하는 진정한 의미의 디톡스가 필요한 이유는 여기에 있다. 불교에서는 이런 삼독을 제거하는 길로 계정혜 삼학을 닦으라고 설한다. 계(戒)는 근본적인 어리석음으로 인해 저질러 왔던 몸과 마음의 잘못을 저지르지 않게 하는 수칙으로 삼학을 닦는 첫 관문이다. 음식뿐만 아니라 유해물질로 가득찬 환경을 바꾸고, 특히 마음 속의 스트레스를 불러일으키는 분노, 짜증 등을 다스리는 명상도 넓은 의미의 해독이라 할 수 있다.

삼독의 디톡스를 위해서는 새로운 생활 수칙(戒)이 필요하다. 새해를 맞아 우리 몸과 마음 속에 켜켜이 묵은 독을 빼기 위해 행동수칙을 정해 새롭게 하는 계기를 삼아보는건 어떨까.





貪食 줄이면 정신 맑아진다

Buddha's Food Detox



현대사회는 貪食사회

현대인들은 맛있는 음식에 열광한다. 열광은 집착까지 이어진다. 점심시간이면 스마트폰으로 검색을 하고 지역이나 음식 이름 뒤에 '맛집'을 붙는 곳을 찾아간다. TV를 켜면 '수요미식회'를 비롯해 '먹방'으로 일컬어 지는 맛집프로그램이 넘쳐난다. 이런 곳에서 검증된 식당에서 식사를 해야 직성이 풀린다.

전문가들은 맛에 집착하면 자연스럽게 편식을 하게 된다고 한다. 박송이 자연음식 전문가는 "자연에 있는 식재료는 우리 입맛에 맞지 않는 것도 있다. 맛에 집착하면 편식을 하거나 조미를 하게 되는 이유다. 영양소를 골고루 섭취하지 못하면서 영양 불균형이 오고 조미를 과하게 하면 과식 · 비만으로 이어질 위험도 있다"고 지적했다.

맛에 대한 집착은 '미각 중독'에까지 이른다. 대부분 '중독'이라 하면 담배나 술, 도박 같은 것을 생각하기 쉽다. 하지만 맵거나 짠 음식 등 특정한 맛에 집착하는 것에도 중독 증상이 있다. 미각중독은 우리 몸이 특정 음식을 먹고 기분이 좋았던 경험을 떠올려, 계속해서 그 맛에 집착하는 상태를 말한다.

전문가들은 된장 · 고추장 등 짠 음식이 발달해, 짜고 매운 음식에 중독되기 쉬우며, 케이크 · 빵 · 과자 등 단순당으로 이루어져서 단맛을 내는 탄수화물 음식도 미각중독을 일으키기 쉽다고 지적한다.



건강음식 집착증도 증가

최근에는 또 다른 의미의 탐식도 문제가 되고 있다. 바로 건강한 음식에 대한 집착이다. 건강한 음식은 몸에 좋지만 이 섭취에 병적으로 집착하면 저체중 · 영양 불균형 상태를 초래한다. 이를 뜻하는 병명이 바로 '오소렉시아 너보사(건강음식집착증, orthorexia nervosa)'다.

식이장애인 '오소렉시아 너보사'는 또 다른 식이장애인 거식증과 함께 현대인들을 위협하는 질병으로 자리 잡았다.

오소렉시아는 1997년 스티븐 브래트만이 도입한 개념으로 건강한 식습관에 대한 집착을 뜻하며, 음식의 질에 대한 강박 증세를 보인다. 서구사회에서는 웰빙을 추구하는 유명인들의 모습이 언론에 자주 노출되며 이런 부분을 따라 하는 사람들이 많아져 자연스럽게 오소렉시아가 증가하고 있다.

이들이 피하는 음식은 다양하지만, 대체적으로 육류, 방부제나 첨가물 함유 식품, 익힌 음식, 가공식품, 도정된 곡류, 정제설탕, GMO, 유기농이 아닌 식품 등이다. 적은 음식 섭취 등 건강한 식이습관 추구가 왜곡돼 오히려 육체적 · 정신적 · 사회적 건강을 해치는 경우가 발생한다.



불교는 중도의 식습관 추구

불교에서는 음식으로 인해 발생하는 욕망을 경계한다. 그런 의미에서 불교의 푸드 디톡스는 음식으로 발생하는 마음의 장애를 제거하는 과정이다.

초기불교 〈마하시하나다경〉에는 음식이 야기하는 쾌락으로부터 정신이 초연해져야 함을 강조한다. 여기서는 부처가 음식의 맛과 양에 집착하지 않기에 명상수행에 매진, 깨달음을 성취할 수 있다고 설한다.

이런 연관성은 대승불교 문헌에도 지속적으로 등장한다. 천태종 문헌인 〈석선바라밀차제법문〉에는 바르게 수행하기 위해서는 음식의 양을 조절할 것을 강조한다.

'우리가 음식을 너무 과도하게 먹으면 신체 에너지 흐름이 막혀 몸이 갑갑하게 느끼고, 신체 에너지가 막히면 마음이 닫히고 수행을 해도 마음이 불안하게 된다'

음식에 대한 균형 잡힌 태도는 적당량의 식사가 사선정 성취와 관련돼 있다는 초기불교의 견해와도 같다.

〈불교음식학〉을 펴낸 공만식 박사는 "부처님은 음식 섭취에 있어 중도적 실천행을 이뤘다. 음식을 극단적으로 줄이는 고행을 통해 문제점을 경험한 부처님은 양극단의 방식이 청정수행에 도움이 되지 않음을 설했다. 종교적 실천을 위한 하나의 수단으로 소욕(少欲)과 절제된 음식 섭취가 붓다의 음식관의 주요한 내용을 이룬다"고 말했다.

불교계 푸드 디톡스 가능한 곳은?

최근에는 서울 진관사, 법룡사 등 각 사찰마다 사찰음식을 선보이고 있다. 일반인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곳은 한국불교문화사업단이 운영하는 인사동의 사찰음식문화체험관이다. 이곳에서는 상시프로그램으로 스님과의 차담과, 전통다식 만들기, 계절음식 만들기 등을 진행하고 있다. 중요한 점은 스님들에게 단순한 음식조리법뿐만이 아니라 그 음식에 담긴 사상과 정신을 배울 수 있다는 점이다. 불교에서 중요시 여기는 음식관과 생활 속 실천방안 등도 함께 배워 실천하는 기회를 얻을 수 있다. (02)733-4650

노덕현 기자 noduc@hyunbul.com



사찰음식 명장 선재 스님이 전하는 생활수칙



생명 존중 철학을 바탕으로 한 음식을 먹을 때 염두에 두어야 할 것이 두 가지 있습니다. 첫째 무엇을 먹을 것인가와 어떻게 먹을 것인가입니다.

첫 번째, '무엇을 먹을 것인가'는 좋은 음식을 먹는 것입니다. 맛과 영양이 좋은 것을 먹는다는 의미가 아니라 좋은 음식을 먹는 것은 제때에 먹는다는 의미로 '제철 음식'과 통합니다.

제철 음식은 자연의 리듬에 맞춰 거둔 재료입니다. 신선한 재료로 가공하지 않은 자연 그대로의 음식을 조화롭게 잘 먹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는 행복을 위해 디톡스를 합니다. 행복의 조건은 몸과 함께 마음도 건강해야 합니다. 최근 성장촉진제, 유전자 조작을 통한 식재료가 많습니다. 사람들의 맛추구, 대량소비의 풍토 속에 결국 사람들에게도 해로운 식재료가 양산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어떻게 먹을 것인가'입니다. 불교에서는 오후불식을 얘기하는데, 이는 몸의 리듬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아침은 뇌가 활동하는 시간이니 짜고 맵고 기름진 음식을 멀리하고, 위장이 활동하는 시간에는 영양분을 보충해줘야 합니다.

내 몸의 상태를 살펴 한 번을 먹더라도 생명과 환경을 함께 고려해 적절한 양을 섭취해야 합니다. 무턱대고 적게 먹고 안 먹는 건 오히려 해롭습니다. 나이와 건강 상태에 따라, 재료의 특성과 조리 방법에 따라 먹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건강과 관련된 질병은 대부분 식습관에서 비롯된 것이 많습니다. 부처님이 드신 유미죽처럼 음식을 통해 몸의 상태를 살피고 삶의 지혜로움에 이르도록 노력해 갑시다.

사진제공=한국불교문화사업단

대한불교 총화종

새해새날 자비광명 온 누리에

종 정 전남정

부종정 이남은 총무원장 김혜각

종회의장 백만우 교육원장 김법만 호계원장 김월강
감찰원장 김혜암 포교원장 김기태 문화원장 이지수 선원장 신본원

사회부장 성조향 호법부장 박지광 재무부장 빈성혜 교무부장 고강민 조직부장 박연아
문화부장 양혜원 조사부장 김지현 교육부장 노법운 포교부장 김법능 포교지도부장 백청암

교육국장 이수연 호암국장 강보성 재무국장 최수경

서울북종무원장	이혜인	서울강북종무원장	이혜오	경기동,남종무원장	김법만
경기서종무원장	김혜암	대전종무원장	김해성	충남종무원장	김기태
경북종무원장	신본원	강원1교구종무원장	정혜산	강원2교구종무원장	허승효
경남동종무원장	이광덕	경남서종무원장	김월광	전남,광주종무원장	김현산
제주종무원장	김청해				

유발승 회장 이지수 유발승 총무 옥지광

외 임원 및 종도 일동

신 년 사



대한불교총화종
총무원장 **혜각**

2019년 기해년!
황금돼지가 찾아 왔습니다.

기해년 새해에도 부처님의 가피가 더욱 빛나도록
불자님 모두 함께 불국토를 만듭시다.
힘들고 어려웠던 무술년 한해(年)을 마무리
하고 희망찬 미래를 위하여 더욱더 불법홍포에
최선의 노력을 함께하여 더불어 함께하는
세상을 만들어 가도록 부천님전에 발원합시다.

총무원 : 서울시 종로구 창신동 93번지 2층
전화 02)743-0066, 8338 / 팩스 02)743-8448
www.chonghwajong.or



Buddha's Digital Detox

'폰' '넷' 끄달림 끄는 순간 '해방'

스마트폰에 종속된 인생

2018년 지구 마지막 날의 모습을 표현한 사진이 화제가 됐다. 거대한 운석이 지구를 향해 오는 것을 수많은 사람들이 스마트폰의 카메라로 찍고 있는 것을 표현한 합성사진이었다.

"인생은 모니터 속에서 이뤄질 수 없다. 하루 한 시간만이라도 휴대폰과 컴퓨터를 끄고 주위 사람의 눈을 보며 대화하라."

에릭 슈미트 前구글 회장의 말은 그만큼 우리 사회가 디지털 미디어, 특히 스마트폰과 PC에 종속되어 있음을 단적으로 드러낸다.

우리 주변을 둘러보자. 사람들이 모여 있는 장소에서 가장 흔히 볼 수 있는 모습은 무엇일까. 아마 고개를 푹 숙이고 마치 빠져들 듯이 스마트폰을 보고 있는 이들이 아닐까.

리서치 기업 엠브레인이 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의 88.8%가 현대사회에서는 디지털 기기가 생활 전반을 지배하고 있다고 답했으며, 84.7%가 디지털 기기가 없으면 매우 불편할 것 같다고 답했다. 특히 스마트폰 의존도가 높아 응답자의 55.7%는 다른 사람들과 있을 때도 스마트폰을 쓴다고 답했다. 스마트폰 의존도가 높다보니 없을 때의 불안감도 컸다. 응답자의 79.6%가 집이나 직장에 스마트폰을 두고 나오면 불안감을 느낀다고 응답했다. 이른바 디지털 중독 현상이다.

스몸비 · 디지털 치매 등 발생

한국정보화진흥원이 2016년 25000여 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디지털 이용현황을 보면 17.8%인 7500여 명이 디지털 중독 위험군으로 조사됐다. 특히 청소년의 30.6%가 위험군으로 조사됐다. 부작용이 우려되는 디지털 콘텐츠로는 게임, 메신저, 웹서핑 등의 순으로 꼽혔다. 2017년에는 위험군이 18.6%로 증가했다.

중독 위험군의 경우 정서적으로 외로움(36.4%)을 경험한다고 했으며, 이 밖에 불안(28.1%), 우울(25.9%), 분노(24.2%) 등도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독 위험군의 성격 또한 충동성(46.7%)과 예민함(36.8%) 등으로 나타났다.

대부분이 스트레스 해소를 위해 디지털 미디어를 사용하지만 오히려 이에 종속되면 불안과 우울, 충동 등을 느끼는 것이다.

이런 상황 속에서 디지털 중독에 의한 사회적 악영향도 나오고 있다. 이른바 '스몸비' '디지털 단기치매' 등이다. 스몸비란 스마트폰과 좀비가 합쳐진 단어로 스마트폰을 보며 좀비처럼 걸어다니는 사람들을 말한다.

교통안전공단의 조사에 따르면 보행 중 스마트폰 사용으로 인한 교통사고 발생률은 지난 2011년 624건에서 2016년 1360건으로 두 배 이상 증가했다. 2016년 교통사고로 응급실을 찾은 전국의 보행자 4만 1000명 중 6100명 이상이 사고 당시에 휴대전화를 사용하고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불교선 감각적 쾌락 지양

불교에서는 디지털 중독을 어떻게 바라볼까. 〈쌍윳따니까야〉에는 중독 원인에 대한 부처님의 가르침이 나온다.

'그에게 괴로운 느낌과 접촉하여 분노가 생겨난다. 그는 괴로운 느낌에 대한 분노를 느끼며 괴로운 느낌에 대한 분노의 경향을 잠재시킨다. 또 즐거운 느낌과 접촉하여 감각적 쾌락의 즐거움에서 환락을 찾는다. 수행승들이여, 배우지 못한 사람은 감각적 쾌락 이외에 괴로운 느낌으로부터 벗어나는 길을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불교에서는 중독의 실상은 고통(苦)이며, 그 고통을 나의 것이라 여기는 데서 오는 괴로움이라고 본다. 중독의 원인을 집착과 갈애에서 찾고, 일시적으로 고통을 더는 감각적 쾌락도 언젠가 변하여 없어지기에 즐거운 느낌, 괴로운 느낌의 중도에서 평정심을 유지할 것을 주문한다.

〈디가니까야〉에서 부처님은 "수행승들이여 느낌의 생성과 소멸과 유혹과 위험과 여읨을 있는 그대로 알아서 여래는 집착없이 해탈한다"고 했다.

불교명상, 디지털 중독 해법 꼽혀

그렇다면 디지털 중독을 해소할 방법은 무엇이 있을까. 전문가들은 디지털 미디어를 사용할 수밖에 없는 현대사회에서 자기조절 능력을 회복하는 것이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함윤서 HB뇌과학연구소장은 "한국정보화진흥원이 실시한 스마트폰 과의존 통합척도를 보면 중독 요인 중 첫 번째가 자기조절 실패"라며 "결국 스마트폰 등 디지털 미디어 활용에서 적절한 사용을 스스로 결정할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한 불교계 내 해답이 바로 불교명상이다. HB뇌과학연구소가 2018년 연등회 참석자 중 일반시민 3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설문 참여자들은 디지털 중독 치료방법에 대한 질문에서 문화활동과 명상의 순으로 예방 및 치료적 접근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함윤서 소장은 "디지털 중독 치료는 자기 조절실패에 따른 영향을 회복하는 것이 중요하다. 명상 수행은 뇌의 작업 기억과 주의집중 회복에 중요한 역할을 하며 자기조절 기능 회복에도 큰 역할을 할 것"이라며 "이미 국내연구결과에도 마음챙김 명상을 통해 스마트폰 사용 감소를 이끌었음이 나타났다"고 밝혔다.

금강선원이 가천의과대학과 2015년 7월 금강선원 명상 프로그램 참가학생 5명을 대상으로 3개월간 연구한 결과 집중력을 포함 고위 뇌기능을 담당하는 전전두엽이 활성화됨이 입증됐다.

현재 불교계에서는 2018년 11월 불교상담개발원이 주축이 돼 불교스마트쉼운동본부를 출범, 디지털 디톡스를 진행하고 있지만 아직 저변 확대가 되지는 않은 상황이다. 불교스마트쉼문화운동본부는 향후 한국명상지도자협회 등과 협력하여 불교 청소년 스마트쉼 명상 등으로 스마트쉼 운동을 전개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노덕현 기자 noduc@hyunbul.com

불교스마트쉼문화운동본부장 가섭 스님이 전하는 생활 수칙

디지털 디톡스로 쉼있는 일상이 되자

2016년 통계에 따르면 우리나라 스마트폰 보급률은 세계1위로 전체 인구수에 육박하는 무려 4520만대입니다. 생활에서 필수불가결한 디지털 미디어지만 여기에 종속되서는 안되겠지요? 새해 우리 불자들부터 조금씩 삶을 바꿔갑시다.



하나, 우리는 꼭 필요한 경우에만 스마트폰을 사용합시다.

스마트폰 사용일지를 작성하며, 사용량을 확인합시다. 일지를 쓰게 되면 디지털 미디어를 왜 쓰게 됐는지를 점검하게 됩니다. 또 어플은 꼭 필요한 것만 다운로드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됩니다.

둘, 우리는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시간과 장소를 분명히 해야 합니다.

사찰 법회에서도 스마트폰을 쓰는 분들이 있습니다. 수업 · 운전 중에는 사용을 금지하고 회의 중에는 절제하는 것이 디톡스의 시작입니다. 물론 보행이나 차량 운행 중에는 사용을 자제해야 겠지요.

셋, 우리는 스마트폰에서 고개를 돌려 소중한 사람을 먼저 생각합시다.

하루 중 잠깐이라도 스마트폰을 내려놓고 사랑하는 사람들과 소중한 시간을 보냅시다. 아이에게 스마트폰보다는 엄마, 아빠의 사랑을 표현합시다. 우리가 디지털 미디어를 쓰는 것은 우리의 삶을 행복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스마트폰을 건강하게 사용하는 우리 가정만의 규칙을 정하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넷, 우리는 스마트폰을 내려놓고 잠시 쉬는 가치를 존중합시다.

메시지 답장 시 한번 더 생각하고, 늦어지는 답장은 천천히 기다립시다. 빨리 빨리 하는 마음의 재촉에서 벗어나 잠시 여유를 가져봅시다. 여유를 잃게 되면 본말이 전도됩니다. 이와 함께 다양한 야외 활동에 적극 참여하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불교계 디지털 디톡스 가능한 곳은?

디지털 미디어를 쓰지 않는 산사에서 디지털 디톡스가 가능하다. 산사에는 대표적으로 TV와 컴퓨터가 없다. 사찰마다 차이는 있지만 수행형 템플스테이에서는 입소 때 스마트폰을 걷기도 한다.

이밖에 불교명상을 하는 곳에서는 체계적인 디지털 중독을 막기 위한 교육을 받을 수 있다. 금강선원은 청소년 10분 집중명상을 통해 청소년들의 게임과 인터넷 중독 증상을 치유하고 있다. 사단법인 자비명상 또한 안성 굴암사 등에서 디지털 디톡스 캠프를 열고 있다.

보다 면밀한 상담을 원하는 이는 서울 안암동에 위치한 불교상담개발원에 연락을 넣어도 좋다. 불교스마트쉼문화운동본부를 맡고 있는 상담개발원은 산하 자비의전화를 통한 상담과 진단, 중독 증상 완화를 위한 불교계 명상 프로그램 진행 사찰 및 선원 안내 등을 맡고 있다. 학부모를 대상으로 한 디지털 과의존 예방교육을 비롯해 예방교육 강사 양성 과정 등을 운영하고 있다.
(02)737-1114



도서출판 문젠 은 농선 대원 선사님의 뜻에 의해 설립되었습니다. 대원 선사님은 모든 중생이 구제받을 때까지 정법만을 깨닫기를, 정법만을 말하기를, 정법만을 가르치기를 서원으로 세우셨습니다. 도서출판 문젠은 대원 선사님의 뜻에 따라 정법을 바르고 넓게 유포시키고자 합니다. 그래서 선사님의 지도 하에 선사님이 역저하신 불교 경전, 선문들과 저술서를 출판하고 있습니다. 불법을 공부하는 이들, 더욱이 최상승선을 공부하는 이들에게 도움이 되는 책들입니다.



전국 구매처

국제 정혁선원
경기도 포천시 내촌면 소리개길 86-178
031-534-3373

청도 정혁선원
경북 청도군 매전면 동산리 산 50번지
010-4543-2460

부산 정혁선원
부산시 동래구 아시아드대로 114번길 10 대륙코리아나 212호
051-503-6460

포천 정혁선원
경기도 포천시 내촌면 소리개길 86-123
031-531-2433

광주 정혁선원
광주광역시 광산구 삼도광암길 34
062-944-4088

해남 정혁선원
전남 해남군 화산면 송계길 132-98 중정마을
010-8938-2438

도서출판 문젠 [저서]

일반저서	마음대로 앉아 죽고 서서 죽고 선을 묻는 그대에게 1,2 바른 불자가 됩시다 누구나 궁금한 33가지 실증설 108진참회문 불조정맥 정법의 원류 완전한 우리말 불공예식법 달다
시집 법문집	영원한 현실 세월을 북채로 세상을 북삼아 앞뜰에 국화꽃 곱고 북산에 첫눈 희다 달마의 일할도 허락지 않는다 화두
3개 국어판	실증설 - 한 영 중 베 몽 불조정맥 - 한 영 중 화두 - 한 영 중 108진참회문 - 한 영 중 누구나 궁금한 33가지 - 한 영 중 달마의 일할도 허락지 않는다 - 한 영 중 법성게 - 한 영 중

도서출판 문젠 [역서]

경전	유마경 주머니 속의 심경 천부경 금강경 환단고기 반야심경 화엄경 1~30권 (총 81권 중)
공안집	선문염송 30권 전등록 30권 무문관 벽암록
어록	법성게 간당론 기우목동가 초발심자경문 하택신회대사 현종기 법융선사심명 신심명 증도가 선가귀감 / 도가귀감 / 유가귀감

인터넷 서점에서도 구매하실 수 있으며, 구글 플레이북에서 PDF와 E-pub 책을 판매하고 있습니다.

心 ‥ 小 ‥ 人 ‥ 一 ‥ ●

마음에도 비움이 필요하다

Buddha's Mind Detox

마음에도 디톡스가 필요하다

몸에도 디톡스가 필요하듯이 마음에도 디톡스가 필요하다. 일상의 속도가 빨라지고 한번에 많은 일을 처리해야 하며, 불량한 식습관과 운동부족으로 현대인은 몸이 견딜 수 있는 것보다 고도의 스트레스 상황에 노출되는 경우가 많다. 사람들은 다이어트나 건강에 대한 노력은 3일을 하더라도 마치 죽을 것처럼 열심히 한다. 하지만 마음의 디톡스는 어떻게 하는지조차 모르는 이들이 많다. 나의 자아는 누군가를 향해, 혹은 나 자신을 향해 마음 속 독소를 배출한다. 잠시 시원하지만 듣는 이들은 그 독을 그대로 가져간다. 나 자신을 향한 독소는 분노가 되어 다시 증폭된다.

디톡스의 과정은 단순하다. 첫 번째 과정은 버리기다. 생활 습관 속에 남아있는 집착을 버리듯 마음 속의 망상을 버리는 것이 시작이다. 좋은 것으로 채우기 보다 마음의 탐심을 버려야 한다. 집착의 독소는 마음에 쌓여 있으면 부정적인 마음으로 변한다. 마음의 문을 걸어 잠그고 가시를 쏘게 된다.

미니멀리즘, 마음 디톡스의 방편

최근 하나의 사회적 흐름이 있다. 바로 미니멀리즘이다. 최소한의 물건만 갖추고 단순하고 간결하게 살아가는 생활 양식이다. 주변을 정리하는 것은 마음 디톡스에 도움이 된다.

불교에서 가장 대표적인 미니멀리스트(minimalist)는 바로 부처님이었다. 부처님은 세벌의 옷과 한 벌의 발우면 충분했다. 또한 간결한 언행으로 직접 삶 속의 실천을 통해 대중들의 모범이 되었다. 성철 스님은 검소한 삶으로 존경받았다. 손수 양말과 내복을 기워 입고 30년 넘게 장삼 한 벌만 썼다. 성철 스님은 정진기간에는 말 또한 삿된 개념이 발동된다 하여 하지 않았다.

미니멀리즘에 관한 저서 〈소중한 것은 모두 일상 속에 있다〉를 펴낸 야마시타 히데코 작가는 "머릿속에 가득찬 사고와 마음에 품은 감정도 놓아주어야 한다. 사방을 꽉꽉 채운 불필요한 생각을 없애기만 해도 우리의 사고와 감정은 자연스럽게 흘러갈 것"이라고 강조한다.

이는 불교의 가르침과도 맞닿아 있다. 법정 스님은 "맑은 가난은 마음의 평안을 가져다주고 올바른 정신을 지니게 한다"고 했다.

새해 계획도 디톡스하자

새해를 맞아 거창한 계획을 세우는 이들이 많다. 새해 무엇을 해야겠다는 계획보다 나를 어떻게 하겠다는 계획을 세우는 것은 어떨까.

최근 계획을 세울 때 마인드맵, 만다라트 기법 등을 활용하는 것을 들은 바 있을 것이다. 불교의 '만다라' 와 '아트' 의 결합인 만다라트 기법은 큰 목표를 세우고, 거미줄 등 지도 모양으로 퍼져나가도록 끌어내어 주의해야 할 점 등을 구조화 하는 것이다.

마음에 대한 계획도 그렇다. 행복이라는 마음에 대한 목표를 세우면 생활 속에서 작은 마음가짐을 정하고 상황마다 작은 계획을 세우는 것이 좋다. 마음에 대한 작은 계획은 어떤 것이 있을까. 먼저 평정심을 유지하기가 있을 것이다. 고요한 호흡을 습관화하기 등이 그 시작이 될 것이다. 당연하다고 생각해왔던 것에 집중하면 그 순간에 머물 수 있고 마음을 놓을 수 있다.

마음에 짐을 더는 것은 고요한 호흡을 습관화 하는데서 시작한다. 반드시 장소를 만들어 앉아야 선이고 명상인 것은 아니다. 일상생활에서 잠깐씩 짬을 내어 호흡을 가다듬어도 충분한 효과를 볼 수 있다. 일체의 상념과 고민을 떨치고 지금 하는 일에 집중해보자.

노덕현 기자 noduc@hyunbul.com

봄치유센터장 선업 스님이 전하는 생활 수칙

요즘 마음 디톡스 열풍이다. 마음 디톡스는 독소를 없앤다는 '디톡스(Detox)' 를 마음에 적용한 것으로 매일 해우소를 들러 근심을 풀고 나면 만사가 여유롭고 기분이 상쾌해지는 것처럼 맺힌 것은 풀고 살자는 것이다. 새해를 맞아 우리 몸과 마음에 쌓인 독소를 제거하고 맑고 건강한 본래의 심신을 회복해보자.



마음 디톡스와 관련하여 선종의 방하착(放下着) 이야기는 유명하다.

중국 당나라 때 어느 날 엄양 스님이 조주 선사를 친견한다.

이 자리에서 엄양 스님은 대뜸 '한 물건도 갖고 오지 않았을 때는 어찌합니까?' 라고 물었다.

그러자 조주선사는 '방하착(放下着, 놓아라)이라고 답한다.

여기에서 방하착은 마음속에 있는 번뇌 갈등 집착 원망 등을 홀가분하게 벗어 던지라는 메시지이다. 즉 마음 디톡스를 하라는 것이다.

마음 디톡스는 먼저 꽉 쥐고 있던 것을 놓아 텅텅 비우는 것이다.

1 우·강·불 빼기

새해에는 현대인을 괴롭히는 우울, 강박, 불안에서 모두 벗어나기를 기원한다.

우울, 강박, 불안을 디톡스하는 방법은 간단하다. 먼저 손바닥에 부정적인 마음현상을 올려놓고, 다음으로 주먹을 쥐면서 그것을 꾹 눌러 녹이는 것이다. 발견할 때마다 한 번씩 해주면 된다.

우울 강박 등은 눈에 보이지 않는 심리적 현상이다. 하지만 이런 심리현상이 눈에 보인다고 생각해보자.

손바닥 위에 그 감정이 있다고 타자화 하는 순간, 내 안의 심리현상에서 잠시나마 벗어날 수 있다.

잠깐 동안이라도 벗어나면 한결 가벼워진 마음, 그리고 자신을 발견 할 수 있을 것이다.

2 탐진치 놓기

우강불을 비롯한 부정적인 심리현상들의 뿌리는 탐진치이다. 새해에는 욕심, 화냄, 그리고 고장난 사고에서 벗어났으면 한다. 탐진치 디톡스의 방법도 간단하다. 탐욕을 발견하면 외친다.

'탐욕은 탐욕일 뿐, 내가 아니다,' 화가 나면 외친다. '화는 火일 뿐 내가 아니다.' 고착된 사고에게 이렇게 외친다. '생각은 생각일 뿐 내가 아니다.'

사실 생각은 수시로 일어난다. 하지만 때론 우리들은 그 생각에 사로잡혀 본래의 마음을 잃곤 한다. 탐진치가 삼독으로 불리는 것도 이러한 것이 우리 자신을 쉽게 잠식하기 때문이다.

화가 났을 때 찬찬히 화난 자신을 돌아보기란 쉽지 않다. 그럴 때 '화' 라는 그 자체를 따로 떼어내 생각하는 습관을 길러보자.

3 행복 누리기

다음으로 마음 디톡스는 텅빔으로 인한 충만함을 확인하고 누리는 것이다.

새해에는 비워서 드러난 공간에 가득한 행복을 누리기를 기원한다. 좋지 않은 것들을 비우면 마음속에 있던 좋은 것들이 드러난다. 행복은 그렇게 모습을 드러낸다. 또한 행복은 쓰면 쓸수록 그 만큼 더 보태지는 속성이 있다. 그냥 쓰자. 새해에는 행복을 마구 써 보자.

행복 또한 따로 떼어내 보지 않으면 그 크기를 알 수 없다. 하지만 밖으로 꺼내어 본다면 그때의 행복감이 어마어마하게 큼을 다시 느낄 수 있다. 주변 사람들과 그 큰 행복을 나누면 점점 증폭되는 것을 느낄 수 있다. 바로 행복누리기다.

4 공덕 나누기

마지막으로 마음 디톡스는 충만한 공덕을 나누는 것이다.

새해에는 더해지고 곱해진 행복보따리를 풀어 대중과 함께하기를 기원한다.

디톡스는 몸과 마음의 근심 걱정을 풀어 빛나는 자신을 확인하는 바른 도를 닦는 과정이다.

이 과정은 사고의 전환을 가져와 걸림 없는 삶을 살게 한다. 바람처럼 그물에 걸리지 않는 지혜로 대중들의 삶을 이롭게 한다. 팔풍에 걸린 대중들을 돕는 이로 살게 되는 것이다.

새로운 해에는 마음 디톡스를 통해 현실의 문제에 도움이 되지 않는 행동 및 정서적 규칙을 몽땅 비워 '해독' 하고 행복의 디톡스와 나눔의 디톡스로 살기를 기원한다.

동방불교대학 2019학년도 전기 신입생 모집 공고

한국불교의 미래를 리드하는 동방불교대학이
새로운 인재를 기다립니다.

교육비 안내
- 전형료 : 5만원
- 입학금 : 20만원
- 등록금 : 학기당 100만원

모집요강

1. 본교는 본 종단의 종법(교육법 제19조/22조)이 정한 기본교육기관으로서 출가득도자의 의무교육기관이다.
2. 본 종단의 합동득도수계산림을 통해 사미(니)계를 수지한 자 및 정사(재가승)는 본교에 입학해 소정의 교육과정을 이수해야 승적취적 및 법계 등 각종 자격고시 응시자격을 부여받는다.
3. 본 종단으로 전종하여 입적할 승려는 본교에 입학해 소정의 교육과정을 이수해야한다.
4. 범패학과 신입생은 매년 1학년 입학을 원칙으로 한다. (편입학불가)
5. 본교가 개설하고 있는 모든 학과 공히 출가자(사미·사미니 포함)와 재가자 모두 응시 가능하다.
6. 본교는 한국불교태고종이 설립한 종도양성 의무교육기관으로서 정부당국의 인가여부와 무관하다.

모집인원 및 편제 [접수인원 미달 시 폐강될 수 있습니다]

학 과	모집인원	편 제	비 고
불교학과	00명	2년제	정규반
범패학과	00명	2년제	정규반

전형일정 [입학전형의 서류심사는 학사관리를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됩니다]

구 분	날 짜	장 소
원서교부 및 접수	2018. 12. 17(월) ~ 2019. 02. 08(금)	동방불교대학 교학처 www.dongbang.org
서류심사 결과통지	2019. 02. 14(목)	개별통지 www.dongbang.org
합격자 발표	2019. 02. 20(수)	개별통지 www.dongbang.org

지원자격 : 본교 지원자는 공히 다음 사항 중 **한 가지 이상**의 자격을 갖춰야 한다.

1. 본 종단의 합동득도수계산림을 통해 사미(니)계를 수지한 자 및 정사(재가승)로서 교육이수의무 대상자
2. 본 종단으로 전종하여 입적한 승려로서 교육이수의무 대상자
3. 고등학교 졸업 또는 동등이상의 학력소지자로서 불교교학·불교의식을 수학하고자 하는 자
4. 본 종단 간부의 추천을 받은 자로서 불교교학·불교의식을 수학하고자 하는 자

특 전 1) 동방불교대학 졸업시 선덕 법계 품수 2) 동방불교대학 졸업생이 사교,대교(2년) 졸업시 중덕 법계 품수

접수서류 및 접수방법

학 과	제출서류	제출방법
공 통	① 입학원서(소정서식) 1부 ② 최종학교 졸업(예정)증명서 1부 ③ 기본증명서 1부 ④ 수계증 사본 1부(해당자) ⑤ 승적증명서 1부(해당자) ⑥ 종단간부 추천서 1부(해당자) ⑦ 사진: 반명함판 3매, 명함판 2매 (득도수계자는 가사장삼 수한 모습)	• 동방불교대학 교학처 직접 방문 또는 우편 발송 접수 • 접수처 동방불교대학 교학처 Tel 02) 745-2030 교학과장 010-7236-0900

동방불교대학 Dongbang Buddhist College

한국불교태고종 총무원
동방불교대학 교학처
서울시 종로구 율곡로 1길31 (사간동112) | 우 03062

www.dongbang.org
Tel 02) 745-2030
010-7236-0900
Fax 02) 739-3470

정이 많은 다정한 부처님 마음
〈情〉



新 불교사자성어

① 다정불심(多情佛心)

정(情)이 많은 다정한 부처님 마음이란 어떤 마음일까? 우리는 흔히 어떤 사람을 가리켜 "저 사람은 정이 많다" 혹은 "저 남자는 다정다감해"라고 한다. 또 우리나라 사람들을 가리켜서 정(情)이 많은 민족이라고도 한다.

다정(多情)하다는 것은 주거 문화적으로 공동체문화의 영향이 크다고 할 수 있다. 과거 우리나라의 주거문화는 부모가 결혼한 자녀와 함께 사는 '확대가족' '대가족문화' 였다. 한 집에서 자식, 손자와 함께 사는 3세대 공동문화였다. 농경사회의 특성상 인원이 많아야 했고 가족이 많으면 많을수록 유리했기 때문이었다. 산업사회 이후 핵가족사회가 되면서 지금은 칸칸이 담을 쌓고 문을 닫고 사는 아파트 문화, 1인 가구가 늘어나고 있는 초핵가족시대이다.

산업화는 대가족문화를 해체시키고 핵가족문화를 탄생시켰다. 농경사회에서 인간생활의 기초 단위였던 대가족제도는 산업화의 추세에 따라 서서히 무너지기 시작했다. 산업화의 새로운 변화는 가치관에도 큰 혼란을 가져다주었는데, 그것이 경쟁 · 개인주의 · 이기주의 소외 · 낙오 · 고독 · 외로움 · 그리움 등이다.

고독 · 외로움은 현대 산업사회의 병이다. 사람에 따라서는 불치병이 되기도 한다. 의학이 총알처럼 발달하고 신약이 폭포처럼 쏟아져 나오고 있지만, 아직 여기에 대한 특효약은 없는 것 같다.

'다정(多情)' 은 곧 부처님의 대자대비, 무연자비(無緣慈悲), 애민(哀愍)중생이다. 자비심은 개인주의 · 이기주의를 해체시키고, 이웃과 공동체를 이루고 고독과 외로움을 와해시킨다.

'다정불심' 은 부처님의 여러 일화에서 볼 수 있는데 특히 부처님 10대 제자 중 한 분인 천안제일 아니룻다(아나율) 존자와 부처님과의 일화를 통해 다정불심의 전형을 볼 수 있다고 생각한다.

어느 날, 아니룻다 존자가 부처님께서 설법하시는 도중에 깜빡 졸아서 부처님께 호된 질책을 받았다. 이에 크게 각성한 아누룻다 존자는 잠을 자지 않고 용맹정진하였다. 부처님께서는 제자의 건강을 걱정하시며, 잠을 자며 수행할 것을 권한다. 하지만 아누룻다 존자는 계속 밤잠을 자지 않고 수행했다. 아누룻다 존자는 결국 눈이 멀었지만 마음의 눈이 열렸다. 그 후 천안제일(天眼第一)로 칭송받았다.

지금도 그렇지만 특히 부처님 당시에는 수행자들 스스로 탁발이며 의복을 수선하는 등 모든 일을 손수 해야 했다. 하루는 눈이 멀어 앞을 보지 못했던 아니룻다 존자가 바느질을 하다가 "누가 내 옷을 바느질해 주는 공덕을 쌓아 주겠는가?"라고 말하여 도움을 청했다. 그때 그 소리를 듣자마자 누군가 바느질을 해 주었는데 그분이 부처님임을 알고 깜짝 놀랐다. 아니룻다 존자가 황송해 하며 "양족존이신 부처님께서 지으실 공덕이 더 있습니까?"라고 여쭈었다. 부처님께서 "세상에서 나보다 더 복 짓는 데 욕심이 많은 사람은 없을 것"이라고 대답하셨다.

또 불교에는 자비, 다정(多情)의 화신인 관세음보살님이 있다. 관음보살은 자그마치 천 개의 손과 천 개의 눈(천수천안)을 갖고 있다. 비록 표현은 천 개라고 했지만 천만 억 개로 변신한다. 관음보살님은 빅데이터 같은 용량으로 모든 중생들의 괴로움, 고독, 슬픔 등을 일견(一見)에 포착한다. 게다가 지옥중생을 모두 건지기 전에는 절대 성불하지 않겠다고 지옥문 앞에서 버티고 있는 1인 시위자 지장보살님도 있다.

태어나면서 천성적으로 다정다감한 사람이 있고, 좀 쌀쌀한 사람, 차가운 사람이 있다. 차가운 사람보다 다정다감한 사람이 행복하다. 친구도 많고 아는 사람도 많고 좋은 인연을 맺으며 살아간다. 주변사람들이 대부분 우군이 되고 힘이 되어주니 얼마나 행복한 삶인가? 삭막한 오늘의 한국사회, 이기주의로 너나할 것 없이 파편화되고, 상처투성이가 되기 십상이다. 양보와 배려는 곧 인격이고 인간사회를 맑고 따뜻하게 만든다. 그것이 곧 다정불심(多情佛心)이고, 대자대비이다.

윤창화 민족사 대표

화두 공부 지남 되길 바라며…



격절록 강설

① 격절록(擊節錄)을 연재하며

〈격절록(擊節錄)〉은 원오(圜悟) 극근(克勤) 선사의 공안집(公案集)으로 설두(雪竇) 중현(重顯)의 백칙(百則) 염고(拈古)에 착어(着語)와 평창(評唱)을 한 것이다. 원 제목은 〈불과격절록(佛果擊節錄)〉이며, 〈불과원오격절록(佛果圜悟擊節錄)〉이라고도 불린다. 앞으로 연재할 본서는 〈만신속장경(卍新續藏經)〉 67책冊에 수록된 것으로 중화전자불전협회(中華電子佛典協會)에서 2014년도에 전산화한 것이다.

본서는 종문 제 1서(宗門第一書)로 알려진 〈벽암록(碧巖錄)〉과 구성과 형식면에서 거의 동일하다. 다만 벽암록에 보이는 수시(垂示, 요점을 제시하는 서문)가 없을 뿐이다. 또한 벽암록이 〈경덕전등록(景德傳燈錄)〉을 중심으로 선별한 고칙(古則) 백 가지에 송(頌)을 한 〈설두송고(雪竇頌古)〉를 다루고 있는 것에 반해, 본서는 〈설두염고(雪竇拈古)〉 - 일백 고칙에 염(拈, 서술 형태의 비평)을 한 것- 를 다루는 차이가 있을 뿐이다. 정리해서 말하면 본서는 100칙 공안과 이에 대한 설두 선사의 염, 그리고 원오 선사의 착어(着語, 촌평)와 평창(評唱, 해설과 비평)으로 이루어져 있다.

본격적인 〈격절록〉의 소개에 앞서 원오 선사와 설두 선사에 대해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설두 중현(980~1052)은 송나라 운문종(雲門宗)의 승려로 자는 은지(隱之)이고, 어려서 부모를 여의고 출가하여 인선(仁銑)스님에게 구족계를 받았다. 이후 지문(智門) 광조(光祚) 선사의 법을 잇고, 동정(洞庭)의 취봉사(翠微寺)와 항주(杭州) 영은사(靈隱寺)와 설두산(雪竇山) 자성사(資聖寺) 등에 주석하면서 종풍을 진작하였다. 세수 73세, 법랍 50년으로 시호는 명각대사(明覺大師)이다. 시문이 뛰어났으며 〈설두송고〉와 〈설두염고〉 그리고 〈조영집(祖英集)〉과 〈어록(語錄)〉 등 다수의 저서가 있다.

다음으로 원오 극근(1063~1135)은 송나라 임제종(臨濟宗) 양기파(楊枝派)의 승려로 자는 무착(無着)이고, 남송의 고종으로부터는 원오(圜悟), 북송의 휘종(徽宗)으로부터는 불과(佛果)라는 시호(諡號)를 받았다. 또한 입멸 후 받은 시호는 진각(眞覺)이다. 묘적사(妙寂寺) 자성(自省) 화상(和尙)에게 출가해서 문조(文照) 법사(法師)에게 삼장(三藏)을 배우고, 민행(敏行) 법사에게 〈능엄경(楞嚴經)〉을 전수받았다.

이후 오조(五祖) 법연(法演) 선사의 법을 이었는데, 당시 불감혜근(佛鑑慧懃, 1059~1117), 불안청원(佛眼淸遠 1067~1120)과 더불어 '종림삼걸(叢林三傑)', '법연 문하의 2근1원(演門之二勤一遠)', '법연 문하의 삼불(演門三佛)' 등으로 세상에 불렸다.

육조사(六祖寺)와 협산사(夾山寺)를 비롯해, 도림사(道林寺) · 태평흥국사(太平興國寺) · 만수사(萬壽寺) · 용유사(龍游寺) · 진여선원(真如禪院) 등 여러 사찰에서 주석하면서 법도(法道)를 떨쳤다. 특히 소각사 · 협산사(영천원) · 도림사에서 〈벽암록〉 강의가 세 차례 이루어졌다. 다만 〈격절록〉에 대한 강의가 어디서 이루어졌는지에 대한 자세한 기록은 알 수가 없다. 세수는 73세이고, 문하에 호구소륭(虎丘紹隆, 1077~1136)과 간화선의 주창자 대혜종고(大慧宗杲, 1089~1163) 등 다수가 있으며, 저서로는 상기 〈벽암록〉과 〈격절록〉, 그리고 〈원오심요(圓悟心要)〉와 〈어록(語錄)〉 등이 있다.

격절(擊節)이란 '핵심을 찌른다' 는 뜻으로, 본서는 말 그대로 화두 타파를 위한 정곡(正鵠)의 말씀이다. 또한 '격절' 이라는 말에 박자를 맞춘다는 뜻이 있듯, 원오 선사가 설두 선사에게 박자를 맞춰 응대한 화답서이기도 하다. 무릎을 치며 탄복하고 칭찬한다는 격절탄상(擊節嘆賞)이라는 말처럼 본서가 화두 공부하는 모든 분들의 지남(指南)이 되기를 바라면서 기해년(己亥年) 벽두에 조심스럽게 그 첫발을 내딛는다.

강승욱 법사



신해행증으로 본 백문백답

① 믿음(信) 편

믿는 것이 정말 아는 것인가?

우리는 평소 '믿는다' 는 말을 많이 하면서 살고 있다. '나는 윤회를 믿어.' 와 같은 종교적 믿음이 있는가 하면, '나는 한용운이 말한 님은 조국이라고 믿어.' 와 같은 일상적 믿음도 있다. 그러나 우리는 믿음에 대해 이처럼 명확한 구분을 하면서 살지 않는다. 믿음이란 용어가 지니는 일반적 의미와 종교적 의미를 구분하는 것은 종교와 과학, 신앙과 사실과의 관계를 점검하는 데 도움이 된다.

일상적으로 우리가 '믿는다' 고 말은 하지만 그 속에는 해석이나 주장, 혹은 예측이나 결론, 평가 등의 의미가 담겨있다. 예컨대 앞서 말한 한용운의 시 '님의 침묵' 에서의 님을 누군가는 부처님이라고 믿지만, 다른 누군가는 애인이나 조국이라고 믿는다. 모두 믿는다고 말을 하지만 각자가 님에 대한 주장이나 해석을 하고 있는 것이다. 이뿐만 아니라 어떤 평가나 결론을 내릴 때도 우리는 믿는다는 말을 한다.

이러한 믿음은 단순히 세계에 대한 평가나 해석만을 표현한 것이 아니다. 그것은 곧 자신이 말한 것이 옳거나 사실이라고 굳게 믿는 것이다. 따라서 믿음이란 자신이 옳다고 받아들이는 해석이나 예측, 결론, 평가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자신이 옳다고 받아들이는 믿음이 정말 옳거나 사실이라고 할 수 있을까? 이를 확인하기 위해 믿음을 옳은 믿음, 잘못된 믿음, 불완전한 믿음으로 구분하고자 한다. 먼저 옳은 믿음이 되기 위해서는 자신의 주장이나 평가가 옳다는 것을 뒷받침할 수 있는 강력한 증거가 있어야 한다. 예컨대 '나는 지구가 둥글다고 믿어.' 라고 주장하는 것은 옳다. 왜냐하면 지구가 둥글다는 분명한 증거가 있기 때문이다. 인공위성에서 지구의 둥근 모습을 찍은 사진이 바로 명확한 증거다. 이처럼 강력한 증거에 의해 뒷받침되는 믿음은 단순한 믿음이 아니라 옳은 믿음이다. 이러한 옳은 믿음을 앎(knowing), 혹은 지식이라고 한다.

이처럼 믿음이 지식이 되기 위해서는 조건이 필요하다. 즉 그것이 사실이거나 분명한 증거가 있어야 한다는 뜻이다. 따라서 '나는 1+1=2라는 것을 알아.' 라고 말하는 것은 정당하다. 이 명제가 옳기 때문이다. 물론 앞의 1과 뒤의 1이 완벽하게 동일한 조건일 때만 가능하다.

둘째로 완전히 잘못된 믿음이 있다. 지구가 네모나다거나 태양이 지구를 돈다는 믿음들이 이에 해당한다. 따라서 '나는 천동설을 믿어.' 라고 말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나는 태양이 지구를 돈다는 것을 알아.' 라고 말하는 것은 부당하다. 믿는 것은 자유지만, 그것을 앎이라고 인정할 수는 없기 때문이다. 지동설이 오늘날에는 상식이지만, 서구 중세사회에서는 기독교적 이데올로기와 결부되어 금지된 믿음이었다. 그들은 믿은 것이지, 결코 안 것이 아니다.

아직도 민주주의의 반대말이 공산주의라고 믿는 사람들이 많다. 이는 결코 사실이 아니다. 민주주의와 공산주의는 범주가 다르기 때문에 동일선상에서 비교하는 것은 오류다. 이는 마치 '사과 맛이 파랗다.' 라고 말하는 것과 같다. 민주의 반대는 독재이며, 공산주의의 반대는 자본주의다. 따라서 이러한 믿음은 왜곡된 믿음일 뿐 옳은 믿음, 즉 앎이라고 할 수 없다. 분명한 것은 사실이 아닌 것을 믿을 수는 있지만, 사실이 아닌 것을 알 수는 없다는 것이다.

셋째로 불완전한 믿음도 있다. 예컨대 다른 행성에 생명체가 살고 있다는 믿음은 완전하지 않다. 우리가 아직 모르는 생명체가 외계에 살고 있다 하더라도, 그것은 아직까지 정확하지 않은 믿음일 뿐 지식이라고 할 수 없다. 이러한 믿음을 뒷받침할만한 명확한 증거가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러한 주장을 하는 사람들은 믿고 있는 것이지 알고 있는 것이 아니다.

이처럼 믿음을 옳은 믿음과 잘못된 믿음, 불완전한 믿음으로 구분하는 이유는 잘못된 믿음을 사실이나 앎이라고 생각하면서 사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기 때문이다. 그러한 사회는 결코 건강하지 않다. 내가 믿는 것이 정말 아는 것일까? 이러한 질문을 스스로 할 줄 알아야 한다. 믿는 것과 아는 것은 범주가 다르기 때문이다.

이일야 전북불교대학 학장

한국불교 조계종 종도모집

한국불교 조계종에서는 도제양성과 포교에 함께 할 사찰 및 종도님을 모십니다

(1) 입종 구비서류
- 사찰 및 승려 등록 신청서 1부
- 주민등록증 앞, 뒤 사본 1통, 반명함판 사진 3매
- 법당 사진 안, 밖 각 1매 (사찰등록 하실분에 한함)
- 승려증 발급 하실 분은 필히 타종단 수계첩 및 승려증 사본 첨부
- 도첩은 본 종단에서 수계를 받을 분에 한하여 발급합니다

(2) 입종 후 발급증명서
- 승려증(법사증, 포교사)
- 사찰등록증
- 주지임명장
- 추대장 및 위촉장 (간부스님에 한함)

■ 총본산 : 경북 문경시 마성면 신현리 300번지 (오정산 백봉사)
■ 종무소 : 전국대표번호 1577-1016 / 054)571-6973 / 054)571-1030 / 054)571-7497 / 팩스 054)571-7498
■ 한국불교방송 : 대구시 달서구 새동네로107 예림빌딩 606호

대한민국 불교종단 역사

대한민국 불교종단 역사는 신라시대 5교9산의 선문(禪門)전통에 따라 비로서 종문(宗門)이 개창(開創)되고 고려시대에 이르러 천태, 조계종을 필두로 종파(宗派)가 설립되어 제종파(諸宗派)가 제각기 부종수교(扶宗樹敎)의 일념으로 불조(佛祖) 혜명(慧命)의 정법안장(正法眼藏)을 면면히 계승해 오다 조선조에는 선교양종(禪敎兩宗)으로 제종을 통합하여 오다가 그후로는 조계종(曹溪宗)만의 단일종만이 존재하게 되었다. 해방 이후 제종파 시대가 열리고 또한 1988년 불교재산관리법이 폐지됨에 따라 불교 수 많은 종단이 창종되고 소멸되고 이제 그 실체를 파악하여 관계부처에 자료제공과 신문과 방송, 불교언론에 널리 홍포코자 하며 상구보리 하화중생의 종승(宗承)을 선양하니 해동대한민국에 불일(佛日)이 중휘하고 자비광명이 삼천리 강토에 비추리라. 이와같이 종지 종풍으로 일가를 성립할 수 있어 각기 종명을 세우고 이 땅에 불일중흥의 깃발을 높이 들었다.

한국불교 조계종 (사)한국불교조계종협의회 ㈜한국불교방송 ㈜한국불교방송신문사

대구시 달서구 새동네로 107 예림빌딩 606호 / 전화 1670-2012

‘보물 된 부처님 말씀’ 세상에…

범어사, 소장 유물 도록 〈범어사의 전적〉 발간

하성미 부산주재기자 jayanti@hyunbul.com

범어사 성보박물관은 ‘전적 박물관’이란 별칭이 있을 만큼 1000여 종이 넘는 전적유물을 소장하고 있다. 주요 불경과 해설서 그리고 선서 등 부처님 가르침이 고스란히 남아 있어 중요도가 매우 높다. 범어사는 성보박물관 신축을 기념하며 유물의 중요성을 널리 알리고 고문헌이란 특수성 때문에 다소 어렵게 느껴지는 전적을 친숙하게 설명하는 새로운 자료를 발간했다.

범어사 성보박물관(관장 경선)은 소장 유물 도록 〈범어사의 전적(梵魚寺의 典籍)〉을 구랍 22일 발간했다. 도록 〈범어사의 전적〉은 △보물이 된 부처의 가르침 △나는 이와 같이 들었노라 △보살행의 길 △조사가 서쪽에서 온 뜻 △일상생활이 모두 작법 △마음을 가지고 부처를 구하지 말라 △동래부 금정산 범어사 개간으로 등 총 7부로 나눠져 구성돼 있다.

‘보물이 된 부처님의 가르침’에서는 범어사가 소장하고 있는 전적 중 보물 4종과 부산시 지정문화재를 소개한다. 특히 14세기 간행본 〈삼국유사〉 권4~5를 담고 있으며 간행 경위를 자세히 알아볼 수 있는 전적들이 포함됐다.

성보박물관 신축 기념 도록
소장 전적 100개 가려 뽑아
누구나 읽기 편하게 저술해
“문화재 안내 노력 다할 것”



범어사 성보 박물관이 발간한 소장 유물 도록 〈범어사의 전적(梵魚寺의 典籍)〉.

‘나는 이와 같이 들었노라’에서는 한국불교 사상에 영향을 끼친 불경과 해설서를 안내했다. 불자에게 익숙한 〈법화경〉 〈금강경〉 〈화엄경〉 등을 비롯해 밀교의 주요경전인 〈다라니경〉 등 불교 및 해설서 현황을 소개해 주요 경전의 의의와 성격을 알 수 있도록 구성했다.

‘보살행의 길’은 불경 가운데 율장과 논장을 설명했으며 ‘조사가 서쪽에서 온 뜻’에서는 선서 안내도 이어진다. 불교 의식 및 절차를 소개한 의례도 담겨있다. 이뿐만 아니라 조사와 선사의 일생과 가르침을 살펴보는 책도 안내되어 있다. ‘마음을 가지고 부처를 구하지 말라’에서는 조사들의 행적이 전기 형태와 문집으로 기록된 책을 소개한다.

〈범어사 전적〉의 가장 큰 특징은 일반 시민에게 어렵고 딱딱하게 느껴지는 고문서를 쉬운 현대어로 풀어 소개한 점이다. 또 1000여 종의 전적 가운데 100개를 선별해 주요 유물을 일목요연하게 정리 안내해 이해도를 높였다.

범어사 주지 경선 스님은 “이번 도록을 통해 고문헌을 조금 더 쉽게 소개하고자 했다”며 “옛 전적에 담겨 있는 선인들의 지혜를 되짚어보며 앞으로 더 나은 길로 발전해 나아가기 위해 노력하고자 한다”고 발간 배경을 밝혔다.

범어사 성보박물관에는 국가 및 부산시 지정문화재 80여 점과 380여 점의 문화재, 보물 삼국유사, 금장요집경 등 보물 5점을 비롯해 크고 작은 유물 4900여 점이 있다. 또한 박물관 착공 소식에 문화재 기증이 이어지고 있다. 범어사는 도록에 담지 못한 중요 전적 및 문화재 안내에도 노력을 다할 것을 다짐했다.

범어사 성보박물관은 “이번에 담지 못한 다른 중요한 전적들이 많이 있으며 앞으로 지속적인 연구를 통해 역사적, 사상적, 문헌사적 의미를 밝혀 우리 정신문화의 가치를 보존해 갈 것”이라고 말했다.


태고종 부산교구 종무원은 구랍 25일 동래구 수안동에 위치한 새 청사에서 ‘삼존불 점안 및 개원이전 법회’를 봉행했다.

부산 태고종, 통합 종무원 도량 ‘활짝’

수안동으로 이전… 삼존불 점안 개원법회

통합의 새 출발을 알린 한국불교 태고종 부산교구 종무원이 새로운 청사로 이전하고 힘찬 도약을 다짐했다.

태고종 부산교구 종무원(원장 자관)은 구랍 25일 동래구 수안동에 위치한 새 청사에서 ‘삼존불 점안 및 개원이전 법회’를 봉행했다. 법회는 테이프 커팅과 내빈소개 및 격려사, 축사 순으로 진행됐으며, 태고종 부산교구는 통합이 있기까지 노력한 공로를 치하하면서 부산교구 총무국장 봉진 스님에게 표창장을 수여했다.

법회에는 태고종 총무원장 편백운 스님을 비롯해 총무부장 도진 스님, 규정부장 혜암 스님, 한국불교신문 주필 원응 스님, 중앙선거관리위원장 월봉 스님, 경남남부종무원장 혜창 스님, 대구경북종무원장 법운 스님, 화엄승가회장 자인 스님 등 사부대중 200여 명이 동참했다.

자관 스님은 “중흥조인 태고 보우 스님의 가르침을 부산에서 다시 열어야 할 소명의 때가 왔다”며 “아픔을 걷어낸 지난 11월, 통합 원장 취임을 마치고 새로운 장소에서 새 출발을 알리게 됐다. 함께 해준 모든 종무원에게 감사하다”고 인사했다.

하성미 부산주재기자

선법가에 담은 ‘모두의 한마음’

한마음선원 대구지원 송년의 밤 음악회 열어



한마음선원 대구지원은 구랍 22일 우봉아트홀에서 송년의 밤 한마음음악회 ‘자유인이 되리라’를 개최했다.

무대에서 대행 선사의 가르침이 담긴 ‘선법가’가 울려 퍼졌다. 2018년 한 해 동안 함께 울고 웃고 행복했던 시간을 마무리하며 모두가 한마음으로 감사의 노래를 부르는 음악회가 개최됐다.

한마음선원 대구지원(지원장 혜공)은 구랍 22일 우봉아트홀에서 송년의 밤 한마음음악회 ‘자유인이 되리라’를 개최했다.

음악회는 대구지원 선법합창단과 어린이 및 청년 선법합창단이 참여했으며, 한마음선원 부산지원 선법합창단과 피아노 병창 최준이 특별 출연했다. 최준은 발달장애를 갖고 있지만 5살 때부터 한마음선원에서 공부하고 〈천수경〉 〈반야심경〉 및 대행 선사의 가르침을 음악으로 만들어 널리 전하고 있다.

대구지원은 ‘한마음으로’ ‘ 마음밭 농사’ ‘자유인이 되리라’ ‘자기의 길을 닦으려면’ 등 선법가로 무대를 채웠으며 노라조 원곡의 카레, 난타 공연 등 톡톡 튀는 감수성을 자랑하는 흥겨운 무대도 선사했다. 또 청년들이 참여한 피아노 3중주는 클래식의 부드러운 음색을 청중에게 선물해 박수를 받았다.

참가자들은 한마음음악회가 공부의 장이자 성장으로 이끄는 법음, 그 자체였다고 자랑스러워했다. 특히 연습하는 시간을 통해 도반들과 하나가 되고 끈끈함을 확인해 더 좋은 추억으로 남았다고 기뻐했다.

이은경 지휘자는 “청년 법우들은 합창을 통해 그동안 선원에서 공부했던 내용을 몸소 느끼는 과정으로 삼았고, 바쁜 일정 가운데서도 참여하며 마음이 성숙하는 시간으로 만들었다”고 말했다. 이어 “선법가가 지닌 가치를 살펴보면 연습하는 이 과정 자체가 정말 의미 있고 중요한 시간이었다”고 답했다.

백수정 자모는 9살 이류경과 7살 이미림 학생의 엄마라 자신을 소개하며 “아이들이 연습을 힘들어하면서도 마무리를 잘했다. 아픈 아이도 있었는데 끝까지 해내는 모습을 보며 감격했다”며 눈물을 글썽였다.

음악회에는 한마음선원 재단 이사장 혜수 스님, 주지 혜솔 스님, 부산지원장 혜도 스님을 비롯한 지원장 스님과 대중스님들이 참석했으며, 박종수 한마음선원 신도회장 및 박경석 대구지원 신도회장 등 사부대중 400여 명이 찾아 격려의 메시지를 전했다.

혜수 스님은 “처음에 작아 보였던 무대가 점점 더 크게 보일 정도로 감동과 행복으로 다가왔다. 그윽한 향기가 나는 무대인 것 같았다”고 말했다. 혜솔 스님은 “큰스님의 법문을 받들 때처럼 우리의 마음이 열리는 무대였다”고 격려했다.

혜공 스님은 참여한 모든 대중에게 감사의 인사말을 전하며 “큰스님께서는 금강경 게송에 ‘나로부터 상대의 우주 섭류의 정신계에 광대한 마음과 마음이 이어지는 도리를 한데 합쳐 깨달으면 끝없는 자유인이 되리라’고 하셨다”며 “다가오는 어떤 경계도 둘로 보지 않고 받아들이고 한 생각 굴려 내려놓는 공심공생의 실천행으로 궁극에는 걸림 없는 자유인이 되리라는 발원을 세우고 나아가겠다”고 의지를 전했다.

한편 한마음선원 대구지원 선법합창단은 27년 전 한마음선원 지원 최초의 혼성합창단으로 창단해 대구 BBS불교방송 연합합창제 우수상 수상 등 다양한 활동을 이어오고 있다. 손문철 대구지사장


저소득가정에 연탄을 전달하는 군산지역 스님과 봉사자들.

세밑 한파 ‘자비의 연탄’으로 극복

군산사암聯, 지역 저소득가정에 연탄 5000장

군산사암연합회(회장 도연, 상주사 주지)가 홀몸어르신과 저소득계층 중 연탄으로 겨울난방을 해결하는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 자비의 연탄 나눔행사를 펼쳤다.

구랍 23일 군산사암연합회 스님들과 불자 50여 명은 군산시 개정동 저소득층 17가구에 각 300장씩 5,000여장의 연탄과 라면 1박스씩을 전달했다.

연말을 앞두고 열린 이번 자비의 연탄 나눔행사에는 군산사암연합회장 도연 스님, 은적사 주지 석초 스님, 염불암 주지 행담 스님, 삼보사 주지 법송 스님, 수도암 주지 무진 스님, 보천사 주지 의종 스님, 성흥사 주지 보위 스님 등 스님들과 공군 호국 군성사 장병, 군산불교자원봉사단 등이 동참했다.

도연 스님은 “연말을 앞두고 어려운 우리 이웃들이 겨울철 난방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소식에 이번 행사를 준비했다”며 “이웃들이 용기와 희망을 가지고 추위를 이겨냈으면 하는 마음에 연탄을 전달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번 연탄나눔 봉사활동에 동참한 군산불교자원봉사단 불자들은 “지역불자들이 스님들과 함께 힘을 모아 어려운 이웃을 위한 자비행에 적극 동참하겠다”고 입을 모았다. 조동제 전북지사장

새해새날 자비광명 온 누리에
해운대 해운정사
주 지 지 성
신도회장 박 대 성
사부대중일동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우동2로 40-6 (해운정사) 전 화 051) 746-2256 / 744-4812 홈페이지 www.seon.or.kr

2019년 새해 福 많이 받으세요
안국선원
사부대중일동
부산 : 부산광역시 금정구 금단로 124 (남산동). 지하철 1호선 두실역 8번 출구
TEL 051)583-0993 · 0994 / FAX 051)583-0991
서울 : 서울시 종로구 북촌로 70 (가회동). 지하철 3호선 안국역 2번 출구
TEL 02)732-0772. 744-0772 / FAX 02)744-0779

http://angukzen.org

왕선자 부산여성불자회장 국민훈장 석류장 수상



"부처님께 감사하며 더욱 정진해 봉사에 앞장서겠습니다. 어머니의 마음은 부처님의 자비를 닮았습니다. 더욱 자비심을 나누고 실천하며 부처님을 전하는 삶을 살고 싶습니다."

왕선자 부산여성불자회장〈76 · 사진〉이 구랍 20일 서울 백범김구기념관 컨벤션홀서 열린 '2018 국민훈장 수여식' 에서 국민훈장 석류장을 수상했다. 왕 회장은 수상소감을 이 같이 밝혔다.

왕선자 회장은 부산 불자여성들을 이끌며 교도소 수감자 및 소외이웃의 어머니로 활동하고 자비 실천에 앞장서 왔으며, 1994년 부산여성불자회를 창립하고 포교 및 봉사 활동을 꾸준히 이어왔다. 아울러 부산불교총연합신도회 고문, 선암사 신도회 고문, 민주평통 부산진구 자문위원, 부산여성회 리더클럽 고문 등으로 활동하고 있다.

특히 왕선자 회장은 꾸준한 봉사 활동으로 귀감이 되고 있다. 현재 민주평통 부산진구 자문위 활동을 20년 이상 했으며, 부산교육청에서 학생 봉사 상담, 교도소 교화 활동도 20년이 넘었다.

왕 회장은 "꾸준한 봉사를 인정받은 것 같아 행복하다. 앞으로 더욱 잘 하란 의미로 받아들일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불자답게 살려는 마음이 제 삶의 동력이 되었고 보람된 삶으로 만들어줬다"고 소감을 전했다.

하성미 부산주재기자

"직접 지회 돌며 네트워크 연결을"

Interview

박유진 대불련 제57년차 회장



노덕현 기자 noduc@hyunbul.com

연합회 내 다양한 경력 갖춰
지회 맞춤형 컨설팅 등 계획
SNS 비롯한 홍보사업도 예상

대불련 제57년차 회장에 박유진 덕성여대 불교학생회 회장이 선출됐다. 한국대학생불교연합회는 구랍 23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2층 국제회의장에서 중앙회장 선거를 실시하고 박유진 덕성여대 불교학생회장을 신임회장으로 선출했다.

박 회장은 총 대의원 103명 중 59명이 참석한 가운데 33표를 얻어 23표를 얻은 정상훈 후보를 제치고 회장에 당선됐다. 임기는 1월 1일부터 1년이다.

박 회장은 취임 소감으로 "먼저 당선되기까지 모든 준비를 혼자 한 게 아니라 다함께 마음 내어가며 고생했다는 사실을 잊지 않고, 감사한 마음으로 회장직에 임하려고 한다"며 "대불련 법우들과 함께 할 수 있는 자리를 맡게 되어 막중한 책임감도 든다. 저를 믿어준 법우들의 기대를 저버리지 않도록 열심히 행동하려 한다"고 밝혔다.

박 회장은 2017년 덕성여대 불교학생회에 입회했으며, 2018년부터 불교학생회장을 맡아왔다. 대불련 캠퍼스포교팀 디자인팀, 대불련 서울지부 홍보부장 등을 맡아 활발히 활동했다.

박 회장은 △지회 간 밀접한 네트워크 구축 △대불련 SNS와 홈페이지 활성화 △학기별 리더십 연수 △예비 대학생 템플스테이 개최 등을 주요 공약으로 제시했다.

박 회장은 "앞으로의 계획은 지회 활성화에 힘쓸 예정"이라며 "각 지회를 직접 방문해 지회별로 맞춤형 컨설팅을 진행하려 한다"고 말했다.

또 박 회장은 "리더십 연수를 통해 대학생 불자 리더로서 성장할 수 있게 돕겠다. 예비 대학생 템플스테이를 진행해 앞으로 대불련에서 함께할 새내기들을 모으고 지회에 지속적으로 참여하도록 노력하겠다"고 계획을 밝혔다.

박 회장은 그동안 SNS와 홍보 등에 활동한 경력을 갖추고 있어 향후 대불련의 다양한 홍보사업이 예상된다.

"저는 캐치프레이즈로 '붓다, 마음을. 잇다, 인연을' 을 걸었어요. 이 모토에 걸맞게, 우리 안의 부처님의 마음과 서로의 소중한 인연을 알고 이어나가는 대불련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대학생 불자들도 나와 남이 다른 것이 아닌 하나라는 사실을 떠올리며 곳곳에 부처님의 가르침을 전하기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앞으로도 대불련을 지켜봐주시기 바랍니다."

옥탑마을에 전한 온기

조계종복지재단, 하월곡동 연탄지원봉사



조계종사회복지재단(대표이사 원행)은 구랍 21일 서울 성북구 하월곡동 일대서 '한화시스템/ICT와 함께하는 나눔 온기로 만드는 따뜻한 겨울 연탄나눔행사' 를 진행했다. 이날 50여 명의 ICT 임직원 봉사자들이 참여해 연탄 2,700장과 백미, 라면, 난방용품을 각 가정마다 전달했다.

김지원 기자

"아이들 성장기 도움 되길"

강화사암聯, 아동센터 10곳에 물품 지원



강화불교사암연합회(회장 승석)는 구랍 21일 강화읍 용흥궁공원에서 강화지역 아동센터 돕기 자비나눔 행사를 열고, 지역아동센터 10곳에 1100만원 상당의 쌀과 라면을 전달했다. 강화불교사암연합회 소속 사찰은 매년 정기적으로 이웃돕기와 장학금 전달 등을 바탕으로 지역사회에 온정을 나누고 있다.

윤호섭 기자

의왕 청계사 동지팥죽 나눔

올해 13회, 관내 어르신 500명 초청해



의왕 청계사(주지 성행)는 구랍 21일 청계동 관내 어르신들에게 제13회 동지팥죽 나눔행사를 진행했다. 청계사는 이날 청계종합사회복지관으로 관내 어르신 500여 명을 초청해 청계사서 직접 끓인 팥죽을 대접했다. 청계사 팥죽 나눔행사는 올해로 13번째 맞는 행사로 청계사는 다양한 주제로 관내 소외계층을 위해 상생과 나눔 축제를 개최하고 있다.

노덕현 기자



"혜암 스님 유지 받들자"

혜암당 성관 스님 17주기 추모재

법보종찰 합천 해인사(주지 향적)는 조계종 제10대 종정을 지낸 혜암당 성관 스님의 17주기 추모재를 구랍 23일 봉행했다. 이날 추모재에는 방장 원각 스님을 비롯해 원로의장 세민 스님, 조계종 법계위원장 종진 스님, 혜암문도회장 성법 스님 등 사부대중 500여 명이 참석했다.

성관 스님은 1920년 3월 22일 태어나 14세에 보통학교를 졸업하고, 17세 일본으로 유학해 동양철학을 공부하던 중 조사어록을 보고 출가를 결심했다. 1946년 해인사에 입산해 인곡 스님을 은사로, 효봉 스님을 계사로 계를 받고 1967년부터 해인사 소임을 살았다.

성관 스님은 '공부하다 죽어라' 라는 가르침으로 후학들에게 수행정진을 당부하기도 했다. 스님은 해인사 주지, 원로의원, 원로의장을 역임했으며, 해인총림 6대 방장과 조계종 제10대 종정에 추대됐다. 법랍 56세, 세수 82세로 지난 2001년 12월 31일 해인사 원당암 미소굴에서 "인과가 역연하니, 오로지 목숨을 걸고 참선수행 잘하라"는 당부를 남기고 입적했다.

손문철 대구지사장

참불선원 연말 '무주상보시' 훈훈

재가 한 달 안거 회향 맞아
강남구 이웃돕기 5000만원



참불선원 각산 스님과 신도회가 정순균 구청장과 손하트를 만들어 보이고 있다.

서울 참불선원이 소외계층을 돕기 위해 강남구에 5000만원을 기탁해 연말 자비나눔 훈풍을 불어넣었다.

참불선원(선원장 각산)은 구랍 21일 강남구 대치동 소재 선원 법당에서 한 달 재가안거 회향을 맞아 정순균 구청장에게 소외계층 지원금 5000만원을 전달했다. 기금은 한 해 동안 신도회를 주축으로 십시일반 모연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자리서 각산 스님은 "1년간 신도들이 회비와 각종 보시로 모은 소중한 돈이다. 여기에 무료 천도재에 감사한 마음을 전한 보시금도 함께 보탰다"며 "참불선원이 강남구에 있는 만큼 강남 이웃들에게 도움이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이에 정순균 구청장은 "각산 스님께서 항상 강남구 일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하다. 강남구는 서울시에서 8번째로 기초생활수급자가 많은 지역"이라며 "신도들께서 모아주신 성금을 소중하게 잘 사용하겠다"고 화답했다.

한편 참불선원은 2013년 현재의 자리에 선원을 개원한 이래 6년간 꾸준히 보시행을 펼쳤다. 참불선원은 승려교육기금을 비롯해 소외이웃 돕기, 성역화불사, 방송포교 등 다양한 분야에 4억5000만원을 후원했으며, 신도회 또한 행사가 있을 때마다 기금을 모아 힘을 보탰다.

특히 각산 스님은 한국참선지도자협회의 세계평화명상대전, 육조단경 대법회, 명상힐링캠프, 세계명상대전 등 굵직한 행사를 추진하면서도 참가비 일부를 불교계와 지역사회에 회향하는 데 앞장섰다. 이뿐만 아니라 참불선원은 천도재의 상업화를 우려, 신도들의 천도재를 무료로 지내면서 대중 회향의 가치를 실천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참불선원 측은 "육바라밀의 첫째가 보시인 것처럼 보시는 곧 부처님 가르침을 실천하는 일과 같다. 선원은 대중의 정신수행을 위한 각종 수행법을 전하는 한편, 물질적으로는 이웃에 도움이 되는 활동을 추구하고자 한다"며 "앞으로도 모범적인 활동을 통해 불교계 발전에 일익을 담당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윤호섭 기자

2019 새해 福 많이 받으세요

한국불교태고종
청련사(안정사)

주 지 해 경
총무/교무 상 진
재 무 심 곡
서무/원주 벽 산
사무처장 효 능
복지문화팀장 철 오
대 중 도 암, 지 홍
일 구, 보 휴
일 효, 일 명
지 휴



재단법인
천년고찰 청련사

이사장 상 진
이 사 해 경
지 홍
심 곡
벽 산
거 진
효 능
최종남
이종수

경기도 양주시 장흥면 권율로 169
Tel 031)836-2439, 1080 / Fax 031)836-1081
www.bluelotus-temple.co.kr

기독교 보수단체, 佛敎 명상교육 '반대'

ACLJ, "명백히 기독교와 상반되는 행위"
소송 · 온라인 청원 등 보이콧 움직임도

이보형 객원기자

미국의 기독교 보수단체가 공립학교에서 시행되는 마음챙김 명상 교육 프로그램을 반대하는 캠페인 활동을 시작해 불교계의 반발을 살 것으로 보인다.

해외 불교 매체 라이언스로어(Lion' s Roar)는 최근 "한 기독교 단체가 공립학교에서 진행되는 명상 교육 프로그램이 '명백히 기독교와 상반되는 행위'이자 '불교도의 명상'이라고 비판하며 반대청원 캠페인에 나섰다"고 보도했다.

명상 교육 반대 운동에 나선 단체는 보수 종교단체인 미국법과정의센터(American Center for Law and Justice, ACLJ)이다.

ACLJ는 일부 학교에서 스트레스 완화를 위해 오디오북으로 진행되고 있는 마음챙김 명상 프로그램을 "이 수행법은 불교에서 행해지는 것과 같다"면서 문제 삼았다.

ACLJ는 불교를 질병에 빗대어 비판했던 TV전도사 출신의 팻 로벗슨(Pat Robertoson)이 설립한 단체로, 트럼프 대통령 변호인단측 한 사람인 제이 세큘로우(Jay Sekulow)가 자문대표로 있다.

ACLJ의 주요 활동으로는 공립학교에서 기독교식 기도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ACLJ는 "우리는 학부모들에게 알리는 것을 비롯해, 학부모 미국정보공개법(FOIA)신청 및 소송을 포함한 다각적인 법적 캠페인을 시작하고 있다"며 "공립학교에서 어린 학생들을 대상으로 불교 명상을 가르치는 것은 위헌"이라고 강조했다.

지난 11월, ACLJ 대표단은 학교에서 시행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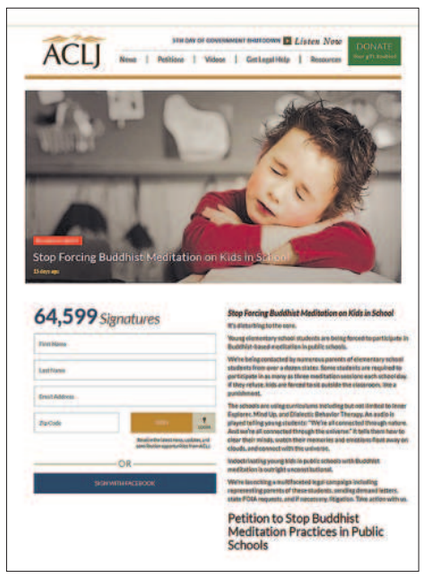
기독교식 이외 일절 배격해
"학생에게 명상 강요" 주장

실용명상 지지자, 사색 위한
범종교적 방법론이라 반박

는 주의력 프로그램에 반대하기 위해 콜로라도에서 열린 학교 이사회에 참석했다.

ACLJ는 "명상 프로그램은 학생들이 스트레스를 조절하고 학업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며 "학생들은 책상에 앉아 그들 내면의 선함을 찾거나 자연과 합일되기를 강요받는다"고 지적했다.

이밖에 라디오 쇼를 진행하는 제이 세큘로우는 그의 프로그램 '세큘로우의 라디오쇼'에 ACLJ 수석변호사 에비 서덜랜드를 초청해 공



미국 기독교 보수단체인 ACLJ가 공립학교에서 시행되는 불교식 명상교육 프로그램을 반대해 논란이 일고 있다. ACLJ 홈페이지 반대청원서 화면.

교육에서 시행되는 명상 프로그램의 문제점에 대해 비판했다.

인터뷰에서 에비 서덜랜드는 명상 프로그램이 "매우 공격적인 불교식 교육"이라며 "'내면을 들여다봐라' '내 안의 선함을 찾아라'는 내용은 명백히 기독교에서 가르치는 것과 상반되는 방식"이라고 지적했다.

세큘로우의 프로그램에 출연한 한 관계자는 "이런 교육방식은 교육의 좋고 나쁨을 떠나서 독성이 매우 강한 이데올로기로, 우리 아이들의 영혼을 타락시키는 것이 될 수도 있다"며 "나에게는 두 어린 자녀가 있는데 내 아이들이 창조와 선, 평화만을 생각하며 빈둥거리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 나의 두 천사가 탐험가에 대해 배워야 한다면 그 대신 예수와 트럼프에 대해 배워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또한 세큘로우는 청취자들을 상대로 불교 명상 교육을 막기 위해 힘을 모아줄 것을 촉구했다.

그는 "수백만 명의 사람들이 이 방송을 듣고 있다. 여러분들의 자녀의 학교에서 명상 프로그램이 진행되는지 확인해 달라"며 "우리는 학교 이사회에 연락해서 필요시 변호사를 파견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ACLJ는 명상 프로그램이 불교교리를 바탕으로 만들어졌다고 주장한다. 세큘로우는 또한 명상 프로그램 중 하나인 '마인드 업(MindUP)'이 불교신자인 골디 혼에 의해 설립됐기 때문에 이같이 주장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실용적인 명상수행법을 지지하는 사람들은 "명상은 불교적 관습이 아니다"라고 주장한다.

그들은 "명상은 다양한 이름들로 전세계의 종교적 전통에 사용되는 사색적인 행위"이며 "오늘날 학교 대부분에서 활용되는 프로그램은 전문 임상의가 개발해 과학적으로 검증된 프로그램을 기반으로 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중국화' 속에서 꽃핀 비구니들 '자비행'

리안종 사찰, 성당에 성탄절 나눔


중국 리안종 불교 사찰 소속 비구니 스님들이 인근 성당에 크리스마스를 기념해 식료품 및 현금 등을 전달했다. 사진출처=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

중국의 일부 지방 당국이 크리스마스를 금지시키려는 가운데서도 비구니 스님들이 솔선수범해 크리스마스 기념 자비행을 펼쳐 화제다.

중국 북부 지역의 리안종(蓮宗, 정토종의 다른 이름) 불교 사찰 소속 비구니 스님들은 양배추, 쌀, 밀가루, 식용류 등 식료품과 현금 290달러를 시카이 가톨릭 성당(Xikai Church)에 전달했다고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가 구랍 21일 보도했다.

해당 사찰 측은 "그 성당은 생활 여건도 넉넉지 않은 가운데서도 복음 전파와 자선 활동에 헌신한다"며 "우리는 모두 종교인들이다. 모든 사람들에게 나눔을 행할 공동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비구니들은 해당 성당과 종교 교류를 지속적으로 이어왔다. 종종 공부를 함께하기도 하고 사물을 공유하는 한편, 매년 크리스마스마다 이들을 지원했다.

리안종 사찰은 1930년대에 설립돼 해당 성당보다 많은 신도를 보유한다. 하지만 사찰 역시 최근 재건 작업 때문에 자금이 넉넉지 않은 상황이다.

한편 크리스마스는 중국에서 공휴일이 아니다. 더욱이 최근 당국의 '중국화'로 종교 활동에 대한 제한이 심화된 상황이다. 박정현 객원기자

쌍둥이 남매가 결혼을?…'전생 緣' 주장

윤회 믿는 부모 뜻 따라, 법적 구속력 無


쌍둥이 남매 기타와 키위(가명)는 방콕 외곽의 사뭇 프라 칸 (Samut Prakan)에서 불교식 결혼식을 올렸다. 사진출처=데일리메일

태국 6세 쌍둥이 남매가 불자 부모에 의해 결혼해 세간의 관심을 모으고 있다.

구랍 25일 데일리메일 등 외신에 따르면 기타와 키위(Guitar · Kiwi, 가명) 남매는 전날 방콕 외곽의 사뭇 프라 칸 (Samut Prakan)에서 불교식 결혼식을 올렸다.

데일리메일은 "어린 소년 기타와 그 누나인 키위는 2012년 9월 태어났다. 그들이 태어나자마자 부모는 결혼시켜야 한다고 생각했다"며 "이들이 전생에서 업을 해결하지 못해 쌍둥이로 태어났다고 여겼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쌍둥이의 아버지인 아문산 선톤 마리랏(Amornsan Sunthorn Malirat · 31)과 어머니 파차라폰(Phacharaporn · 30)은 결혼식을 위해 수백만 원을 투자한 것으로 전해진다. 태국 전통에 따라 남자인 기타는 현금과 금을 준비해야만 했다.

부모가 남매의 결혼을 서두른 것은 미룰수록 이들이 더 불행해질 것이라고 믿었기 때문이다. 전생에 사랑하는 관계였던 이들의 '업'을 하루빨리 해소시켜주지 않으면 윤회에 따라 후생에도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판단이었다.

아문산은 "두 아이가 전생에 연인이었을 것이라고 확신한다. 불교에서 비롯된 믿음"이라면서 "우리는 그들 전생의 업에 대한 해결책으로써 결혼식을 서둘렀다. 그들은 앞으로 건강하고 성공적인 삶을 살 것이며 병들지 않을 것"이라고 전했다.

이날 결혼식에는 가족, 친지 등 수십 명의 하객들과 거리 인파가 몰린 것으로 알려진다. 하객들은 신랑과 신부를 만나기 위해 9개의 문을 통과하는 의식을 치렀다.

하지만 쌍둥이 남매의 결혼에 대한 우려도 존재한다. 부모의 일방적 신앙으로 아이들이 '희생'한 것이라는 부정적 시각이다.

다만 이들의 결혼식은 법적 구속력은 없는 것으로 알려진다. 어머니인 파차라폰은 "매우 감동적이었다"며 "두 아이는 남은 인생 동안 서로에게 가장 소중한 친구가 될 것이다. 나이가 들면 각자 남편과 아내를 만날 것"이라고 전했다. 그러면서도 "하지만 이 의식은 그들 삶의 안위를 위해 반드시 필요했다"고 말했다.

박정현 객원기자

태국 SNS '식스팩 스님' 화제

구릿빛 피부의 식스팩 스님 사진이 소셜네트워크를 통해 확산돼 화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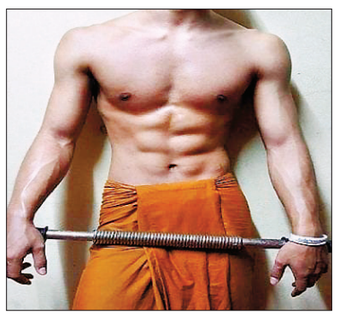
최근 태국국립불교청(National Office of Buddhism of Thailand, ONaB)은 소셜네트워크서비스에 빠르게 공유되고 있는 '식스팩 스님' 사진의 신원 파악을 위해 조사를 착수했다.

사진 속 스님은 태국 전통 승려복인 오렌지색 하의를 입고 아령을 들고 있다.

사진은 수라섹 콰티작(Surasek Kwatijak)이라는 사람의 계정에 게재돼 있으며, 태국불교청의 조사 대상이 됐다.

수라섹은 조사를 받으며 "트위터에 무작위로 공유된 사진이 발견됐으나 사진의 최초 유포자는 누군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태국 중앙 정부부처중 하나인 태국불교청은 불교보호단체와 각 지자체 기관들에 '식스팩 스님'의 사진을 조사해 스님의 위치를 알아내라고 명령한 것으로 알려졌다.


수라섹 콰티작의 SNS계정에 게재된 사진. 태국불교청은 스님의 신원 파악 중이다.

만약 사진의 주인공이 실제 승려로 밝혀질 경우 그는 태국 승려법을 위반한 혐의로 처벌받게 된다.

태국국립불교청은 "'식스팩 스님' 사진을 공유하는 것이 실제 범죄는 아니지만, 사람들에게 불교의 부정적인 이미지를 심어 줄 수 있다"며 디지털경제부에 사람들이 사진을 공유하는 행위를 금할 것을 촉구했다. 이보형 객원기자

제 33 회
법주사 주지 정도스님과 함께하는
성도절 문화예술제


▲ 대전비구니청림회 문화회관 삼존불



일 시 : 불기2563(2019)년 1월 13일(음 12.8) 일요일 오후 2시
장 소 : 대전비구니청림회문화회관(보문산 아쿠아리움 앞)
법 사 : 대한불교조계종 제5교구본사 법주사 주지 정도 스님
문화공연 : 색소폰연주 이은용, 숨결무용단 이미정, 청림회 합창단
주최 · 주관 : (사)대한불교조계종 대전비구니 청림회 T.042.222.7090
후 원 : 제5교구 법주사, 제6교구 마곡사, 대전광역시, 대전불교사암연합회, 동학사승가대학, 전국비구니회, 불교신문, 법보신문, BBS, BTN, 운불련대전지역회, 대전충남포교사단, 대전시청외 5개구청 불자회, 경찰불자회





보여주는 글쓰기가 아니다



김성수의
글쓰기 명상과 자기상담

① 글쓰기명상에 앞서



누군가 왜, 하필 글쓰기명상이냐고 나에게 물으면 늘 하는 대답이 있다. "정좌보다 글쓰기명상이 더 쉽다" "좌선보다 글쓰기가 훨씬 일상적이고, 요즘 사람은 하지 마라해도 하는 일이 됐다"고.

글은 현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몸의 연장과 같다. 특히 우리나라와 같이 문맹률 낮은 국민에게 글은 곧 공기다. 누구나 공기로 호흡하듯이 길고 짧은 글쓰기를 즐기고 있다. 누구나 스마트폰을 갖고 있고, 누구나 소셜미디어를 즐기고 있다. 걸으면서도 날아든 메시지를 읽고 답장을 보낸다. 신호등 앞에서도 미소를 띠며 타인이 보내온 글을 읽고 답신한다.

내 아들은 자다가도 몸을 뒤집어 글을 쓴다. 박달나무 탈바가지처럼 딱딱하게 굳어있던 표정이 살아나고, 두 손을 모아 기도하거나 다람쥐가 알밤 까먹는 자세로 글을 쓴다. 이런 세상을 20년 전만해도 상상이나 할 수 있었던가. 대한민국의 많은 사람들이 자다가도 글을 쓰다니. 독서량이 너무 적다고 걱정하는 학자들이 많지만, 나는 아무 걱정이 없다. 대한민국은 지금 글쓰기 하느라고 독서할 틈이 없다. 글쓰기명상의 조건이 익을대로 무르익은 셈이다.

그런데 참 알 수 없는 일이 있다. 언젠가 회사에서 직무교육 프로그램에 '명상' 어쩌고 하는 제목을 올렸더니 반응이 거의 비명에 가깝다. 명상의 '명' 자만 듣고도 큰일이 난 것이다. 그들은 그때 떠올렸을 것이다. 면벽을 하고, 눈을 감은 뒤 척추를 전신주처럼 꼿꼿이 세우고, 두 다리를 꼬아 모아서 하릴없이 앉아 있는 자신의 모습을 상상했을 것이다. "아이쿠 죽었구나" 하는 소리가 여기저기에서 구시렁구시렁 들리는 듯했다.

글쓰기명상이란 것을 구상할 무렵, 가장 큰 고민은 소위 '명상'에 대한 사회적 편견이었다. 10여 년 전, 스무 살이 넘은 아들에게 제안한 적이 있다.

"눈 감고 척추를 반듯이 편 채 1시간만 앉아 있으면 만 원 주마."

그랬더니 둘째 아들이 말했다.

"아빠가 없는 곳에서 하라면 할게요."

명상 알바 시간당 만 원 시대를 열고자 했던 나의 시도는 간단히 묵살됐다. 날밤 새워가면서 친구와 SNS 글쓰기로 열병을 앓는 아들이지만 척추 세우고 꼿꼿이 앉아 있는 자세만큼은 시대를 훌쩍 뛰어넘는 엄청난 대가 앞에서도 불가였다.

글쓰기명상 왜 해야 할까

글쓰기명상을 하는 목적은 뭘까. 글쓰기를 통해 본격 수행의 길을 열어가는 것이다. 글쓰기는 기본적으로 내면의 역동을 문자화하는 작업이다. 즉, 내적 알아차림을 외적 문자로 연결시키는 과정이자 결과이다. 알아차림이라는 심리적 도구는 글쓰기를 하는 동안 마치 한 사람의 의식 속에 던져진 그물 같은 역할을 한다. 내면의 수심(水深)에 알아차림이라는 의식의 그물망이 고요히 침투하는 것이다. 알아차림은 마음이기도 하고 그 마음을 지켜보는 또 다른 마음이기도 해서 한 존재의 내·외면을 자유롭게, 소리 없이 들랑거리면서 작업을 수행한다. 알아차림이라는 기제는 인간의 마음 내외적으로 출입이 자유롭지만 대상에 대한 주시가 대전제임을 잊지 않아야 한다. 글이라는 도구를 활용하여 알아차림의 힘을 증장시키는 역할을 하는 것이 글쓰기명상이다. 좌선명상으로 알아차림의 힘을 증장시키는 것보다 훨씬 친숙한 도구, 우리말을 활용하여 수행의 길로 나아가보자는 제안이다.

생활 속 글쓰기 보편화됐지만
'명상' 단어 거부감 갖는 대중
글쓰기는 자기 내면과의 만남
두서없는 내 글이 최상품이다

다행히도 사람들은 유사 이래 가장 활발한 글쓰기 작업을 하고 있다. 건널목을 건너면서도 글쓰기를 하는 사람이 있을 정도면 '강행' 하고 있다고 봐야 한다. 그만큼 삭감되는 것은 '고요히 앉아서 자신의 내면에 귀를 기울이는' 명상의 시공간이다. 유사 이래 가장 열악하다. 자신하건대 이 조건은 향후에도 호전되지 않을 것이다. 그 이유는 온갖 영상물의 범람, 인공지능의 발달, 애완동물의 가족화 등 마음의 방향이 자신의 내면으로 돌아올 여지가 비좁아지고 있기 때문이다. 자신의 몸과 마음이라는 살림집에 관심 쏟을 겨를이 없다. 그저 타인과의 교류에 골몰할 뿐이다. 말하자면, 인정욕구에 꺼둘리느라 여념이 없다.

아무렇든 자신의 집 살림은 안녕하시겠거니 하는 걸까. 그동안 자신의 몸과 마음이라는 세간살이는 온갖 도둑들이 훑어가고 뜯어가고 망가뜨린다. 타인의 생각이나 감정에 휘둘리는 동안 신경질이라는 도둑, 분노라는 도둑, 욕망이라는 도둑, 어리석음이라는 도둑이 본인의 마음 세간살이를 망가뜨리거나 거미줄을 치면서 집주인 행세를 하지만, 그런 것에는 관심도 없다. 그저 내 몸이라는 존재에게 때가 되면 먹이를 채워주고, 목마르면 물을 부어준다. 그럴 뿐이다. 마치 주택 소유주의 책무인 주택 보유세, 주민세, 종합소득세 따위만 납부하면 서류상의 집주인이 유지되는 것처럼. 암덩이가 주인 행세를 하건, 혈관이 낡아 흐물거리든, 자신의 생각이 아닌 남의 생각이 두뇌를 가득 채우고 있든 내 상관할 바 아니라는 식이다.

만약 2600년 전, 붓다 재세 시 환경이 지금과 같았다면 그 당시 붓다께서도 처음부터 좌선을 강행하셨을까, 아니면 스마트폰 명상을 개발하셨을까. 눈높이 설법의 천재였던 붓다께서 이 모바일 글쓰기 열풍을 그냥 지나칠 리 없었을 것이다.

글쓰기명상의 시작은 여기부터다. 모바일폰 글쓰기와 같은 짧고 단순한 몇 마디 말 나누기, 즉각적인 글쓰기, 나의 생각이나 마음을 이모티콘 같은 짧은 단어로 나눠주기. 글쓰기명상의 시작은 핀셋처럼 순간적인 자신의 마음을 포착하여 단어나 문장으로 추출하는 놀이 개념에서 시작한다. 그런 점에서 보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나라 사람들은 글쓰기명상을 수행할 준비가 완벽하다.

글쓰기명상의 원칙

글쓰기에는 세 가지 유형이 있다. 첫 번째는 지사적(志士的) 글쓰기다. 글쓰기를 통해 세상의 생각을 바꿔보려는 의도가 깃든 글쓰기다. 이를테면 '공산주의 이론'이나 '진화생물학' 같은 새로운 철학, 새로운 관점을 제시하는 글쓰기다. 두 번째는 묘사적 글쓰기다. 이것은 글쓴이의 생각이나 개념의 개입을 최소화하고 마치 글로써 그림을 그리듯이 써나가는 것이다. 판단은 독자 몫이다. 대체로 소설들이 이런 유형의 글쓰기를 지향한다. 세 번째는 성찰적 글쓰기다. 이 글쓰기는 글로써 자신의 내면을 있는 그대로 드러내는 글쓰기 작업이다.

'글쓰기명상과 자기상담'은 세 번째인 성찰적 글쓰기에 해당한다. 자신의 내적 영토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가감 없이 문자로 드러내자는 의도다. 사람들은 자신에게조차도 자신의 내면 소식을 찍어 누르거나 회피하거나 합리화한다. 심리학에서는 이것을 '자기방어'라고 표현한다. 나탈리 골드버그(Natalie Goldberg)는 이런 자기방어를 뚫고 "뼛속까지 내려가서 쓰라"고 제안한다. 1978년부터 그는 다이닌 가타기리 선사에게서 명상 수행을 했는데, 스승은 그에게 말하곤 했다.

"나탈리, 명상은 글을 쓰는 것과 똑같아요. 무엇하러 좌선 명상 모임에 찾아오는 겁니까? 당신은 왜 글쓰기를 단련시키는 방법으로 만들지 않죠? 만약 당신이 글쓰기 안으로 깊이 몰입할 수 있다면, 글쓰기가 당신을 인생에 필요한 모든 곳으로 데려다 줄 것입니다." (〈뼛속까지 내려가서 써라〉, 나탈리 골드버그 저)

성찰 글쓰기의 다른 말이 곧 '글쓰기명상과 자기상담'이다. 자신의 내면에서 웅얼거리는 외마디, 생각, 감정, 기억들을 있는 그대로 드러내는 것이 핵심이다. '드러내서 어쩌겠다는 것이냐.' 면서 그런 일이 의미 없다고 여기거나 쓸모없는 일이라고 치부하는 사람도 많다.

'구정물통 같은 내면을 드러내면 그 쓰레기더미와 악취는 어떡하란 말이냐.' '내면이고 뭐고, 그런 게 어디 있기나 한 것이야? 있으면 어디 보여줘 봐.' '밥 먹고 할 일 없는 사람들이나 하는 짓이지 뭐! 그런 게 돈을 줘, 밥을 줘?'

공감되는 반응이다. 한때 나도 그렇게 믿으며 살았다. 글쓰기가 밥을 먹여주는 것도 아니고 내 삶의 질을 바꿔주는 것도 아닐 것이라고 믿었다. 다음은 50년 동안 글쓰기치료 작업을 해온 셰퍼드 코미나스(Sheppard B. Kominars) 박사가 글쓰기를 거부하는 사람들의 변명을 약술한 내용이다.

'내 상황을 더 걱정하게 하고 싶지 않다. 이것을 종이에 옮기면 걱정이 더 심해질 것이므로.' '글쓰기는 너무 지루하다. 그 시간에 차라리 밖에 나가서 맑은 공기를 즐기는 것이 이득이다.' '종이에 불평이나 늘어놓으며 남의 탓을 하고 싶지 않다.' '글쓰기는 뜬구름 잡는 것처럼 몽롱한 짓이다.' '글을 쓰는 것은 나에게 죄의식을 계속 불러일으킬 것이다.' 한국이나 외국이나 글쓰기에 대한 태도는 대동소이다.

글쓰기명상은 위와 같은 문제를 사전에 해결하기 위해 몇 가지 내부 윤리규정을 둔다. 첫째, 자신이 쓴 글을 타인에게 낭독하거나 보여주지 않는다. 둘째, 두뇌를 통해서 만들어진 글이 아니라 손가락 끝에서 두서없이 튀어나온 글을 최상품으로 여긴다. 셋째, 띄어쓰기나 맞춤법, 비속어, 욕설 따위 등을 자유로이 구사한다. 어차피 누구에게 보여줄 글이 아니다. 넷째, 일단 쓰고 난 글은 완전 폐기를 원칙으로 한다. 다섯째, 자신은 천하 최악의 글짓기를 할 권리를 타고났음을 잊지 않는다.

〈마음과학연구소 대표〉

김성수 대표는
1993년 단편소설 '욕실'로 〈현대문학〉 소설부문 신인상을 받았다. 서울불교대학원대학교 불교학과 명상학을 전공하고, 명상학박사를 취득했다. 현재 서울불교대학원대 겸임교수로 활동 중이며, 저서로 〈너의 날개가 수상하다〉 〈잡념이 보배다〉 〈다른 사람, 다른 명상〉(공저)이 있다.





대행 스님

아주 이 한 생에 깨쳐서 모든 업식을 다 소멸시키자



그림 · 최주현

우리가 오늘 이렇게 또 한자리를 하게 됐습니다. 모습으로는 한자리가 아닌 것 같아도 항상 여러분께서 마음을 이어 가신다면 나도 또한 같이할 것입니다. 그리고 나뿐만 아니라 일체제불의 마음도, 만 불(萬佛)이 일 불(一佛)이고 일 불이 만 불인 것처럼 바로 여러분의 불성 자체, 주인공에 한마음이 되실 것입니다.

우리가 요즈음…, 이 말은 좀 해야겠습니다. 새 법당이 올라가니까 기분이 어떠세요? 지붕이 올라가니까 마음이 흐뭇하시죠? 나도 여직껏 둘러보지는 않았는데 지붕이 올라가는 걸 보니까 마음이 참 좋습니다. 집은 그렇게 짓고 산도 또 저렇게 있는데 사람이 인생길을 걷고 또 걷고, 그래도 그 집은 남아 있고 그 산은 남아 있듯이, 우리는 그렇게 한 찰나의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까 청법가에도 있었지만 '새 인연을 이어서 해 달라' 고 그랬죠? 그것은 항상 마음이 이어지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봄에 씨앗을 심어서 먹고 그 이듬해에 씨앗을 또 심어서 먹듯이, 그것이 끊임없는 진리인 것입니다.

요즘 조계종 건도 그렇고, 여러 가지 사건에 여러분 마음이 흔들리셨습니까? 그것은 어떠한 문제가 있어도 서로 부딪치지 않으면 개혁이 되지 않고 계발이 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싸우는 걸 보더라도 그것이 바로 이 세상에서 지혜를 넓히고 공부를 하는 뜻이니까 그게 싸움이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인간의 두뇌는 끊임없이 발전하고 있습니다. 발전하고도 남음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두뇌의 근본은 영원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딪침이 없고 상대가 없다면 우린 발전을 못 합니다. 차를 아무리 새로 사 놔도 운전을 하지 않으면 소용도 없는 차가 되고요. 그와 같이 인간은 부딪침에 의해서 다 커지고 발전을 하고 그러는 거죠.

그럼으로써 '스님네들이 욕심이 얼마나 많아서 그럴까. 다 때려죽여야 돼.' 이렇게 하지 마시고 '그것은 발전의 길이다.' 이렇게 생각하세요. 그 모두를 보고서 우리가 공부하니 그분들도 역시 스승인 것입니다. 장마가 드는 걸 봐도 스승이요, 물이 흘러가는 걸 봐도 스승이요, 돌이 있는 걸 봐도 스승이요, 꽃이 피는 걸 봐도 스승이요, 스승 아닌 게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나서 그 일체 만물을 보지 않았더라면 어떻게 공부를 하고 물리가 터져서 지혜가 넓어질 수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그 속에서 잘못 나가느냐 잘 나가느냐 하는 양면의 문제가 있죠. 참답게 물리가 터져서 잘 나갈 수 있는 머리인데도 불구하고 잘못 나가는 것을 악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요즘 가만히 보면, 사고도 많이 날 뿐만 아니라 학생들이 점심을 굶는다든가 또는 너무 실직자가 많아서 어려움을 겪는다든가 하는 문제들이 아주 많아졌습니다. 불쌍한 사람들이 너무 많아져서, 옷은 누더기를 입었어도 먹고 살아나갈 수가 있는데 먹지도 못하고 그렇게 애를 쓰는 사람들이 많아졌습니다, 아주. 그 원인이 어딨느냐? 이것은 우리가 자기 뿌리를 모르기 때문입니다. 알기 쉽게 말하느라고 이렇게 이 말 저 말 끌어다 대는데요, 자기의 뿌리를 의지하고 믿지 않기 때문입니다. 즉 말하자면 과거 자기를 믿지 않기 때문이죠. 과거 자기가 자기 불성이니까요. 그것은 한 해 두 해, 또 한 생 두 생만 이렇게 흘러 내려오면서 나를 이끌어 온 것이 아니라 수억겁 전으로부터 이끌어 온 장본인인 바로 근본입니다.

그런데 내가 왜 자세하게 팔정도니 육바라밀이니 이런 걸 얘기를 안 하고 그냥 넘어가느냐. 구렁이 담 넘어가듯 그냥 훌떡훌떡 넘어가느냐. 이런 게 아쉽죠? 그런데 그게 아니에요. 업보가 '있다' 고 한다면 업보가 있게 되고 소멸이 안 돼요. 여러분의 마음이 진짜 중요한 겁니다. 마음이 생각을 그냥 하고 사느냐, 한생각을 하고 사느냐의 문제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자기가 생각을 할 때 자기 혼자만 생각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이 몸에서 모든 생명들이 더불어 다 같이해 주기 때문에 생각을 할 수 있다 이 소립니다. 그거를 알면 한생각이 되는 거고 그걸 모르면 그냥 생각이 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이 과거로부터 그 수많은 세월을 걸어오면서 쌓은 습을 어떻게 단번에 소멸을 시킵니까? 참회했던 마음이 없어지고 또 일을 저지르고 이렇게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나는 "이 몸은 시자일 뿐이다. 심부름꾼일 뿐이다. 나의 원동력인 근본이 나를 움죽거리게 하고 보게 하고 듣게 하니 모든 거를 거기다가 맡겨라." 하는 겁니다. 죄를 지었든지 안 지었든지 모든 거, "일거수일투족을 다 거기다가 맡겨라." 이러는 겁니다. 왠 줄 아십니까? 살아오면서 쌓은 습관과 업장이 너무 두터워서 그 업장을 소멸시키는 데는 그 방법밖에는 없다는 얘기죠. 모든 걸 갖다가 관하고 놓으면 그거는 소멸이 되니까요. 소멸이 되니까 이루어지는 겁니다. 소멸이 안 되면 그게 이루어지지 않죠. 그래서 때로는 영가 천도를 하러 와도요, 과거에 이러이러한 문제가 숨어 있을 경우 그 숨어 있는 거를 다 끄집어내서 해 줍니다.

그런데 부모의 천도, 이것은 부모의 업장을 모르고 그대로 하면 빠진 게 많아서 그 업장의 요소들이 다 녹아지질 않죠. 그러니까 그 조상님들이 제대로 천도될 수 없으니까 그때는 '마저 해 달라' 고 하는 문제들이 생기죠. 그러니까 "중생이라고 할 것도 없다. 부처라고 할 것도 없다. 당신네들이 그대로 법신이고 그대로 보현신이고 그대로 부처다. 가만히 있으면 부처고 생각하면 법신이고 몸을 움죽거렸다 하면 보현신이다. 보현신은 어떠한 역할을 하느냐. 모든 걸 감싸고 움죽거려 주는 게 보현신이다. 마음으로 생각해서 처리하는 것이 법신이다. 가만히 있으면 그냥 부처님이다. 그러니까 아주 이 한 생에 빨리 깨쳐서 다 소멸시키자." 하는 뜻입니다, 나는.

그런데 소멸이 되면서도 또 공덕이 되는 것은 뭐냐? 거기다 자꾸 입력하면 소멸이 되니까 공덕이 되는 거죠. 업식과 업보와 업력이 다 소멸되니까, 자꾸자꾸 하나하나 없어지니까 집안이 조금 편안해지더라 이런 거죠. 여러분의 마음으로 스스로 느끼고 스스로 아는 거예요. 양심 때문에 부처님 법이 요만큼도 에누리가 없는 거죠. 자기가 아는 것을 이 세상 일체 만물의 부처님들이 다 알고 있고, 또 일체 만물도 다 연결이 되니까요. 알고 보면 아주 요만큼도 에누리 없는 것이 자기의 마음이죠. "야호" 하면 자기가 "야호" 한 것이 다시 되돌아와서 자기한테 들리듯이, 내가 마음을 냈을 때, 아무도 몰라도 내가 알고 있으니까 상대에게도 다 퍼져서 알게 돼요. 그래 어떤 사람이 뇌물을 갖다 주니까 받지 않더랍니다. '아무도 없는데 좀 받으시지 그러시느냐.' 그러니까 '너도 있고 나도 있지 않느냐.' 그러더라는 거죠.

이 세상에서 빨리 지혜롭게 공부하시려면, 내가 항상 말씀드리죠. '마음은 체가 없기 때문에 점프해서 넘어가도 된다. 수상행식이라는 것도 첨보해서 원심으로 만들어라.' 첨보하면 그거를 다 뛰어넘는 거죠. 원심이란 쉽게 말하자면 공식(共食)이죠. 한데 합쳐진 한 마음을, 의식을 말하는 거죠. 먹는 것만 말하는 게 아니라, 전체가 살아나가는 것을 한데 합쳐서 무(無)의 세계나 유(有)의 세계를 대처해 나가는 거를 공식이라고도 할 수 있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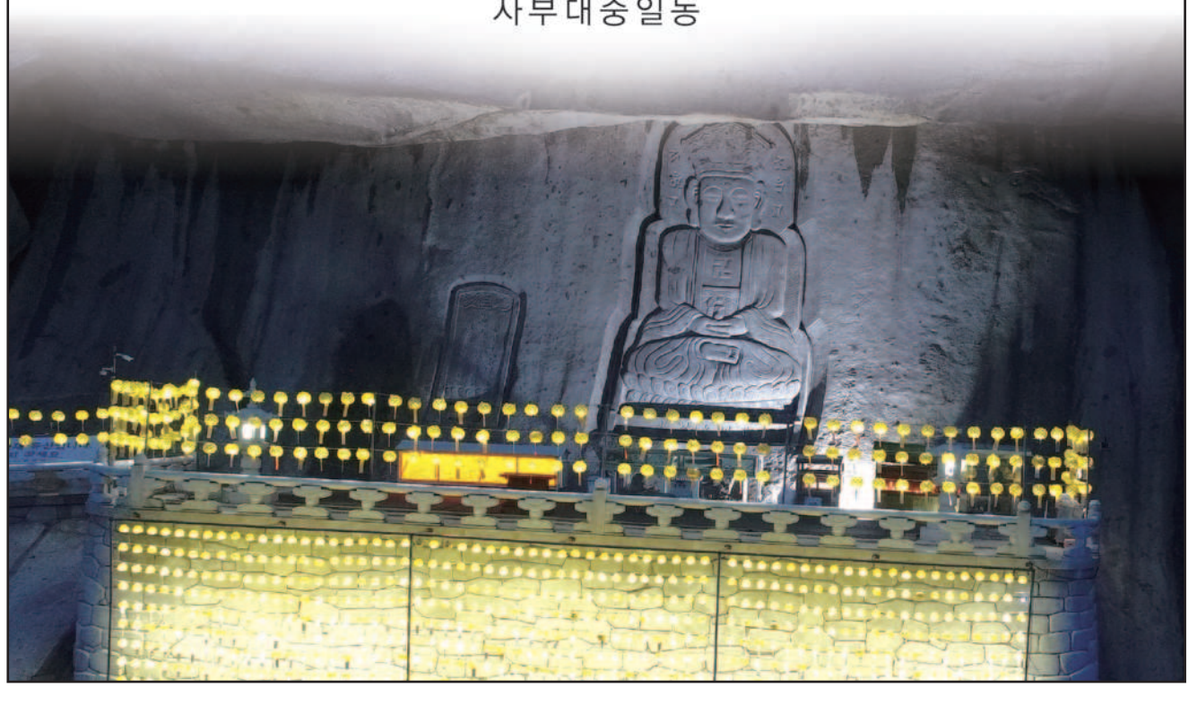
지난번에도 얘기했듯이, 수상행식이 따로 있습니까? 사람이기 때문에 업보도 있고, 잘못하는 것도 있고 잘하는 것도 있고, 부처도 되고 중생도 되고 이러는 거죠.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고통을 알고 있기 때문에, 고통을 저지를 줄 알기 때문에, 또 고통이라는 것을 알고 슬픈 걸 알고 아픈 걸 알기 때문에 부처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아예 그냥 잡아먹고 먹히고 이러는 거나 안다면 어떻게 부처가 되겠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고등 동물입니다. 그렇게 수억겁을 거쳐 오면서 그 아픔을 겪어 온 장본인들이에요, 우리가. 그래서 그렇게 거쳐 왔기 때문에 인간은 감수성도 빠르고 상상력도 빠르다는 얘기죠.

그러면 우리 마음은 체가 없기 때문에 그 빠른 감수성과 상상력이 그대로 행으로 들어갈 수 있는 거죠. 어떻게 생각하세요? 도둑질하는 그런 감수성 말고요. 도둑질하는 그런 상상력은 말고 말이에요. 내가 어떻게 하면 뛰어넘어서 저 사람을 살릴 수 있고, 어떻게 하면 뛰어넘어서 저거를 대치할 수 있고, 어떻게 하면 뛰어넘어서 좀 잘되게 할 수 있나. 이런 거 말이에요. 부처님의 마음이 전체가 보살이거든요. 그러니까 부처님의 마음만 그런 게 아니라 우리 지금 마음공부 하는 분들의 마음도 그렇습니다.

용도에 따라서 물에 가면 바로 주해신이 되고, 산에 가면 주산신이 되고, 들에 가면 지신이 되고, 또 아프다고 하면 약사 보살이 되고,

☞ A34면으로 계속

2019년 새해 福 많이 받으세요
대한불교조계종 관음성지 나한도량
낙가산 보문사
사부대중일동



2019년 새해 福 많이 받으세요
우리말 금강경 특별기도 영험도량 대한불교조계종
숙국사
사부대중일동
서울특별시 은평구 서오릉로 23길 8-5(구산동) Tel 02-356-2001 Fax 02-359-6297



내 마음을 항상 보살행이 되도록 해야

☞ A33면에서 계속

누가 명이 짧다 하면 바로 칠성 부처로 화하고, 또 좋은 데로 못 간다 하면 지장으로 화하고…. 여러분도 그렇게 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할 수 없다고 생각을 하면서 돌아가거든요. 남들처럼 다, 손 달리고 귀 달리고 눈 달리고 다 같은 사람으로 태어났는데 왜 못합니까?

그리고 마음은 체가 없기 때문에 그 상상력, 감수성으로 마음대로 다 행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그럼, 보이지 않는 데서 그렇게 뛸 수 있다고 하는데, 뭣 때문에 마음으로 그렇게 뛰나 하시겠지만 급해 보세요, 여기서 천 리는 못 뛰겠습니까? 여러분이 그 도리를 안다면 천 리도 마다 안 하고 만 리도 마다 안 하고 뛸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바로 심성(心性), 무(無)의 축지법이죠, 알기 쉽게 말하자면. 그래서 어디를 가도 자기가 그냥 보살행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어디를 가다가 남이 죽은 데 가서 영계성과 만났을 때 바로 거기다가 놓고 관하세요. 지금 그거를 다 아는 사람들은 관하고 이럴 필요도 없죠. 그대로 보는 순간이죠. 하지만 배우는 사람들은 관하고 그것을 그렇지 않게끔 하면 그 영가는 바로 화해요. 좋은 마음으로 화해서 천도가 되고 그 아픈 사람은 그냥 일어나게 돼 있어요.

그래서 내 마음을 항상 보살행이 되도록 해야 하는 거죠. 각양각색의 어떠한 모습이라도 내가 그 모습으로 되는 율이 많지, 그 모습이 내 모습으로 들어오는 율은 아주 드문 일이죠. 내가 주는 것이 많지 받는 것은 드물다 이런 뜻이죠. 그게 무슨 뜻이냐 하면 나한테로 들어오는 것은 보살이 거반 다 된 사람들이 그 도리를 알고 하는 거지, 그렇지 않으면 그 도리를 몰라서 나한테 들일 수가 없죠. 그래서 내가 그쪽으로 같이 해 주죠. 그래서 화해서 차원에 따라서 진화되게 하고 말이에요. 여러분이 모르는 얘기를 하니까 아리송한 사람도 있을 것이고, 좀 알아듣는 사람도 있겠죠.

참 이 얘기는 상당히 어려운 얘깁니다. 여러분을 그렇게 뒤바꿔 놓으려고 애를 쓰는데도 참 힘들어요. 무지 힘드는 것이, 무슨 과학적으로 이걸 증명해서 '야, 마음이 여기 있다. 이게 이거다.' 이러고 해 줄 수가 있나, 또 어디가 참 괴롭다거나 아주 쓰라리다고 할 때에 '네 마음을 내놔 봐라. 그럼 내가 쓰라리지 않게 해 줄게.'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건데, 이거는 물체가 없는 마음이고 물체가 없는, 바로 근본이거든요. 그래서 "옛 인연을 새로이어서 가는…," 하고 아까도 청법가를 불렀지 않습니까. 그런 거와 같이 마음이라는 거는 끊어지지 않고 이어 가는 거예요. 심어서 먹고 또 심어서 먹고, 또 심어서 먹고 또 심어서 먹고 이렇게 해서 그게 영원히 없어지지 않고 그냥 그렇게 되듯이. 그러면 어떤 사람이 또 씨앗을 잘 심어서 더 좋은 씨앗으로 만들어서 또 심어서 먹기도 하고 이렇게 하죠. 그렇듯이 우리 사람도 '난 업보가 많아서 이래.' 이러면 업보가 많은 것이고 '난 업보고 뭐고 없다. 내가 없는데 뭐가 있으랴. 내가 공했는데 뭐가 있으랴.' 하면 업보가 붙을 리가 없죠.

그리고 공한 이유는 항상 얘기해 드리죠. 고정됨이 없다. 고정되게 보는 것도 없고, 듣는 것도 없고, 말하는 것도 없고, 만나는 것도 없고, 움죽거리는 것도 없다. 그거를 알게 하기 위해서 때로는 아버지가 되고, 때로는 형이 되고, 때로는 할아버지도 되고, 때로는 동생도 되고 남편도 되고 그러는데, 어떤 거 됐을 때 나라고 할 수 있느냐고 말합니다. 아버지가 됐을 때 내가 나라고 할 수 있나, 남편이 됐을 때 나라고 할 수가 있나, 또 형이 됐을 때 나라고 할 수 있나, 아들이 됐을 때 나라고 할 수가 있나? 나라고 할 수가 없죠, 모든 게 다!

그와 같이 고정된 게 없다는 얘기죠. 고정된 게 없이 찰나찰나 바뀌면서 "여보!" 하면 남편이 되고, 또 금방 "아버지!" 그러면 아버지가 되는 거죠, 그냥. 그대로 그냥, 누가 해라 말아라 할 것도 없어요. 그게 자유예요. 자유스럽게 아버지 노릇 하고, 자유스럽게 남편 노릇 하고, 또 자유스럽게 아들 노릇 하고 이러는 거죠. 이게 지혜롭게 이해가 산뜻산뜻 가야 됩니다. 그런데 고정됨이 없기 때문에 '내가 한 게 없다' 이렇게 나옵니다. '고정됨이 없기 때문에 함이 없이 한다' 이런 뜻이죠, 함이 없이 한다. 때로는 아버지가 돼서 아버지 노릇만 한다면 '내가 아버지다' 이렇게 하겠지만, 이거는 매사 것이 다 바뀌니까. 바뀌는데 뭐라고 말을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모두 한데 합쳐서 더불어 '함이 없이 내 인생을 산다' 이렇게 할 수 있겠죠. 함이 없이 인생을 살고 있다. 함이 없이 사는데 업보가 거기 붙을 리가 없죠. 함이 없이 사는 공한 이 시자일 뿐인데, 공한 모습일 뿐인데 말입니다. 공했어요! 그런데 거기에 업보가 붙을 리가 없죠. 업력이 주둔하고 있을 수가 없죠. 그러니까 잘한 것도 없고 못한 것도 없다는 얘기예요. 잘한 것도 없고 못한 것도 없는 그 가운데서 자기가 그대로 생각하고 그대로 밀고 나가는 게 법이다 이런 소리예요. 그래서 부처님께서 유의 법을 가르치고 무의 법을 가르치고 그 가운데 법화경을 설했다 이런 뜻이에요.

이 모두를 그렇게 일일이, 말씀해 놓으신 대로 따져서 말을 한다면, 요거는 요거고 저거는 저거고, 요거는 어떻게 심어서 요렇게 해 먹고, 저거는 어떻게 심어서 이렇게 해 먹고, 어떤 거는 물을 줘야 하고 어떤 거는 물을 주지 말아야 되는 거고…, 이렇게 한다면 천 년 만년이 가도 나를 뛰어넘진 못해요. 그러니까 내 몸뚱이 하나 속에도 더불어 같이 사는 생명들이 꽉 차 있으니까 '내가 어떤 거라고 말을 할 수 없다. 내가 먹어도 내가 먹었단 말을 못 한다. 내가 했어도 함이 없다.' 이렇게 생각이 안 드십니까? 함이 없이 했는데 내가 업보가 될 리가 없죠.

그러니까 얼른 쉽게 말해서 이 인간의 두뇌라는 것은 쉴 사이도 없고 끊임없이 돌아간다는 얘깁니다. 그래서 여북하면 금강 석수봉이라고 그랬겠습니까? 그렇게도 말할 수 있죠. 그래서 부처님 머리 위에 이렇게 봉이 돼 있죠? 그게 금강 같은 석수봉이에요. 그러니까 얼른 쉽게 지금 말로 한다면, 아주 자동적이고 영원한 컴퓨터에 입력이 되는 거니까, 거기다가, 입력된 데다가 다시 입력을 하면 모든 게 소멸된다 이 소립니다. 알기 쉽게 말을 한다고는 하는데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여직껏 말한 것을 한데 합쳐서 자동적이고 영원한 컴퓨터라고 하면 되죠.

그런데 어떤 문제가 생겼다고 한다면 그것은 앞서 입력된 근거가 있기 때문에 나오는 거거든요. 근거 없이 나오는 건 하나도 없어요. 그래 근거가 있어서 나왔으니까 나온 자리에다가 관해서, 입력을 해서 그 근거를 말살시키면 그게 소멸되죠. 하나하나 소멸시키다 보면 전체가 다 소멸이 돼요. 그러면 그때는 자유스러워지죠. 점차적으로 자유스러워집니다. 그런데 사람마다 천차만별의 차원이 있기 때문에 차이가 있어요. 그릇들을 보세요. 종지가 있고 접시가 있고 사발이 있고 대접이 있고 큰 다라이가 있고 이렇죠, 모두가. 그거와 같아요, 사람의 차원도. 그래서 얼른 그것을 납득하고 가는 분이 있는가 하면, 똑같이 들었는데도 똑같이 납득을 못하고 중간쯤 가는 분이 있고, 또 아주 맹문이로 가는 분이 있고 그래요. 그게 업보로 인해서 그렇죠. 우리가 이날까지 수억겁을 살아오면서 쌓아 온 그 습 말입니다. 잡아먹고 잡아먹히고 그렇게 살던 습 말입니다. 그 습이 어떻게 금방 그렇게 없어지겠습니까마는 그 쌓이고 쌓인 습이 녹아지려면….

내가 그전에도 얘기했지만 당나귀를 얼마나 때리면서 부렸는지, 죽어서 당나귀는 남편이 되고 때린 주인은 바로 부인이 돼 가지고, 항시 업보가 입력이 된 그대로 나오기 때문에, 노상 때리거든요. 그래서 부인이 못 견뎌서, 지나가는 스님의 바지 자락을 쥐고선 그냥 살려 달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 스님이 말씀하시기를 "당신이 당나귀를 부릴 때 너무 때려서 그 대신 맞는 건데 뭘 그러냐." 그러더라는 거죠.

그래도 살려 달라고, 이젠 다시 그러지 않겠노라고 하니까 "그러면 돗자리를 도르르르 말아서 꼭꼭 묶어 가지고 당신을 때리기 쉬운 자리에다가 놓아두어서 그걸로 때리게 해라. 돗자리의 엮어진 줄기 수효대로 때린 게 없어져야 되는 거니까." 그래서 돗자리를 똘똘 말아서 놔두고 있으니까 한 사나흘 그걸로 때리더니 한참 자고 일어나서 "당신을 왜 내가 때렸지?" 이러더라는 거죠.

> **이 몸은 심부름꾼일 뿐 나의 원동력인 근본이**
> **나를 움죽거리게 하고 보게하고 듣게하니**
> **모든 거를 거기다 맡겨라.**

그러니까 에누리가 요만큼도 없다는 얘기죠. 에누리가 없는 대신에 여러분의 마음이 지혜로우면 에누리가 없고 말고 간에 그냥그냥 소멸된다 이거죠. 이 소멸되는 공부는 나오는 데다가 되놓는 이 공부밖엔 없어요. 이 공부는 부처님 당시부터 이렇게 가르치셨는데 지나오면서 너무 해이해진 것이죠. 학으로만 공부하는 분들, 이론으로만 공부하는 분들은 아는 건 많지만 아주 극한 마음을 낸 그 업장이 소멸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업장대로, 습관대로 그냥 막 튀어나와서 싸움들을 하고 그러죠.

그래서 부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네 몸통 안에서, 네 자체 근본, 네 마음이 벗어나야 네 몸을 자유스럽게 다스리고 맘대로 굴릴 수가 있느니라." 즉, 몸이 통이죠. "네 마음이 네 몸속에서 아주 꼭 잡혀서 바깥으로 나오지 못한다면 네 몸을 마음대로 자유스럽게 굴릴 수가 없느니라." 지금 여러분이 회사에 다니고 장사도 하고 뭐, 여러 가지 모두 하시겠죠. 그런데 몸 바깥으로 내가 벗어나서 내 몸을 굴릴 줄 안다면 그건 뭐, 모든 것으로부터 거침없이 빠져나올 수도 있고, 또 그렇지 않게끔 다 분리시킬 수도 있고 그래요. 정신계에서 보이지 않게 나오는 거는 그 정신계에서 대책을 세우고, 보이는 데선 아주 부드러운 마음으로 의리와 도의를 지키면서 말을 지혜롭게 해 나가면 그대로죠, 뭐.

지금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 모두 이렇게 복잡해지는 거는 마음을 등한시했기 때문입니다. 정신계를 무시했기 때문이죠. 지금 어느 학교에서도 물질계와 정신계를 한데 합쳐서 공부를 가르치지 않아요. 그래 가지고야 어떻게 선진국이라고 할 수 있겠어요? 나는 지금은 그렇게 안 하지만 전에는 한 번 그렇게 해 보기도 했어요. 그게 스스로 돼야죠. 억지로는 안 돼요. 습이 다 녹고 업력이 다 소멸되면 스스로 내가 나를 이익하게 생각하는 법이 없어요. 없어져요. 모두가 나 아님이 없기 때문이죠. 그래서 아무리 고생해도, 붙들려서 맞아도 나는 그 사람 탓을 안 했으니까요. '아! 나를 부딪히게 해서 단련시키느라고 그러는구나.' 하고서 오히려 감사하게 생각하니까. '죄 없이 맞은 거는 빨리 낫는다' 하는 속담도 있죠. 그렇듯이 금방 괜찮아지고 그래요.

그것을 말로는 어떻게 표현을 할 수가 없어요. 어떻게 여러분한테 그 말을 다 할 수 있겠습니까. 그거는 본인들이나 아는 거지 제삼자가 다 알 수는 없는 겁니다. 어쩌다가 한마디 이렇게 말하는 거지, 그걸 다 어떻게 알겠습니까? 말은 "남을 먼저 생각해라." 이렇게 할 수 있겠지만 스스로 그렇게 하는 것은 드뭅니다. 공을 치면 튀어 온다고 그러죠. 분명코 치면 튀어 오는 건데도 불구하고 욕을 막 해 댄단 말입니다. 욕을 해 대면 그 욕한 것이 나한테까지 튀어 오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어느 회사에서, 또 학교에서도 그렇고 어떠한 문제가 있으면 그저 그 사람을 원망하지 말고 내 탓으로 돌리면서 '둘이 아닌데 저 사람에게도 마음의 불이 들어오게 해서 그러지 않게 하는 것도 너 아니야?' 하고 관하라고 그러죠.

그러면 사람의 마음이 백팔십도로 달라져요. 그렇게 해서 하나하나 고쳐 나가는 거지 어떻게 그걸 다 고치겠습니까? 그렇게 해서 고치면 누가 좋으냐 하면 자기가 좋거든요, 편리하고. 앙숙으로 지내다가도 편해지거든요. 부모자식지간에도 그렇고 형제지간에도 그렇고, 부부지간에도 그렇고, 그냥 의리가 나빠서 싸우고 하는 것이 다 마음 싸움이거든요. 그 업보로 인해서 모든 게 쌓이고 쌓여서 내가 이 세상에 나오기 전에 만났던 과거의 인연들이 또 이 세상에 나와서 다시 만나서 앙숙이 돼 가지고 그렇게 하거든요.

(다음 호에 계속)

※위 법문은 1998년 12월 6일 법형제 법회에서 설법하신 내용을 정리한 것입니다. 한마음선원 홈페이지(www.hanmaum.org)에서도 같은 내용으로 보실 수 있습니다.





新年隨想

구성진 '마음 타령' 불러보자

성태용
건국대 명예교수





그림 · 김홍인

'항상 웃으시는 이.' 이를 부처님 당시 사람들이 부처님을 부르던 하나의 칭호라는 것을 아는 불자들이 별로 없는 것 같다. 여래, 응공, 정변지, 명행족 등으로 이어지는 부처님의 십대 명호보다 얼마나 정감있고 친숙한 이름인가? 이런 이름으로 부처님을 부르면 훨씬 부처님을 우리 곁에 가까이 모실 수 있을 것 같지 않은가.

"거룩하신 부처님께 귀의합니다"라는 딱딱한 귀의의 말보다 "항상 웃으시는 부처님을 본받고 배우겠습니다"라는 말로 우리 가까이 부처님을 모실 수 있을 것 같지 않은가?

우리 불자들에게 부처님은 '가까이 하기에는 너무나 먼 당신' 이 되어버린 듯 하다. 실제로 필자가 어떤 대형 사찰의 법회에 강설을 맡았을 때, "부처님 되고 싶은 분 손들어 보세요"하고 물었던 적이 있었다. 그런데 정말 충격적으로 그 법석에 있던 분들 가운데 1/10 정도만 손을 들었었다.

그 자리에 모인 모든 분들 법회 끝날 때마다 "성불하십시오" 또는 "성불합시다"로 인사를 하는 분들이었는데…. 부처가 되라는 것은 남에게만 권하고 자신은 되지 않겠다는 마음을 잡숫고 계신 분들이었던가? 그렇지는 않을 것이다. 실제로는 그런 물음을 던졌던 필자도 부처되겠느냐고 스스로에게 물었을 때 뭔가 머뭇거리던 체험을 했고, 그 원인을 찾아본 적이 있었다.

첫 번째는 부처님 되고자 하면 너무나 많은 것을 내려놓아야 할 것 같은 마음, 욕망에 뿌리한 끈질긴 미련이었다.

두 번째는 바로 앞에 이야기한 대로 부처님이 '가까이 하기에는 너무나 먼 당신' 이라는 관념 때문이었다. 그것이 필자가 겪었고, 또 극복하려 노력하고 있는 부처님과 나와의 거리였다.

아직도 그 거리를 완전히 극복했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다. 그렇지만 필자 나름으로는 꾸준히 노력하고 있다.

그리고 그 노력의 방법 가운데 하나가 '항상 웃으시는 이' 로 부처님을 생각하고, 멀리 두고 귀의하기보다는 나의 삶 가까이에 모시고 본받으려는 마음으로 부처님을 대하는 것이었다. 그리고 나와 비슷하게 불자이면서도 부처님과의 거리를 좁히지 못하는 분들에게 이 방법을 권해보기도 한다.

새롭게 열리는 한 해를 맞으면서 올해는 정말로 더더욱 '언제나 웃는 이' 의 모습을 내게서 펼쳐낼 수 있기를 새삼 기원한다. 지금까지 그렇게 되지 못했던 원인을 찾아보면 결국 나의 성숙하지 못한 마음 때문이었고, 보다 크고 올바른 목적을 지향하는 나의 서원이 굳건하지 못했던 때문이었다. 화내고 성질피우고 우울해하던 때를 뒤돌아보면 그 바탕에는 그러한 자책이 뒤따르곤 했었다.

결국 "올해는 조금이라도 더 부처님의 모습을 닮아갈 수 있는 삶을 살기를"하는 다짐 속에서 생각하는 것은 "올해는 어떻게 작년보다 좀 더 나울 수 있을까"가 아닐 수 없다.

끝없는 시간의 흐름 속에 새로운 한 해라는 단위를 설정하고, 그 속에 새로운 다짐을 해 갈 수 있다는 것도 얼마나 의미있는 일인가? 그런 점에서 늘 상투적인 목표를 세우기보다는 한 해 한 해 구체적인 목표를 세우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그것을 우리 불자들의 삶에 적용해 본다면 우리의 영원한 목표인 사홍서원을 조금은 자잘한 시간과 공간의 단위로 나누어 세워보는 것이 되지 않을까 싶다.

우리들이 부처님의 모습을 우리 삶 속에 바로 투영하지 못하는 이유 가운데 하나는 또한 사홍서원과 같은 큰 서원이 우리가 실천하기에는 너무나 크고 아득한 서원이라는 점 때문이기도 할 것이다.

언감생심, 내가 어찌 모든 중생을 다 건진단 말인가. 번뇌를 다 끊고, 불법을 다 배우고, 불도를 다 이루는 아득한 길. 늘 입으로 외면서도 실제로 걷으려 마음을 먹으면 그 아득함에 기가 질려버리는 불자는 없을까.

필자 자신도 그런 느낌에 '입으로만 불자' 로 지낸 시절이 얼마나 길었던가? 지금도 여전히 그 처지를 완전히 벗어나지는 못했지만, 그래도 그것을 극복하려는 노력을 기울이는 첫 걸음을, 바로 그 아득한 사홍서원을 '오늘, 여기' 의 서원으로 구체화하는 길뿐이라고 말할 수는 있게 됐다.

모든 중생을 생각하기 전에 내 곁에 있는, 나의 손길을 가장 필요로 하는 존재들을 생각하자. 그들에게 손을 내미는 일이 바로 모든 중생에게로 나가는 첫걸음 아니겠는가.

모든 번뇌를 끊는 일, 그것은 나를

'항상 웃는 분' 부처님의 칭호
언제나 웃는 부처님을 본받아
스스로 항상 웃는 자성불 되길

개인 수행에 머물지만 말고
조금 더 나아진 세상 만들자
그것이 '불국토 건설'의 시작

가장 괴롭게 하는 번뇌를, 부처님 가르침을 통해 올바로 바라보고 극복해나가는 길을 찾는 일부터 시작해야 하지 않을까.

불법(佛法)을 다 배우겠다는 서원을 생각하면 나 자신이 참으로 부끄럽다. 과연 부처님의 가르침을 담을 경전 등을 얼마나 가까이 하고 있는가를 묻게 되는 것이다.

올해는 정말 목표를 정하고 부처님의 가르침을 배울 계획을 세워보자. 또한 나를 향상시키는 수행방법을 정하고 꾸준히 삶 속에서 수행을 이어나가는 자세를 가져보자. 늘 반복되는 새해의 다짐일 수 있지만, 작년과 올해의 상황이 다르기에 그 구체적인 내용 또한 다를 수 있다.

하나하나의 항목들을 점검하고 반성하면서, 올해의 사홍서원을 세워나간다면 나의 삶 속에 부처님을 가까이 모시고 닮아가는 일도 점점 더 치열해질 것이다.

이런 나의 개인적인 바람이 모든 불자들의 바람들과 이어져 이 세상을 조금이라도 더 좋은 세상으로 바꿔 나가는 길, 그것이 바로 불국토의 건설이라고 생각한다. 부처님과 서원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불국토 건설' 이라는 목표도 너무도 크고 아득하기만 하여 구호에 그치는 목표가 되고 마는 것 같다. 그것도 똑같은 방법으로 구체화시켜야 되지 않을까.

지금보다 조금 더 나은 세상, 그것을 우리들의 힘으로 이루어 나가는 그 길이 바로 불국토 건설의 길이 되어야 할 것이다. 불교가 개인 수행에 머무르지 않고 이 세상을 바꾸어가는 힘있는 종교가 되어 가는 길도 바로 여기에 있다.

필자도 오랫동안 빠져서 헤어나지 못했던, 이제 조금 거기서 벗어나고 생각하고 있는, '마음 타령' 에 멍든 불교를 극복할 길이 바로 이것이 아닐까 싶다. 마음이 바로 세상이고, 거꾸로 세상이 바로 마음이다. 모든 것을 마음에서 해결하려는 것이야말로 잘못된 '마음 타령' 이다.

좋은 세상을 만드는 것이 바로 마음을 닦는 일이라는 역동적인 구조에 설 때 바로 올바른 '마음 타령' , 구성지고 멋들어진 '마음 타령' 이 나올 것이다. 올해는 나와 우리 불자들이 함께 이 구성지고 멋들어진 '마음 타령' 을 부를 수 있다면 얼마나 행복할까? 그런 생각을 하는 것만으로도 우선 행복하게 웃을 수 있다.

조금 더 나은 세상, 나와 우리를 괴롭게 하는 요소가 하나라도 줄어든 세상, 그 세상을 함께 꿈꾸어 보자. 우리 불자들이 모두 부처님 법에 조금이라도 가까운 세상을 그려 보자.

社 說

소통과 화합의 기해년 기대한다

기해년 황금돼지해가 밝았다. 복을 상징하는 돼지와 재물을 의미하는 황금이 만난 만큼 많은 사람들이 2019년 한 해 복덕이 가득하기를 바라고 있다. 이런 바람은 세간과 출세간, 일반사회와 불교계 역시 다르지 않다.

무술년 묵은해를 돌아보자. 불교계는 사실상 1년 내내 갈등하고 반목했다. 한국불교 현대사에서도 유례가 없는 조계종 수장의 친자의혹으로 홍역을 앓았다. 사실관계가 분명하게 밝혀지지 않은 사안이기에 시비를 논할 수는 없으나 의혹이 제기됐다는 것만으로 불교계는 지탄을 받았다. 당연한 일이다. 이로 인해 종무행정이 마비되고 연간 사업은 중단됐다. 사회에서 소위 '잃어버린 8년' 을 외쳤다면 불교계는 1년을 잃은 셈이다.

그래도 첨예했던 갈등을 딛고 불교계는 다시 안정을 찾고 있다. 무술년 막바지에 새 수장이 선출되고, 중단된 사업들이 재개되기 시작하면서 변화의 물결이 일고 있다.

한국불교 장자종단 조계종은 갈등을 극복하는 과정에서 '소통과 화합' 의 가치를 꾸준히 강조했다. 수많은 종도와 사부대중도 이에 공감하고 있다. 그렇기에 "소통과 화합으로 미래불교를 열겠다"고 선언한 조계종에 한 해 동안 이목이 집중될 터다.

어제의 해는 이미 1년 전으로, 그리고 과거로 사라졌다. 그렇게 우리는 늘 그토록 의미를 부여하는 새해 첫 날에 섰다. 물론 어제와 지난해, 과거와의 단절은 아니다. 모든 것이 연기이고 맞물려 돌아가는 세상이다. 불교계가 먼저 소통하고 화합하며 사회의 모범이 된다면 이는 곧 사회의 변화로, 시방세계의 정토화로 이어질 것이다.

독립운동 불교역할 재조명 기회로

올해 3.1운동 100주년을 맞아 불교의 역할을 재조명하는 사업이 본격적으로 펼쳐질 예정이다. 동국대 만해연구소가 만해로드대장정을 시작하고, 부산불교계가 범어사 명정학교에서 만세운동이 펼쳐진 역사를 알리는데 나선다.

이와 함께 장수 죽림정사는 2000일 기도에 입재했으며, 불교사회연구소와 한국불교종단협의회 등도 대형 학술세미나를 준비하고 있다.

3.1운동은 일제의 강점에 맞서 자주독립을 평화적으로 외친 세계사를 대표하는 상징적인 사건이다. 이런 운동의 한가운데 불교계가 있었다.

3.1운동 100주년을 맞아 불교계의 역할을 재조명해야 하는 이유는 여기에 있다. 동국대 전신인 중앙학림, 범어사, 해인사, 통도사, 동화사, 김용사, 마곡사 등 사찰 스님과 신도대중은 만세운동을 주도했지만 주목받지 못했다.

불교계 인사들의 독립운동 참여도 아직 제대로 평가받지 못했다. 3.1운동 이전에도 의병활동의 근거지가 된 곳이 산사였다. 백범 김구가 마곡사에 몸을 숨기고 윤봉길 의사가 의거 전 김구 선생에게 계를 받은 것 등 불교계에 숨은 이야기도 많다.

하지만 현재까지 알려진 스님들은 만해, 용성 등 일부이며, 대부분의 국민들은 이런 내용을 알지 못한다. 국가로부터 인정 받은 사례도 적어 독립유공자 포상을 받은 불교계 인사도 84명에 불과하다.

3.1운동 100년을 맞아 일제강점의 암흑기에서 불교계가 어떻게 대중들의 희망이 되고 빛이 되었는지를 우리는 살펴야 한다. 부처님 가르침이 역사 현장에서 활발발하게 전개됐음을 살펴야 하는 것은 불자들의 과제다.

현대불교 불교의 생활화 · 현대화 · 세계화
발행인 : 혜도 대표이사 : 박종수 편집국장 : 김주일 인쇄인 : 배성한
(우)03131 서울시 종로구 율곡로 6길 36, 606호 (운니동, 월드오피스텔) 대표전화(02)2004-8200 / 대표팩스(02)737-0698
편집국 02)2004-8257 FAX (02)737-0698
광고국 (02)2004-8213~6 FAX (02)737-0696
회사홈 현불닷컴 www.hyunbul.com
실시간 뉴스 현불뉴스 www.hyunbulnews.com
쇼핑몰 현불샵닷컴 www.hyunbulshop.com
현대불교 지사안내
부 산 지 사 : (051)405-9402
영 주 지 국 : (054)634-3429
광주전남지사 : (062)512-5003
대 구 지 사 : (053)768-8008
전 북 지 사 : (063)910-8977
구독신청 · 배달안내 (02)2004-8212 / 구독료 : 1개월 5천원
1994년 10월15일 창간 등록번호:다-3379 /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 요강을 준수한다

65세이상 승려 연금 지급 종단
불교조계종
계율청정종단

▪ 종 정
총무원장 : 혜인 사서실장 : 천산 율 원 장 : 혜일 방 장 : 대련, 혜경 의산장(경기도무형문화재) : 수원
중앙선원장 : 도일 혜정, 일봉

▪ 원 로 원 : 혜일, 혜정, 일봉, 혜경, 천불, 수원, 혜원, 지성

▪ 총 무 원
부원장 : 동안, 도불 서봉금산
총무부장 : 법성
재무부장 : 혜만
교무부장 : 혜일
사회부장 : 동오
문화부장 : 태산
총무국장 : 남산
재무국장 : 정일
교무국장 : 율조
사회국장 : 법일
문화국장 : 호산
문화재관리국장 : 진각
교육원장 : 무공
교육부원장 : 덕산
교육부장 : 법광
교육국장 : 진산
포교부장 : 송산
포교원장 : 정산
포교부원장 : 도명
포교국장 : 영암
국제포교원장 : 천산인월
기획원장 : 혜타
기획실장 : 대덕화
호계원장 : 법철
호계부장 : 태산
규정부장 : 법산
규정국장 : 지산
호법부장 : 법안
호법국장 : 지호
감찰원장 : 정오
감찰부장 : 백산지견
감찰1국장 : 금산
감찰2국장 : 인산
비구니 회 장 : 지성
부 장 : 혜승
교수사 : 덕산
총 무 : 금산
부회장 : 혜산, 해원
재 무 : 도은, 정해
교 무 : 본각, 수정
교 육 : 보림, 성담
문 화 : 남산, 진화
포 교 : 보명, 홍산
강 원 : 각원, 해인
복 지 : 화광, 무연
감 찰 : 서호, 보현
불 화 : 혜담, 인산
의 식 : 련성, 지해

▪ 지방교구 종무원장
서울종무원장 : 현조
경기종무원장 : 도불
경기서부종무원장 : 자명
경기남부종무원장 : 해인
인천종무원장 : 혜원
강원종무원장 : 광덕
충북종무원장 : 학산
충남종무원장 : 혜덕
경남종무원장 : 백산 지견
경남남부종무원장 : 천산
경남창원종무원장 : 지원
경 북 종 무 원 장 : 덕운
부 산 종 무 원 장 : 서봉 금산
부산북구종무원장 : 수산
전남광주종무원장 : 지각
광 주 종 무 원 장 : 지각
전 남 종 무 원 장 : 도명
전 북 종 무 원 장 : 법성
제 주 종 무 원 장 : 청호
울 산 종 무 원 장 : 법철
일본오사카종무원장 : 인해
일본동경종무원장 : 정대
미국뉴욕종무원장 : 성산
중국남경종무원장 : 해산
베 트 남 종 무 원 장 : 청묵

▪ 불교조계종 신문사
발행인 : 혜인 편집인 문화부장 : 태산
편 집 기 자 : 나윤하 문화국장 : 황산
사회부기자 : 이근진 유현석 사회국장 : 법산
이 사 : 혜원, 정산, 각원, 덕산, 금산, 해인, 정해, 지성, 보현, 법신, 도은, 수옥, 서호, 성화, 해월, 화광

▪ 종단 법인
사단법인 불교조계종
학교법인 삼화학원
사단법인 천지무예도협회
사단법인 행복한사회
의료법인 효성
재단법인 가평그린공원
사회복지법인 정향
사회복지법인 인주

▪ 종림
서울총림 해인사
경기총림 백화사
부산총림 흥국사
경남총림 백천사
강원총림 조주선관
충북총림 청룡사
경북총림 대국사

▪ 전국신도회
전국신도회장 : 홍창석
고 문 : 설주성
수 석 부 회 장 : 윤 근
여 신 도 회 장 : 김준자
서울신도회장 : 서우연
부산신도회장 : 허 민
강원신도회장 : 김현재

▪ 청년회
회 장 : 손정일
홍보처장 : 이근진
기획대리 : 나윤하
기획실장 : 홍의현

학교법인 삼화학원
▪ 불교조계종대학림
학 장 : 혜일 부학장 : 일봉
교 수 : 해운, 진산, 태산, 덕산, 현조, 혜승
조 교 : 손정, 최정화
운영이사 : 성산, 원명, 본각, 일현, 정현, 지각, 탄공, 해남, 법해, 청호, 현덕, 일행, 동명, 무진, 만공, 무공, 가산, 진법, 용산, 여연, 도원, 대각, 법신, 혜능, 대산, 지성

▪ 불교조계종대대학림
원 장 : 혜인
교 수 : 상산, 정수, 송암, 성민
운영이사 : 광운, 도의, 영봉, 성해, 성하, 지원, 혜법, 성공, 수원, 법우, 혜현, 지운, 지해, 도각, 동덕, 무량, 혜철, 정현, 철산, 덕산, 덕송, 진평, 동안, 진제, 연각, 성묵

▪ 남경중의약대학
교 장 : 혜 인
부 교 장 : 손영진
한국총장 : 홍창석
교학처장 : 손 정
학생처장 : 지안영
운영이사 : 법정, 혜담, 보현, 본각, 수옥, 향인, 수정, 현조, 금산, 지해, 지성, 원산, 해월, 성담, 화광, 진화

총무원 : 서울 강남구 도산대로6길 (논현동 2-14 2층)
총무국 : (02)511-2026~7 / 팩스 (02)511-2028
종단사업부 : (02)549-1918
총 무 원 장 실 (02)511-1080
불교조계종신문 (02)511-2026~7
일간동국신문사 (02)511-1080
인터넷주소 : 불교조계종.kr(www.jogyebuddhism.or.kr)
불교조계종신문 : www.buddhijogyesm.co.kr
불교조계종학림 : www.njutcm.co.kr
남경중의약대학 : www.njutcm.co.kr
E-mail 주소 : samhwade@hanmail.net
samhwade@naver.com

정신치료 최고의 처방전은 '佛法'



이근후 박사는… 1935년 대구에서 태어났다. 이 박사는 1961년 경북대 의대를 졸업하고 1968년 전문의가 됐다. 연세대와 이화여대에서 신경정신과 교수이자 전문의로 재직하며 50여 년간 환자를 치료하고 후학을 양성했다. 1989년부터는 이화여대 의료봉사단 단장을 맡아 네팔 지역 의료봉사를 해왔다. 1995년부터는 (사)가족아카데미아를 설립해 청소년 성상담, 부모 교육, 노년을 위한 생애 준비 교육 등의 활동을 활발하게 펼치고 있다. 2000년 불교상담개발원 초대 원장을 지내며 한국 불교상담의 향상을 이끌었다. 〈정신치료 어떻게 하는 것인가〉, 〈나는 죽을 때까지 재미있게 살고 싶다〉 등의 저서가 있다.

INSIDE

B5~10 신년특집 必 환경시대&그린부디즘

B19 문화 도피안사 토크쇼 '보현행원송'

B20 신년특집 불교계 주목 NEWS

산문 밖의 禪

이근후 신경정신과 전문의
(84·이화여대 명예교수)

박재완 기자 wanihollo@hanmail.net

인간의 고통, 즉 '병(病)'에는 육체의 병과 정신의 병이 있다. 흔히 '병'이라고 하면 육체의 병을 생각한다. 하지만 정신의 병 또한 인류에게는 힘겨운 고통이 된지 오래다. 문명의 발달로 인해 다양해지는 육체적 질환과 더불어 정신적 질환 역시 그 형태와 증상이 다양해지고 어려워지고 있다. 정신적 질환은 개개인의 증상이 그대로 '다양성'의 표본으로 이어진다. 개개인의 질환이 하나의 병명이고 사례인 것이다. 때문에 처방 역시 정해진 처방이 있을 수 없다. 인간의 정신적 질환, 즉 마음의 병은 무엇으로 치료할 수 있을까. 신경정신과 전문의 이근후 박사는 이미 불교에 답이 있었다고 말한다. 부처님의 말씀이 '상담사례'라고 말하는 이 박사는 부처님의 말씀으로 처방전을 써왔다. 평생 대중의 아픈 마음을 불법(不法)으로 고치며 살아온 정신과 전문의, 이 박사의 만다라다.

'이 뭣고?'='Who am I?'

이 박사는 불심 깊은 어머니 곁에서 컸다. 하지만 그에게 불교는 자신을 위한 신앙의 차원이 아니었다. 그가 불교를 받아들이고 불교에 다가간 것은 '인간적인 삶'을 위한 것으로, 그에게 불교는 추구해야 할 학문이고 사상이었다. 자신의 삶과 타인의 삶을 위한 평생의 공부였다.

"정신과 치료는 사람의 마음을 치료하는 것입니다. 마음을 다루는 것이죠. 다른 말로 하면 마음공부죠. 서양에서 프로이드의 시대가 열리면서 무의식의 세계가 조명되기 시작하고 정신분석이라는 학문적 시대가 열렸죠. 그런데 그 프로이드의 정신분석이라는 이론은 이미 불교 경전에서 말하고 있는 것들이죠. 결국 불교에 다 있다는 것이죠. 일례로 의식과 무의식의 세계는 이미 〈유식〉이 훨씬 더 깊고 넓게 이야기하고 있죠."

그가 불교에 관심을 가지기 시작한 것, 아니 불교공부를 시작한 것은 정신과 전문의(1968년)로서 많은 환자를 만나면서부터다. 그는 같은 정신과 전문의들과 모여 공부하던 중 프로이드의 정신분석이 불교와 일맥상통한다는 것을 알게 됐다. 아니 불교에 이미 있었던 '설법'이라는 것을 알게 됐다. 당시 이 박사가 속한 스터디 그룹은 탄허 스님, 지관 스님 등을 초청해 많은 토론과 공부를 했다. 의사들이 프로이드의 정신분석을 이야기하면 스님은 그 사례와 답을 경전에서 찾아주었다.

"정신적인 질환은 마음이 겪는 '갈등'이죠. 그 갈등이 깊어져 삶 전체를 그 갈등이 지배하게 될 때 인간의 삶은 힘겨워지고 결국 '병'이 되는 것이죠. 그 '갈등'이라는 것은 '나'를 잃어버린 결과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Who am I?'인 것이죠. 정신 치료에는 크게 두 가지 치료법이 있는데, 하나는 '지지(support)치료'이고, 또 하나는 '통찰치료'입니다. 지지치료는 무의식의 세계를 다루지 않으면서 보이는 현상만으로 치료하는 것이고, 통찰치료는 근원을 찾아가게 함으로써 자기습관을 고치고 생각을 고쳐서 깨달음으로 가게 하는 치료법입니다. 결국 정신적 어려움을 치료하는 것은 환자로 하여금 '나'를 찾게 해주는 것이고, 환자는 '나'를 찾아가는 과정인 것이죠."

이 박사의 환자 중에 자신이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는 환자가 있었다. 하지만 이 박사가 보기엔 그렇지 않았다. 오랜 기간 입원을 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의사와 환자의 생각이 너무도 달랐던 것이다. 그 환자는 회진 때마다 이 박사에게 물었다. "저는 언제 퇴원할 수 있나요?" 이 박사는 그 때마다 이런 저런 이유로 환자를 설득하느라 애를 먹었다. 어느 날도 그 환자는 이 박사에게 똑같은 질문을 했다. 이 박사는 더 이상 환자를 설득할 만한 구실을 찾지 못하기에 이르렀다. 그래서 이 박사는 아무런 말을 못한 채 한 동안 천장만 바라보다 병실을 나왔다. 그런데 다음 날부터 그 환자가 달라지기 시작했다.

"정신이 번쩍 들더랍니다. 제가 자기를 포기했다고 생각했답니다. 더 이상 자신을 들여다 봐줄 사람이 없어졌다고 생각하니 정신이 번쩍 들더랍니다. 정신을 차린 것이죠. 정신과 치료는 바로 그 '정신을 차리는 것'입니다. 깨닫는 일이죠. 그것을 다른 말로 바꾸면 '나를 찾아가는 것'인 것이죠."

나를 찾아가는 과정. 그야말로 어디서 많이 들었던, 늘 듣고 있는 이야기 아닌가. 바로 '불교'다. 이 박사는 'Who am I?'는 '이 뭣고?'와 같다고 했다. 자기 자신을 찾고 또 찾아가는 과정, 즉 '나'라는 화두를 놓지 않는 것이라는 것이다. 깨달음의 차이는 있지만 그 과정은 같은 것이다. 그래서 이 박사는 환자를 치료할 때 가장 먼저 생각하는 것이 부처님의 대기설법이다.

"부처님의 설법(경전)이 대단한 것은 대중의 근기를 생각해 설법했다는 것이죠. 그 대목이 정신과 치료를 하는 제게는 가장 큰 가르침입니다. 정신과 치료를 받으러 오는 사람들은 정신적으로 매우 힘겨운 사람들입니다. 자기 자신에 대한 확신이 없는 사람들이죠. 결국 정신적으로 연약한, 불안한, 한 마디로 근기가 약한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죠. 정신과 치료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환자 각자가 하나의 병명이고 사례이기 때문에 각자에게 맡는 처방전을 써야 하는 것이죠."

배움의 시간, 귀의의 시간

정신과 전문의 과정서 불교 접해
연구모임서 탄허·지관 스님과 공부
프로이드 정신분석·불교 일맥상통
"서양의 정신분석 이미 불교에,
의식·무의식 〈유식〉에 다 있어"
"정신적 질환은 마음이 겪는 갈등
정신치료, '나' 찾는 과정"

봉사로 이어지는 佛法

모두에 언급한 대로 이 박사의 '불교'는 자신을 닦는 수행의 방편이나 복을 쌓기 위한 기복의 신앙이 아니다. 하지만 '불교적 삶'이라는 그의 삶의 형태는 결과론적으로 불교를 귀의처로 삼은 여느 선남자와 다르지 않다. 마음속에 받아들인 불교가 어떤 형태의 것이든 부처님의 말씀으로 보고 듣고 생각하고 걷는 자의 삶이라면 그 빛깔은 분명 같은 빛깔인 것이다. 그의 불교도 마찬가지였다. 부처님이 가르쳐준 대로 길을 가고 있었다.

"네팔 가자! 가서 멀리 서있는 산 한 번 쳐다보고 돌아오면 뭐라도 달라진다. 우리도 달라지고 그들도 달라지고, 그것처럼 좋은 일이 어디 있나?"

이 박사는 1989년부터 이화여대 네팔 의료봉사단을 만들어 해외 의료봉사를 시작했다. 대학 단위의 해외 의료봉사는 국내에서 처음이었다.

B2면에 계속

봉사 · 나눔으로 불교적 삶 회향



1995년 이화여대의료봉사단 티벳의료봉사.



1989년 이화여대 의료봉사단 티벳 의료봉사 기념사진. 왼쪽 첫번째 이근후 단장.

‘이근후 전문의’

B1면에서 계속

이미 3년 전부터 개인적으로 네팔지역 의료봉사를 해오고 있었던 이 박사였다. 당시는 시대적인 상황으로 인해 학생들의 ‘농활(농촌활동)’이 여의치 않았다. 학생들은 가고 싶고 학교 측은 마음 놓고 보내줄 수 없는, 그런 시절이었다. 이 박사는 그 고민을 해외봉사로 돌렸던 것이다. 하지만 이 박사의 해외 의료봉사가 단순히 농활의 대체 차원만은 아니었다. 등산을 좋아했던 이 박사가 오래 전부터 네팔을 오가며 쌓은 인연과 느낀 것들이 그를 다시 더 큰 인연으로 이끌었다고 할 수 있다.

이 박사의 봉사에 관심은 1982년 네팔에서 시작됐다. 그는 1982년 한국산악회가 조직한 마칼루학술원정대 대원으로 참여했다가 쿰중에서 에베레스트를 최초로 오른 힐러리경을 만났다. 힐러리경은 사비를 털어 오지 주민들을 위한 학교를 짓고, 네팔 산림의 황폐화를 막는 자연보호운동에도 앞장서고 있었다. 이 박사는 그런 힐러리경으로부터 많은 감동을 받았다.

“힐러리경의 삶을 보면서 많은 것을 새롭게 느꼈어요. 함께 사는 세상이라는 것을 생각하게 됐죠. 그리고 부처님 법에서 생각해보니 다른 사람의 삶을 결코 다른 삶이라고만 생각할 게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눈에 보이는 오늘만이 나의 삶이 아니라고 생각하니 그들의 삶 속에 나의 삶도 함께 있다는 생각이 들었죠. 조금은 힘겹게 살고 있는 그들의 모습이 내가 거쳐 온 삶이었을 수도 있고, 또 언젠가 내가 거쳐야 할 삶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죠.”

이 박사는 다소 힘겹게 살고 있다고 생각했던 네팔 사람들의 모습에서 새로운 것들을 보게 됐다. 물질적으로 다른 지역의 삶과 비교가 되는 삶을 살고 있는 그들이지만 행복의 지수가 물질과 정비례하지는 않는다는 것을 그들은 보여주고 있었다. 그런 그들에게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것이 있다면 바로 ‘의료’였다. 이 박사는 1989년부터 네팔 의료봉사를 시작해 20년 넘게 매년 네팔의 오지 마을과 수도 카트만두를 중심으로 의료봉사를 해왔다. 그리고 그들의 삶에서 많은 교훈을 얻었다.

“물질적으로는 네팔 사람들보다 우리가 좀 더 풍요롭게 살고 있다고 할 수 있지만 그것만으로 행복을 이야기할 수는 없다는 것을 의료봉사를 하는 동안 알게 됐어요. 우리가 그들보다 행복하다고 단언할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됐죠. 우리는 물질적으로 풍족하지만 풍족한 물질로 인해 벌어지는 정신적 어려움 속에서 살고 있죠. 제가 의료봉사를 하면서 그들에게 느낀 것은 그들이 우리보다 불행하다고 할 수 없고, 우리가 그들보다 꼭 행복하다고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물질이 정신을 지배하는 듯한 오늘의 삶을 생각하면 정신과 의사로서 많은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 박사의 이타적인 생각과 삶은 국내에서도 이어진다. 이 박사는 40년 넘게 자신이 이사로 있는 광명보육원을 돕고 있다. 인연은 그의 모친으로부터 시작됐다. 불심이 깊었던 이 박사의 모친은 6.25 한국전쟁 때 대구로 피난 온 광명보육원 아이들을 돌봤다. 이 박사가 네팔 사람들을 위해 의료 봉사를 하는 것과 같은 인연이다.

이 박사는 군의관으로 재직하던 1967년, 근무지인 서울 창동 부근에 광명보육원이 있다는 것을 알았고 그 때부터 보육원을 도왔다. 이 박사는 1995년 보육원에 3층짜리 건물을 기증했다. 그리고 ‘무하문화사랑방’을 열어 아이들을 위한 프로그램을 진행했다. 무하문화사랑방에서는 시인과 화가 등 자신의 인적 네트워크를 적극 활용해 아이들에게 예술 체험 교육을 하고 있다.

“예전 보육원에는 그야말로 부모가 없어서 오는 아이들이 대부분이었죠. 하지만 요즘 보육원에는 부모로부터 버림 받아 오는 아이들이 많습니다. 그 아이들의 마음속에는 무엇이 있을까. 생각해 봤어요. 부모가 없고 갈 곳이 없어 왔던 아이들의 마음속에서 그리움을 보았다면, 부모로부터 버림받아 온 아이들의 마음속에서는 적개심을 보았어요. 그 아이들의 ‘이 뭣고’는 바로 그 적개심이라고 생각했어요. 그 적개심을 해결하고 스스로 ‘Who am I?’를 마음에 들일 수 있게 해 주는 것이 정신과 전문의로서 제가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했죠.”

이 박사는 그 아이들의 ‘이 뭣고’를 풀어주기 위해서는 그들이 본래부터 가지고 있었던 마음자리를 볼 수 있게 해주고, 그 자리로 돌아가게 해주어야 한다고 생각했다. 그래서 그 아이들의 감성에 다가가기 위해 예술적인 접근을 시도했다. 이 박사는 2004년부터 네팔 작가들을 초청해 전시회, 공연 등을 열었다. 최근에는 인터넷을 통해 시를 올리는 등 청소년 멘토링에 힘을 쏟고 있다.

“오늘날 우리의 사회는 매우 혼란스럽다는 생각이 듭니다. 시시각각 쏟아지는 새로운 정보와 새로운 문화, 새로운 이기들로 인해 문명은 빛의 속도로 진화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진화의 이면에는 어두운 결과들도 새롭게 드러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제일 걱정해야 하는 것이 점점 사라져가는 ‘인간성’의 문제입니다. 인간성의 회복이야말로 빛의 속도로 진화하는 문명의 속도만큼 빛의 속도로 회복해야 할 중요한 문제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 시작은 바로 ‘가족’이라고 생각합니다. 인간성의 실종이라는 문제를 들여다볼 때 첫 번째로 회복해야 하는 것이 ‘가족’의 형태라고 생각합니다. 오늘날의 ‘가족’이라는 형태는 예전의 ‘가족’과 많아 다릅니다. 아니 점점 없어지고 있다고 봅니다. 달라진 가족의 모습이 현 사회의 모습과 무관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인간성이 시작되고 키워지고 가꿔질 수 있는 곳은 ‘가족’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박사는 1995년부터 사회봉사단체 (사)가족아카데미아를 설립(공동 대표)해 광명보육원 등을 돕고 있다.

봉사와 나눔의 시간

1989년 이화여대의료봉사단 창립
매년 네팔 지역 의료봉사
봉사단체 가족아카데미아 설립
청소년 상담, 생애 준비 등 활동
불교상담개발원 초대 원장 역임
‘산사에서 ~ 상담워크숍’ 진행
불교상담의 질적 향상 이끌어
한국 석불서 한국인 마음 연구

불교상담개발원 탄생의 초석

2000년 4월 22일 조계종 포교원은 불교상담개발원을 설립했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상담’이라는 방편으로 널리 펼쳐 모든 존재가 서로 조화를 이루며 평화롭게 살아갈 수 있도록 마음을 나누어 세상을 밝히고, 대자대비를 실천하기 위해 설립됐다. 불교상담개발원은 1990년 개통된 (사)자비의 전화를 모태로 설립된 불교계 전문상담기관으로, 지금까지 어려운 이웃들의 심리적 아픔을 불교적 심리상담을 통해 치유하는 보살행을 실천하고 있다.

주요 사업으로는 불교상담심리사 양성 및 자격관리를 위해 조계종 포교원 인가 2년제 불교상담대학과 대학원 운영, 불교상담심리사 2급 사이버과정, 월례특강, 상담원 재교육 및 전문소양교육 등을 실시하고 있다. 또한 ‘산사에서 만나는 불교와 상담워크숍’, 불교상담 프로그램 개발 불교상담 교재 및 자료집 발간, 불교상담 학술상 제정 등 불교상담에 필요한 연구개발 진행과 사찰 상담실 지원 및 자문, 심성수련 프로그램 운영 및 불교상담 교육 강사 파견 등을 통한 현장 지원을 하고 있다. 불교자살예방센터와 서울시 사회복지협의회 자원봉사인증센터, (사)자비의 전화를 운영하고 있다.

이와 같이 불교상담개발원의 연혁과 다양한 활동을 살펴보면 그 불사가 가볍지 않음을 알 수 있다. 모두에도 언급했듯이 부처님의 경전은 ‘상담사례’라고 할 수 있다. 중생의 아픔을 덜어주기 위한 위대한 노력인 것이다. 그런 면에서 불교상담개발원의 존재와 불사는 그야말로 부처님을 대신하는 일이라고 할 수 있다. 그 불사의 초석이 초대 원장 이근후 박사다. 특히 ‘산사에서 만나는 불교와 상담워크숍’은 이 박사가 시작한 프로그램으로 불교상담의 질적 향상에 이바지한 바가 크다. 이 박사는 상담의 중요성을 누구보다 잘 알고 불교 상담의 질적 향상을 위해 노력한 주역이다. 불교의 궁극적인 목적이 본래 불성을 찾아가는 것이라는 것과 부처님의 유언인 ‘자등명법등명’을 생각할 때, 불법(佛法)을 통한 상담은 불사 중의 불사다. 불사의 중요성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이 박사는 1982년부터 전국의 석불을 찾아다니고 있다. 얼굴은 마음이 그대로 드러나는 곳이다. 한국인의 마음속에는 무엇이 들었는지 궁금했던 이 박사는 그 궁금함을 석불에서 찾고 있다. 이 박사는 특별히 개인적인 수행의 방편을 설정하고 있지 않다. 특별히 내세우는 신행생활도 없다. 하지만 그에게서는 늘 부처님의 그림자가 보인다. 늘 불법(佛法)으로 대중의 마음을 들여다보기 때문이 아닐까. 그리고 늘 그 마음속에 들어있는 아픔을 생각하기 때문이 아닐까. 정신과 전문의 이근후의 처방전은 부처님의 글씨로 채워진다. 그의 처방전은 설법이다.

謹賀新年
Season's Greeting and Best Wishes for the New Year
새해 福 많이 받으세요

大韓佛教 曹溪宗 第14教區 本寺
金井叢林 梵魚寺

방 장 지 유 큰스님
주 지 경 선

총무국장 보 운

범어사 신도회 합장



매월초하루 큰스님 모시는 화엄대법회
- 화엄천일기도 -

www.beomeo.kr
부산광역시 금정구 범어사로 250(청룡동) | 종무소 ☎ (051)508-3122

必 환경&

Green Buddhism

현대불교 신년특집

이젠 '환경 필수' 시대 '녹색불교'를 주목하라

프롤로그

불교, 다시 환경이다

신성민 기자 motp79@hyunbul.com

환경문제, 이젠 생존과 결부
친환경 넘어 '필환경'이 대세
제로웨이스트 · 비거니즘 유행
절제된 소비 · 순환경제 강조돼

필환경 현상들 불교와 맞닿아
시대 맞는 '녹색불교' 고민을

지난해 한국사회를 불안에 떨게 만들었던 환경 이슈들이 적지 않았다. 대표적인 것이 미세플라스틱 문제였다. 현재 전지구 대양에는 약 5조개의 미세플라스틱이 떠돌아다니는 것으로 추정된다. 이는 지구를 400바퀴 덮고도 남을 양이다. 문제는 이 같은 미세플라스틱이 해양 생물에게 섭취돼 최종 포식자인 인간들이 먹게 된다는 것이다. 이 밖에도 미세먼지, 지구온난화 등 기후변화 역시 인류의 생존을 위협하고 있다.

이런 환경 위기는 그간 인류가 보여준 무분별한 개발과 소비가 가져온 결과다. 이제 환경을 지키는 것은 운동가만의 전유물이 아닌 모든 사람이 실천해야 할 필수 요건이 됐다.

김난도 서울대 교수를 중심으로 한 서울대 소비트렌드분석센터가 발간한 〈트렌드 코리아 2019〉는 올해의 소비문화트렌드로 '필(必)환경'을 꼽았다.

'필환경 시대'의 도래에 대해 김난도 교수 등은 "환경을 생각하는 소비는 단지 '하면 좋은 것'에서 '반드시 지켜야 하는 것'으로 변화하고 있다. '친환경'에서 '필환경'이 된 것"이라며 "그동안 환경친화적 소비가 자신의 개념을 드러내는 것이었다면 이제는 살아남기 위해서 꼭 필요한 일이 됐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세계적으로 필환경적 소비는 '현상'이 됐다. 대표적인 것이 '제로 웨이스트(Zero Waste)운동'과 '비거니즘(Veganism)'이다. '제로 웨이스트'는 말 그대로 생활 쓰레기 배출을 최소하며 최대한 재활용하는 것이다. 미국의 환경운동가 로렌 싱어는 '제로 웨이스트'를 통해 3년 동안 배출한 쓰레기가 16온스(약 453g)의 유리병에 담고 다닐 정도로 실천하고 있다.

한국에서도 '제로 웨이스트'는 2030세대에게 관심사가 되고 있다. 실제 SNS를 중심으로 '일회용품을 싫어하는 사람들의 모임'이 활동 중에 있다. 이들은 '에코(Eco)'라고 포장된 일회용 물티슈의 사진을 올리고 "일회용 물티슈 포장지에 '에코'라고 쓰면 안된다"라고 비판하며 서로 경각심을 갖는다. 또한 네이버 카페 '제로웨이스트홈'과 소모임 누리집 빠띠의 커뮤니티 '쓰레기 덕질' 등도 같은 유형의 온라인 모임이다.

'비거니즘(Veganism)'은 완벽한 채식이라는 '비건'을 넘어서는 개념으로 자연과 동물 보호, 재활용 등 전반적 생활습관을 포괄하는 것이다. 이를 실천하는 사람들은 동물실험을 거쳐 생산된 화장품을 사용하지 않으며, 승마 · 동물원과 같은 동물을 억압 · 착취하는 모든 행위들도 일체 거부한다.

이런 현상은 소비를 바꾸고 있다. 구글 최고 경영자 래리 페이지가 신는 신발이자 할리우드 배우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가 투자해 유명해진 신발 브랜드 '올버즈'는 양모 등 친환경 소재를 활용해 친환경 공정으로 제품을 제작해 선풍적인 인기를 끌고 있다. 지난 2년 동안 미국에서 100만 켤레의 신발을 팔았다. 환경 이슈에 민감한 밀레니얼 세대에게는 '필환경'적 소비는 '힙(새로운 것을 지향하고 개성이 강한 것이란 신조어)'한 행위임을 보여준다.

세계적인 현상인 '제로 웨이스트'와 '비거니즘'은 불교와도 직접적으로 맞닿는다. 불교는 과도한 소유를 경계할 것을 강조하며, 승가 공동체도 생태순환적 시스템으로 운영된다. 분소의나 발우공양 등의 전통은 이를 잘 보여주는 예이다.

이에 대해 유정길 에코붓다 대표는 "환경문제에 대한 메시지는 부처님이 본래 가르침으로 돌아가서 소욕지족의 삶, 생명평등의 삶으로 가야함을 역설하는 것"이라며 "환경친화적인 삶은 곧 불교적인 삶이라고 할 수 있고, 철저한 불교적인 삶은 곧 환경친화적인 삶이라고 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불교사회정책연구소 법응 스님도 "환경을 지키는 일은 자신의 생존에 대한 문제이며, 불자로서는 청정법신 비로자나불을 면면케 하는 불사"라며 "인간은 지구의 형질(형태)은 물론 모든 유정 · 무정과 유기 · 무기물과 필연적으로 '상입상즉(相入相卽)'하는 존재이기에 생물다양성 등 제반 환경문제는 생존의 기본적인 조건으로 시대와 상황을 떠나 주목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미 불교계는 '불교환경운동의 르네상스'를 맞았던 1990년대부터 2000년대를 통해 빈그릇운동 · 불교환경의제 21 등 실천적 대안운동을 전개했다. 하지만 이는 대중적 저변화에는 실패했다. 불교 안에 머물거나 사문화됐기 때문이다.

이젠 시대에 맞는 환경 종책과 교육프로그램, 그리고 실천으로 종단 · 사찰 · 불자의 '녹색화'라는 순환 구조를 이뤄야 한다. 친환경을 넘어 다시 찾아온 '필환경' 시대, 불교에게 다시 환경은 '사회적 화두'다.



대한불교조계종 제 15교구 본사

세계문화유산
영축총림 통도사
WORLD HERITAGE TONGDOSA

방 장 중봉 성파 대종사
주 지 향전 영배

유 나	보장 영일	총무국장	혜 철	사업국장	석 운
율 주	중산 혜남	연수국장	만 초	사회국장	송 정
강 주	영은 현진	기획국장	선 본	포교국장	선 림
박물관장	인산 지준	교무국장	인 경	호법국장	자 인
		재무국장	무 문	원 주	선 원

영축총림 통도사 대중일동

경남 양산시 하북면 통도사로 108 (지산리 583)
전화 055)382-7182 팩스 055)382-7196 www.tongdosa.or.kr



必 환경시대 & 그린 부디즘

불교환경운동 어제와 오늘

韓환경운동 견인… 실천·대안 모색 '화두'



신성민 기자 motp79@hyunbul.com

 # 2003년 5월 23일 오전 10시 40분 경기도 과천과 서울의 경계인 남태령 고개. 200여 명의 사람들이 고개 정상을 넘어 서울에 입성했다. "서울 입성"이라는 말이 들리자 휠체어 앉아 있던 수경 스님과 문규현 신부는 서로를 말없이 껴안으며 눈물을 흘렸다. 그해 3월 28일 부안서 출발해 57일 만에 이룬 땀과 눈물의 대장정이었다.

 # 2004년 8월 25일 오전 10시 30분 천성산 관통 터널을 반대하며 단식 중인 지율 스님에게 당시 문재인 청와대 시민사회수석이 사과 방문했다. 문재인 수석은 재판부의 판결에 무조건 승복한다는 전제 아래 항소심 판결 선고까지 공사 중단을 하도록 건교부와 고속철도공단에 요청하겠다고 했다. 방문 이후 지율 스님은 체력 저하로 병원으로 후송됐다.

한국환경운동사에 있어 가장 뜨거웠고 극적이었던 두 순간. 새만금을 살리기 위한 수경 스님의 3보 1배와 천성산 관통 터널을 반대하며 극한의 단식을 이어갔던 지율 스님의 모습들은 당시 한국사회에 큰 울림으로 다가왔다.

불교환경운동의 시작은

기실, 1990년대 후반부터 2000년대까지 한국환경운동의 가장 큰 축은 앞서 예를 든 대로 불교였다.

한국사회의 환경운동은 1980년대 초반 민중운동의 일환으로 '공해추방운동연합'이 결성되며 본격적인 반공해운동이 시작됐다. 1990년대 들어 세계적으로 환경문제가 대두되면서 한국사회에도 환경운동의 개념이 확산됐다.

불교환경운동의 시작은 1988년 현 에코붓다의 전신인 한국불교환경교육원(이하 환경교육원)이 창립되면서부터다. 환경교육원은 창립 이후 환경 의식 고양을 위한 불교 내 사회의식화 교육을 담당했지만, 1991년부터 환경·생명운동으로 전환해 일반 환경운동가들과 연대하며 활동을 펼쳤다.

이후 월주 스님을 중심으로 1992년 2월 29일 청정국토만들기국민운동본부 전신인 공해추방불교인모임이 출범하는 등 불교계 환경 모임들이 생겨나기 시작했다.

주요 불교환경운동단체들이 만들어진 것도 이 시기다. 1995년 경불련 환경모임이 창립됐고, 1999년 인드라망생명공동체가 만들어졌다. 2001년에는 수경 스님이 중심이 된 불교환경연대가 발족했다. 조계종에서도 환경의 중요성을 인식하며 2000년 총무원장 직속의 환경위원회가 만들어져 지금까지 이어져오고 있다.

개발 자본에 맞서다

불교계가 본격적으로 환경운동에 관심을 갖게 된 것은 1994년 지방자치제도가 생겨나면서부터다. 당시 지자체들은 지역 개발이라는 미명 아래 우후죽순으로 개발 자본을 도입해 산하대지를 파헤치기 시작했고, 이는 고스란히 불교 사찰 수행 환경파괴로 다가왔다.

이에 앞서 개발 자본과의 첫 대결은 1990년 4월 건설부가 가야산 국립공원 내 골프장을 승인하면서다. 가야산 국립공원에 추진하려했던 해인골프장은 당장 해인사 대중의 반발을 가져왔고, 환경단체와 지역주민들도 반대에 나섰다. 이에 전국 강원 스님들의 시위와 저항, 전국적인 승려대회 등 치열한 반대운동이 전개됐다. 결국 문체부 장관에게 재결정을 요구하는 행정심판을 벌여 개발을 취소시키기에 이르렀다.

지자체 출범 이후 2000년대에 걸쳐 다양한 개발들로 인해 불교는 홍역을 치러야 했다. 속리산 문장대 용화지구 온천 개발, 홍제암 계곡 유원지화, 문경 봉암사 근처 온천 개발, 백담사 입구 종합휴양지 조성공사 등이 당시 발생한 불교 관련 환경 이슈들이다.

2000년대에 들어서면서 대형 국책 개발들이 본격화 된다. 대표적인 것이 새만금간척사업이었다. 군산

개발자본 맞서 환경 수호 나서
새만금·천성산 등 이슈에 중심
2000년대 초반 환경운동 주도
빈그릇운동 등 실천 제시하기도

스님 중심·의존한 한계점 여실
불자·시민 등 저변 확장 어려움
불교 생태주의 근간한 대안을

과 부안을 연결하는 34km의 방조제를 만들고 갯벌을 메워 4만2천ha 규모의 간척지를 만들겠다는 새만금 사업은 갯벌에 의지해 살아가던 어민들의 터전이자 수많은 어패류와 철새들의 공간을 빼앗는 것이었다.

이에 대한 본격적인 반대운동을 위해 2003년 3월 28일부터 65일간 새만금에서 서울까지 800리(320km)를 수경 스님과 문규현 신부, 김경일 교무, 이희운 목사가 3보1배로 올라왔다. 새만금을 지키고자 했던 종교인들의 참회의 고행에 시민들은 많은 감동을 했고, 동참으로 화답했다. 결국 새만금은 공사 강행이라는 법적 결정이 이뤄졌지만, 수경 스님 등의 3보1배 정진은 "환경운동사에 큰 족적을 남긴 비폭력평화행동의 전설이 된 사건(유정길)"이었다.

천성산 내원사 산감 지율 스님은 초인적인 100일 단식과 당장 개발의 피해를 입을 '도롱뇽'을 소송 당사자로 내세운 '도롱뇽 소송'을 진행했다. 이는 서울-부산 경부고속철도 13공구에 시행될 원효터널에 대한 반대로 이뤄진 것으로 지율 스님은 국토순례, 단식, 3보1배, 3000배 등 자신이 할 수 있는 방법을 모두 동원해 온몸으로 개발 자본에 맞섰다.

관통도로 노선의 대안을 제시하라는 개발업자들을 향해 "생명에 대안은 없다"는 지율 스님의 일갈은 사회의 큰 울림으로 다가왔다. 불교의 생명사상에 근거한 이 같은 운동은 이전과는 다른 운동의 패러다임을 제시했고, 전환점이 됐다.

실제 이시윤 씨(서강대 박사과정)는 학술지 〈사회사상과 문화〉에 기고한 논문을 통해 "운동은 결과적으로 '실패'했지만, 종교적 메시지를 내세운 불교의 전 교단적 참여는 생태주의 가치를 한국사회에 깊이 아로새기는데 핵심적인 '성공' 요인"이라 평가하기도 했다.

불교환경운동은 무엇이 달랐는가

개발 자본에 맞서 불교 수행환경과 우리나라의 자연 환경을 지키기 위한 불교계의 환경운동은 분명 일반 사회 및 환경운동과는 차이가 있었다.

현재까지도 불교계 환경운동을 주도하는 단체는 수경 스님을 중심으로 창립된 불교환경연대와 법륜 스님과 유정길이 중심이 된 에코붓다, 도법 스님이 이끄는 인드라망생명공동체다. 이들 단체들은 활동 영역에는 차이점이 있지만 큰 공통점이 있다. 모두 불교의 생명평화사상과 생태주의에 기반하고 있다는 것이다.

불교환경연대는 분노를 표출했던 그전의 '이슈 파이팅'과는 달리 자연을 파괴한 공업중생으로서 수행과 참회를 통해 운동을 전개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줬다. 이에 대해 유정길은 "개발 주체인 정부와 기업을 비판하기보다는 자연 파괴로 죽어간 생명에게 참회하는 수행이자 진혼의식"이라 평가했다.

에코붓다는 모(母) 조직인 정토회와 함께 불교의 발우공양 정신을 바탕으로 한 '빈그릇 운동'을 전개해 사회에 큰 반향을 일으켰다. 2005년 음식물쓰레기 직매립이 금지되자 본격적으로 시작된 빈그릇 운동은 70만 명의 동참 서명을 이끌어내기도 했다.

고려시대 사찰이 지역공동체 수장 역할을 했던 승도(僧徒)를 모델로 지리산 실상사를 중심으로 산내면에 지역 공동체를 구현하려 한 도법 스님은 인드라망생명공동체를 설립했다. 이를 통해 불교귀농학교, 불교생활협동조합 등을 서울에서 운영했고, 산내면 실상사에서는 실상사 귀농학교, 작은학교, 지리산영농조합법인 등 지역공동체 구현에 노력했다.

불교환경운동, 앞으로 나아가려면

2000년대까지 한국환경운동의 르네상스를 이끌었던 불교환경운동은 이후 동력을 잃어버리게 된다. 수경 스님의 은신 등 운동을 이끌었던 일명 '스타' 스님들의 부재와 환경운동에 대한 대중적 관심 저하가 대표적 이유로 손꼽힌다. 특히 '불교환경의제 21'을 통해 사찰을 생태적으로 재구조화해야 한다는 기치까지 만들었지만, 이를 박물관 유물처럼 방치하며 실질적 실천과 변화로 이끌어내지 못한 운동의 추동력은 불교환경운동의 한계이자 현재 진행형적인 과제이기도 하다.

결과적으로 앞으로 불교가 해야 할 일 역시 새로운 '필(必)환경' 시대에 맞춰 불교적 생태주의에 입각한 실천적 '녹색불교운동'으로 나아가야 하는 것이다.

불교환경운동사 주요 연보

1988년	한국불교환경교육원(에코붓다 전신) 창립
1992년 2월	공해추방불교인모임 출범
1994년 9월	두레생태기행 창립
1995년 3월	경불련 환경모임 창립
1995년 6월	조계사서 제1회 청정국토한마당행사
1996년 11월	해인사 골프장 설립 반대 위한 사찰환경보존과 민족문화수호 본말사 주지대회
1999년 9월	인드라망생명공동체 창립
2000년 7월	조계종 환경위원회 구성
2001년 9월	불교환경연대 창립
2002년 3월	사찰생태연구소 설립
2003년 3월	수경 스님 등 4대 종교인 새만금사업 반대 3보1배 정진(65일)
2003년 10월	지율 스님, 일명 '도롱뇽 소송' 제기
2004년 3월	생명평화 탁발순례단 시작 (2008년 12월 13일까지)
2004년 9월	빈그릇 10만명 서약운동 시작
2006년 9월	불교환경의제21 선포
2008년 9월	4대강 개발 저지 오체투지 순례단 1차순례(10월 26일까지)
2009년 3월	4대강 개발 저지 오체투지 순례단 2차순례(6월 6일까지)
2010년 5월	'4대강 중지 촉구' 유서 남기고 군위 제방서 문수 스님 소신 공양
2010년 6월	수경 스님 은거



必 환경시대 & 그린 부디즘

종단의 녹색화

출재가 교육과정 '환경' 全無… 제도화 절실

윤호섭 기자 sonic027@hyunbul.com

과거의 불교환경운동이 난개발을 막기 위한 거대자본과의 투쟁이었다면 이제는 미세먼지와 라돈침대, 발암물질 생리대 등 일상생활에 침투한 환경문제 해결에 나서야 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한결같은 주장이다. 무엇보다 과거에 비해 대중이 환경문제에 심각성을 느끼고 있다는 점에서 친환경 의식을 높일 대안을 모색하고, 실천적인 지침을 마련해 보급하는 것이 우선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전문가들은 이를 위한 종단차원의 최우선과제로 '환경교육'을 꼽는다. 이는 출가자뿐만 아니라 재가자까지 교단 구성원 모두에게 해당되는 것으로 승려연수교육과 각 사찰 불교대학 교육과정에 환경교육 등을 필수과목으로 담는 것을 포함한다.

실제 승려교육을 주관하는 조계종 교육원의 연수교육과정은 △법계 △사찰경영 △경전 △인문과학문화 △체험형 △순례 등으로 구성돼 있으며, 이 중 환경과 관련된 과목은 없다. 간혹 사찰 전문경영인 수업에 특강이 마련되기도 하지만 1회성에 그친다. 교육원이 인증한 외부기관의 연수교육도 마찬가지다.

상황은 재가불자를 교육하는 사찰 불교대학도 크게 다르지 않다. 교육 대부분이 부처님 생애와 불교 이해, 경전 및 의식, 사상과 역사 등에 치우쳐 있다. 결국 불교환경교육은 정토회나 불교환경연대 등 종단이 아닌 불교단체에 의존하는 방향으로 자리 잡는 결과를 낳았다.

반면 천주교의 경우 주교회의에 생태환경위원회를, 서울대교구에 환경사목위원회를 뒀다. 생태환경위는 환경활동가 연수 및 자료 제작, 심포지엄, 주교현장체험 등 범종교적인 환경활동을 주관하고 '가톨릭 환경상'을 시상하는 등 환경문제에 대한 성찰과 해결책 모색을 목적으로 한다. 환경사목위는 본당 사목위원 등을 대상으로 하는 생태교육과 생태사도직 활동가 양성을 위한 '생태영성학교', 생태 관련 주제를 논의하는 '가톨릭 에코포럼', 어린이집과 유치원 교사를 위한 '유아생태교육' 등 생태적 가치관 확립을 돕는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특히 2015년 6월 18일 프란치스코 교황이 가톨릭 역사상 최초로 환경에 관한 회칙을 발표하며 변화를 주도했다.

최원형 불교생태콘텐츠연구소장은 "가장 중요한 건 교육이다. 불교계는 이를 대신해 캠페인을 자주 전개하곤 하는데 이마저도 1회성으로 끝나는 일이 많다"며 "강의를 해보면 스님들이 심각성을 몰랐던 것이지 관심이 적진 않았다. 교육 기회가 늘어날수록 변화의 가능성이 크다"고 설명했다.

다행히 조계종서는 2019년도부터 환경에 대한 대중의 인식을 높이기 위해 환경관련 교육과정을 신설할 계획이다. 먼저 조계종 교육원은 '환경생태문제 불교가 답하다'라는 주제로 승려연수교육을 8월 12~14일 공주 한국문화연수원서 2박3일간 실시한다. 또한 포교원은 디지털대학에 환경관련 동영상 정규강좌를 필수심화과정으로 제공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불교환경의제 참된 실천을

전문가들은 교육과 더불어 10여 년 전 공의를 모아 선포한 '불교환경의제21'의 구체적인 실천방안을 모색할 것을 주문했다. 불교환경의제21은 2003년 4월부터 3년간 워크숍과 토론회 등을 거쳐 2006년 9월 제정됐다. △불교환경 기본의제 △환경친화적인 생활과 수행 △생태사찰 만들기 △수행환경 지키기 △사찰과 지역공동체 등 5개 분야로 구분된다. 의제에는 31개 행동목표와 종단 179개, 사찰 133개, 사부대중 110개의 행동계획을 담았다. 종교계 최초의 환경의제로 당시에는 불교환경사상을 구체화했다는 평가를 받았지만 시간이 흐름에 따라 수면 아래로 가라앉았다.

전문가들은 원인을 '실천주체의 자각 부족'으로 꼽고, 사문화된 의제를 되살리기 위한 활동에 종단이 나설 것을 당부했다. 아래로부터의 변화

불교계 환경운동 확산 한계
교육 부족에 원인 가장 커
환경교육 필수로 전개해야

사문화된 불교환경의제21도
구체적 실천 계획 마련하고
종단사업으로 뒷받침 필요

가 가장 이상적이라고 하더라도 사회문제에 수동적인 불자들이 체감하기 위해선 대대적인 환경종책 개선이 필요하다는 뜻이다.

유정길 불교환경연대 운영위원장은 "의제21은 변화를 도모하기 위한 거대한 지침이고, 주체단위가 동등한 비중과 책임을 갖고 참여해야 한다"며 "불교는 종단과 사찰, 불자 등 세 주체에 대한 강령을 정했지만 공표라는 목표에 과하게 관심이 집중됐다. 이후 실행계획이 제대로 세워지지 않아 문서작업에 그쳤다"고 진단했다.

이런 가운데 최근 조계종은 일반신도들을 대상으로 하는 환경관련 백서 편찬을 앞두고 있어 기대를 모은다. 조계종 환경위원회가 집필한 〈불교, 가장 아름다운 삶의 방식〉은 경전에 담긴 환경관련 이야기 소개, 불교에서 바라보는 환경, 생활 속 실천 방안 등을 망라한 것으로 알려졌다. 기존의 책과 달리 일반신도들이 어렵지 않게 읽을 수 있도록 저술한 점이 특징이다.

이외에도 지난 8월 ㈜한국동서발전과 '친환경 재생에너지 생산 MOU'를 체결하면서 국가 주요정책 중 하나인 재생에너지 생산과 보급에 일조할 것으로 예상된다. 아직까지 실무적인 논의는 이뤄지지 않았지만 총무원장 신년기자회견서 이 같은 성과를 바탕으로 환경관련 종책이 발표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조계종 환경위원회 위원장을 역임한 주경 스님(중앙종회 차석부의장)은 "불교계 환경운동은 대개 최소한의 수행과 기도환경을 유지하기 위한 행정적 역할에 머물렀다. 빈그릇운동이나 쓰레기 줄이기 등 소소한 활동이 있었지만 종단적 정책으로 추진됐다고 보기에는 미진함이 있다"며 "환경에 대한 종단 입장, 본말사를 비롯한 수행공간에서의 생활원칙, 불자 개개인의 구체적 실천방안 등이 제공돼야 한다"고 제언했다.

무엇을 할 것인가

불교계가 대대적인 환경운동에 나서기 위해 벤치마킹할 수 있는 사례는 원불교에서 찾을 수 있다.

원불교는 2016년 개교 100주년을 맞아 전국 교당과 기관에 태양광 발전소 100개를 설치했다. 이른바 '100개의 햇빛교당 건설'이다. 이는 2013년 원불교환경연대가 추진한 '둥근햇빛발전협동조합' 프로젝트에 힘을 싣기 위해 교단이 주요사업으로 정한 것이다. 어려움을 겪던 이 사업은 교단과 함께하면서 탄력을 받았고, 현재 600여 원불교 교당 중 약 15%가 동참한 셈이 됐다. 여기에 서울교구는 서울시와 에너지절약 MOU를 맺고, 앞으로 66개 모든 교당에 햇빛발전소를 올리는 '서울몽땅햇빛교당'을 선언했다.

이 같은 원불교의 햇빛교당 정책은 세계자연환경보전총회와 유엔기후변화총회, 기후변화 아시아시민사회 컨퍼런스 등에 초대되며 주목받았다.

서울대 환경대학원서 원불교 햇빛발전소 운동을 분석해 2017년 석사학위를 받은 정서영 씨는 자신의 논문에서 "원불교가 자체 교리를 바탕으로 재생가능에너지 사업을 추진했듯이, 다른 종교도 그 종교에 적합한 방식으로 하면 된다"며 "교리적으로 접근하면 교도들에게 설득력 있게 다가갈 수 있고, 확산의 가능성도 크다"고 밝혔다.

천주교 서울대교구도 2017년 원불교의 활동에서 착안해 서울시와 태양광 발전 확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교구 내 성당에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를 지원하고 있다. 아직까지 큰 성과를 내진 못한 것으로 알려졌으나 각 성당에 시간당 10kW 발전 규모의 햇빛발전 설비를 설치하고, 사제관과 교육관 등 부속 건물과 신자 가정에 미니태양광을 설치하는 방향으로 사업을 추진 중이다.

유정길 위원장은 "불교계에는 조계종 환경위원회가 구성돼 있지만 자문기구 성격이 짙다. 이를 실질적으로 활동하는 실행기구가 되도록 변화를 주고, NGO단체와 연대를 통해 실천사업을 추진하면 효과가 클 것"이라며 "각 교구본사에 환경위원회를 설치해 지역 환경운동 전개를 펼치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다"고 조언했다.



본지 550호(2005년 11월 2일자)에 실린 심민섭 화백의 '현대만평'이다. 이 만평은 13년의 세월이 지난 지금도 유효하다. 노력 끝에 불교환경의제21이 탄생했지만 풀뿌리 실천 노력은 여전히 미진한 셈이다. 실천으로 이끌기 위한 열쇠는 바로 '교육'이다.

불교계 계획들

'환경생태' 승려연수교육 신설
디지털대학 필수과정으로 개발
각 사찰 재생에너지 생산 지원





원불교 선사례

개교 100주년 햇빛교당 100개
600여개 교당 중 15% 참여해
서울시와 에너지 절약 MOU도

천주교 선사례

교황 가톨릭 최초 생태회칙 반포
활동가 양성하는 '생태영성학교'
어린이집 교사 대상 유아교육도



2019년 새해 福 많이 받으세요
대한불교 조계종 낙산사
조 실 설악 무산
사부대중일동

www.naksansa.or.kr
관음진신주처 관음성지 오봉산낙산사
■ 무산사(양양포교당)
· 낙산유치원
· 낙산사불교대학
· 템플스테이
· 강원파라미타청소년협회
■ 무산 복지재단
· 낙산요양원
· 노인복지센타
· 양양군노인복지관
· 무산지역아동센타
· 의상도서관
· 양양시니어클럽
· 아동청소년장학사업
강원도 양양군 강현면 낙산사로 100 Tel 033)672-2447~8 www.naksansa.or.kr

2019년 새해 福 많이 받으세요
"우리 모두가 부처님입니다."
대한불교조계종 제8교구본사
황학산 직지사
사부대중일동
경북 김천시 대항면 직지사길 95 www.jikjisa.or.kr
☎ (054)429-1700~3, 429-1713~15 Fax (054)436-3174


必 환경시대 & 그린 부디즘

사찰의 녹색화



Waste
- 관광객 교육 · 홍보 통한 쓰레기 줄이기
- 재활용 등 통해 친환경적 재문화 정립
- 사찰 내 쓰레기 시설들 개선 및 정비



Energy
- 단열이나 페시브하우스로 리노베이션
- 절전형 전기제품 사용 및 절전 생활화
- 태양광 · 태양열 등 재생에너지 활용



Education
- 현대적 환경 감수성 지닌 스님 양성
- 환경교육 교재 ·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 사찰서 친환경적 습관 실천하기 유도

녹색사찰 키워드 '에너지 · 생활 · 교육'

관광객 많은 만큼 쓰레기 발생
齋용품 소각 NO… 대안 찾아야
脫원전시대 신재생에너지 주목
절전 제품 사용 등 실천 필요

현대인들 환경 감수성 높아져
공감할 수 있는 교육 개발 필수

신성민 기자 motp79@hyunbul.com

사찰은 불교문화의 보고이자 불교의 성소(聖所)이고, 자연을 품은 자연유산이다. 이는 불교도 이외에 많은 일반인들이 사찰을 찾는 이유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의 방문은 사찰 환경 훼손을 야기하는 요소가 되기도 한다.

사찰 환경 훼손 내외부 요인은

전문가들은 일반적으로 사찰 환경 훼손을 내 · 외부로 분류한다. 외부적 훼손은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기업들이 추진하는 개발사업들이다. 해인사의 골프장 · 회룡사의 북한산관통도로 · 내원사의 고속철도터널 등이 대표적 사례다.

문제는 외부 개발에 대한 정보가 미비하다보니 계획 단계가 아닌 착공 단계에서 사실을 인지하고 대응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란 점이다. 전문가들은 사전에 사찰 지역에 대한 정보를 확인하는 작업이 필요하다고 조언한다.

이병인 부산대 교수는 조계종 환경위원회가 발간한 〈환경과 불교〉에서 "종단 및 본말사 차원에서 관련 소임 스님이 불자전문가가 직 · 간접적 이해가 있는 위원회의 위원으로 선임해 계획 단계나 그 이전에 적극 대응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설명했다.

내부적 요인은 사찰 관계자들의 무지와 무관심을 비롯해 △무분별한 내부불사 △관리 부실 △교육 부재 등으로 야기되는 경우다. 특히 사찰의 중흥을 위해 진행되는 대형불사와 많은 관광객에도 이뤄지는 부실한 관리는 시급히 해결돼야 한다는 지적이 많다.

이병인 교수는 "온전한 가르침을 이 세상에 꽃피우기 위해서는 외부뿐만 아니라 내부적으로도 개발로 인한 훼손은 없는지에 대한 되새김을 통해 진정한 사찰환경 보존에 관한 방향성과 주체성을 확립해 한다"고 주문했다.

생활 속 내부 훼손 줄이기

'녹색불교'를 지향하는 사찰이 되기 위해서는 생활 속에서 훼손 요인들을 줄여가는 노력이 필수라는 것이다.

우선적으로 살펴볼 것이 바로 쓰레기 배출 문제다. 조계종 환경위원회가 주요 25개 사찰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평균 상주인원은 일일 평균 51인이며 탐방객은 530인이었다. 평균 일반쓰레기 발생량은 3만9385g이, 음식물쓰레기는 1만8039g이 발생했고, 재활용쓰레기는 1만8419g이, 재(齋)쓰레기는 60g이 평균적으로 나왔다. 이를 환산하면 사찰 평균 1일 1인당 발생 쓰레기량은 1401g이다.

이는 우리나라 국민의 1일 쓰레기 발생량인 1040g보다 높은 수치지만, 상주 인원이 아닌 외부 관광객들이 발생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특히 탐방객들이 많은 사찰일수록 일반 가정 발생량보다 최대 3배 많은 쓰레기가 발생했다.

이병인 교수는 "사찰쓰레기의 효과적 관리를 위해서는 사찰 내부적 요소뿐만 아니라 사찰 외부적 요소인 탐방객에 대한 적극적인 대책과 관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크게 발생하지 않는 양이지만 재를 지낸 후 나오는 쓰레기들에 대한 관리도 필요하다. 적지 않은 사찰에서 재 쓰레기 중 망자의 유품을 무단으로 소각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망자의 유품을 재활용하고 재의식품을 소각 가능한 종이류로 대체하는 방안이 장려돼야 한다고 제언했다.

사찰에서 발생하는 음식물쓰레기와 생활하수는 '발우공양'이라는 불교 전통적 식생활 방식을 통해 적극적으로 해결이 가능하다. 이는 일반불자들이 가정에서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기도 하다.

최광수 경상대 해양환경공학과 교수가 서울 서초구 소재 불교 단체에서 이뤄지는 발우공양과 접시공양 이후 세척 수질을 조사 · 연구한 '불교 전통 식생활방식에 따른 수질오염 저감 효과'에 따르면, 발우공양은 하루 1L 내외의 적은 물이 사용됐다. 접시공양은 발우공양보다 1.8배 더 많은 물이 사용됐지만, 일반가정 하루 사용량인 32.6L의 1/19정도밖에 되지 않았다.

또한 오염부하량도 매우 적었다. 부유물질부하량의 경우 발우공양 오수는 가정 오수의 1/630밖에 되지 않았다.

최광수 교수는 "발우공양과 이에 대한 현대적 대안인 접시공양, 조리부산물을 재이용한 설거지 결합 방식은 수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낮은 친환경적 방법"이라고 평가했다.

신재생에너지로 녹색사찰을

이제 기후변화 문제로 인한 대안 에너지 개발은 세계적인 숙제이다. 여기서 단순히 개인주택이나 학교단위만이 아니고 지역단위의 에너지공급으로 관심이 이동되고 있다.

신재생에너지 도입은 불교계도 오래전부터 준비해왔던 과제다. 조계종은 2009년 환경위원회 산하에 신재생에너지 연구팀을 구성하고 연구를 진행해 왔다. 오랜 시간 연구와 학술 발표들이 이뤄졌지만 가시적 성과를 이루진 못했다.

대신 개별 사찰들을 중심으로 신재생에너지 도입은 이뤄지고 있는 상황이다. 가장 광범위하게 보급된 신재생에너지는 태양광, 태양열 에너지다. 월정사, 문빈정사 등에서 현재 태양광 에너지로 전기를 공급하고 있다.

태양열 에너지는 전력수급이 어려운 작은 산내 암자들에서 활용되고 있다. 설악산 영시암, 오세암, 봉정암, 아산 옥련암 등과 문경 봉암사 산내 암자인 백운암 등에 태양광발전기가 설치된 것으로 알려졌다.

유정길 에코붓다 대표는 사찰에서 신재생에너지 도입과 함께 에너지 누수를 막는 방안도 함께 고민할 것을 주문했다.

그는 "현재 목조 건축인 사찰은 문틈이나 벽 틈에 벌어져있어 단열이 안 돼 에너지 누수가 심하다. 철저한 단열이나 페시브하우스 형태로 사찰의 건축을 리노베이션해야 한다"며 "사찰 내부에서는 각종 절전형 전기제품의 사용토록 하고 사용하지 않는 전기나 에너지를 철저히 줄이는 생활실천을 습득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스님도 신도도 '환경보살'로

'녹색불교'로 나아가는 데 있어서 사찰은 종단과 신도, 일반인을 이어주는 '중계점'이란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다.

하지만 종단이나 사찰 내에서 소임 스님들과 실무자들의 환경적인 이해도는 상당히 부족하다는 지적이 많다. 세계적으로 '제로웨이스트'나 '비거니즘'이 유행하고 있지만, 이를 불교 환경 사상적으로 적용해 신도들을 교육시키거나 실천을 유도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대부분 일시적이고 일회성 행사에 그친다.

'녹색불교'로 가기 위한 선결과제는 현대적 환경 감수성이 있는 승가 인재 배출과 이들이 일선 사찰에서 신도들을 교육시킬 수 있는 체계적 교육프로그램들이 개발에 있다.

불교사회정책연구소 법응 스님은 "인간은 교육과 자각 없이는 행동 교정이 쉽지 않다. 그러므로 부처님의 가르침대로 사는 불자로 만드는 교육이 필요하다"며 "환경과 관련한 부처님 가르침을 발췌해서 도량을 장엄하고 스스로 지키며 교육을 통해 실천토록 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유정길 대표는 사찰 자체를 친환경적 교육장으로 만들어야 한다고 했다. 그는 "사찰에서부터 일회용품 · 비닐봉투 · 플라스틱 사용하지 않기를 실천하면 신도들은 교육되고 훈습된다"면서 "정기적인 법회와 교육, 친환경적인 방생 등을 실천하며 신도들의 삶도 변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必 환경시대 & 그린 부디즘

불자의 녹색화

‘지나친 편리함’ 올해엔 내려놓자

김지원 기자 jayjace@hyunbul.com

미세먼지 재난경보, 비닐 · 플라스틱 쓰레기 수거 대란, 일회용 컵 규제 · 단속 시행 등. 올해 불자들은 일상 속 환경문제들을 체감했다. 친환경에 대한 인식 및 중요성이 그 어느 때보다 삶 가까이 놓여있다. 불자 스스로 자신의 소비활동을 점검하고, 전환하는 일에 적극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불자 소비활동 녹색화

그린 부디즘의 세 번째 실천주체는 ‘불자’ 다. 불자의 녹색화는 곧 생활양식의 녹색화를 뜻한다. 생활양식은 일정한 가치관이 반영된 소비활동으로, 의 · 식 · 주 전반을 포함한 개념이다.

불교환경연대 상임대표 법일 스님은 “환경운동의 첫걸음은 거대담론이 아닌 ‘내 삶’을 살피는 일부터”라며 “생명살림을 위한 최고의 방법은 생활 속 불편함을 감수하는 일이다”고 말했다.

2017년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이 실시한 국민환경의식조사에 따르면, 국민 가운데 78.6%가 ‘환경보전은 개인에게 중요하다’ 고 응답했다. 하지만 친환경적 생활을 실천하는 동기 및 장애물을 묻는 문항에서는 ‘내 생활습관을 좀 더 친환경적으로 바꾸는 것이 쉽지 않다’ (3.45/5점) ‘다른 사람들도 같이 하지 않는다면 나 혼자 환경보전을 위해 노력해도 소용이 없다’ (3.24/5점)에 각각 ‘보통 이상’ 이라고 응답했다.

불자들도 마찬가지인 상황이다. 이들 역시 녹색실천에 대한 필요성은 인식하고 있지만, 기존의 생활양식을 친환경적인 방식으로 전환하는 일은 유보한다. 전문가들은 개별 불자의 자가점검 및 성찰을 통해 생태친화적 삶을 일상화하는 일이 선결과제라고 봤다.

불교사회정책연구소장 법응 스님은 “삶 속에서 환경을 해치는 과욕적인 행위를 자발적으로 배척해야 한다”며 “불자 스스로 환경보살이라는 사명감을 갖고, 지금 할 수 있는 손쉬운 일부터 실천해 몸에 배도록 익숙해질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생활양식 전환 대중화

불교 시민사회단체들은 친환경적인 생활양식으로의 전환이 불교계율의 실천과 다름없기에 녹색실천을 신행생활의 일환으로 여겨야한다고 입을 모았다. 최원형 불교생태콘텐츠연구소장은 “사실 환경문제는 부처님가르침처럼 한 번 제대로 이해한다면 그렇게 살지 않고는 견딜 수 없어야 한다”며 “불자들은 지금부터라도 원인을 제공한 당사자로서 책임을 통감하고 대안적 실천에 나설 필요가 있다”고 짚었다.

시민사회단체들은 이를 위해 ‘적당히 불편한 삶’에 대한 메시지를 반복적으로 전달 중이다. △사찰생태연구소 △불교환경연대 △인드라망 생명공동체 △(사)에코붓다 △시민모임 숲과 에너지 △불교생태콘텐츠연구소 △광주전남불교환경연대 △(사)맑고향기롭게 등은 생활양식 전환운동을 이끌어가며 다양한 캠페인으로 불자들의 관심과 참여를 불러일으키는 역할을 하고 있다.

유정길 불교환경연대 운영위원장 · 에코붓다 이사는 “일련의 캠페인들을 전개하면서 일단 실천을 시작한 개인은 동시에 다른 활동도 함께 실천하려는 경우가 많았다”며 “친환경적인 생활은 고뇌하며 결단한 소수만의 삶이 아니라 모두가 손쉽게 선택할 수 있는 삶이란 것을 일깨운 데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불교환경단체들은 종교적 가르침을 기반으로, 불교 전통방식을 현대화한 환경실천운동을 시도했다. 정토회 환경전문기구인 에코붓다의 쓰레기제로운동, 빈그릇운동 서약 캠페인과 불교환경연대의 텀블러사용캠페인 등이 대표적이다.

식사 · 쇼핑 · 교통 · 쓰레기 등
일상생활 속 실천 습관화 위해
신행 일환으로 자기선언 필요

불자 유인할 프로그램 개발 필요
당장 시작 가능한 녹색강령 6가지
환경정책 수립 견제 역할 기대

특히 발우공양 정신에 입각해 음식물쓰레기를 없애자는 빈그릇운동은 대중화 성공사례다. 해당 운동은 종교계, 학교, 군대, 기업, 지자체 등 170만 명의 동참(2007년 12월 기준)을 이끌어냈다.

빈그릇운동 캠페인의 성공요인은 계몽(교육)과 실천 2단계가 아닌, 자각-자기선언-실천의 3단계였기 때문이라고 보는 입장도 있다. 유정길 위원장은 “해당 캠페인은 서명과 함께 1000원을 기부하도록 하는 서약운동”이라면서 “기금의 1/2은 환경운동에, 나머지 1/2은 굶주림에 허덕이는 빈곤국에 지원할 것을 공표한 것이 동참자들의 행동 동력으로 작용했다”고 분석했다.

다양한 캠페인모델을 시도하면서 저변 확대의 가능성은 확인했지만, 일시적인 신드롬에 머물러 문화로 자리 잡지 못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개별 불자들의 지속적인 관심을 불러일으키기 위한 아이템 발굴이란 과제도 남아 있다.

환경부의 ‘종교사회단체들의 환경활동 활성화에 관한 연구’ 에 따르면, 캠페인 차원의 활동은 한시적인 특성 탓에 최소 신앙공동체 구성원들의 호응을 이끌어낼 수 있는 수준의 기획력이 뒷받침돼야 한다. 즉 종교적 상징과 의례, 예술을 활용함으로써 불교 고유의 특성이 가미된 캠페인 아이템을 꾸준히 개발하는 것이 유인책이 될 수 있다.

개별 불자들을 향한 당부의 목소리도 높다. 이병인 부산대 바이오환경에너지학과 교수는 “불자들은 일회성, 한시적인 행사를 통해 환경캠페인을 참여하고 접했지만, 실생활에서의 실천은 미약한 경우가 많다”며 “실생활의 불편을 감수하는 불자들의 행동력이 뒷받침돼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이는 불자들의 실천범위를 사회참여 영역으로 넓히자는 제언으로 이어진다. 유 위원장은 “미세먼지가 심한 날, 마스크를 쓰고 공기청정기를 활용하는 것도 분명 필요하다. 개인 보호와 환경보호활동이 동시에 이뤄지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며 “평상시 녹색실천을 시작했다면 대기오염물질 저감을 위한 정책을 마련하는지 감시하고, 관련 후보에 투표하는 등 중장기 계획까지 나아가야한다”고 말했다.

환경보살로 사는 삶

불교인은 생활 전반에 걸쳐 오계(五戒)를 실천하고 있다. 오계를 ‘갖추어서 지닌다’ 고 표현하는 것 역시 행동과 가치관을 아우르는 습관화를 강조하기 때문이다. 불교의 수행법은 ‘행주좌와(行住坐臥)’ 란 표현을 통해 모든 일상생활 속에서 실천하는 것을 강조한다.

불교 환경 · 신행단체들은 녹색실천 수칙들을 정해 수지한다. 대한불교청년회는 2000년 제19차 전국불교청년대회서 △물 아끼기 △음식물 남기지 않기 △대중교통 이용하기 △모피 옷 안 입기 △사후 화장하기 등 환경오계를 발표한 바 있다.

정토회 역시 ‘적게 먹고 · 입고 · 쓰는 소박한 삶’ 을 위한 수칙을 정해 지키고 있다. 불교환경연대의 에너지다이어트 가이드북을 제작해 목표량을 설정, 점검할 수 있도록 배포했다. 정토회 수칙에는 △빈그릇 △텀블러(자기 컵) △휴지대신 손수건 △뒷물수건 △물 받아 쓰기 △장바구니와 대안주머니 △캔 등 일회용품 미사용 △플러그 뽑기 △냉난방 적정온도(여름 28도, 겨울 20도) 유지 △음식물쓰레기 퇴비화 △재활용품 분리배출 △물건 아껴쓰고 나눠쓰기 등 12항목이 포함돼 있다.

유 위원장은 “자발적인 불편함은 이제 불자 스스로가 구체적인 신행생활로 실현하면서 확산하고 정착해야 한다”며 “불자 환경5계인 소중하게 모시는 삶, 단순 소박한 삶, 적당히 불편한 삶, 천천히 사는 삶, 수행하며 나누는 삶을 사는 서원을 다짐하자”고 당부했다.



2019년 새해 福 많이 받으세요
대한불교조계종 제16교구본사
고운사
조실 현봉 근일
주지 법산 자현
대학원장 등현
총무국장 성오 기획국장 등목
교무국장 운담 재무국장 구견
사회국장 도선 포교국장 등안
호법국장 혜산
의성군노인복지관 관장 휴담
영주장애인복지관 관장 도선
연화마을 시설장 구견
안동청소년문화센터 관장 최유형
안동장애인복지관 관장 변만호
고운노인요양원 원장 정명관
의성지역자활센터 센터장 김옥희
사부대중일동
화엄문화템플관(템플스테이) : 프로그램형, 상시형, 휴식형 / 언제나 누구든지 템플스테이 ····· 054)833-6933
사찰음식체험관 : 사찰음식강의 / 청국장, 두부 만들기 체험 / 사찰음식체험 ····· 054)834-2324
화엄승가대학원 : 매월 첫째주 토요일 신묘장구대다라니 철야정진 ····· 054)832-6936
경북 의성군 단촌면 고운사길 415(구계리 116) | www.gounsa.net
전화 054)833-2324 | 팩스 054)834-6935 | 사찰음식체험관 054)834-2324

2019년 새해 福 많이 받으세요
유가종찰.미륵성지
대한불교조계종 17교구본사
모악산 금산사
조실 태공 월주
회주 금산 도영
주지 자산 성우
부주지 월강 일원
총무 원혜 사회 효진
기획 화평 호법 덕림
교무 응묵 포교 석초
재무 여찬
신도회장 이근재 외 사부대중 일동
전주 혁신도시 전법도량 수현사
전북 김제시 금산면모악 15길 1
Tel. 063)548-4440~2 Fax. 063)548-1390
www.geumsansa.org
부설 전북불교회관 서원노인복지관 룸비니 어린이집
전주혁신도시 전법도량 수현사

必 환경시대 & 그린 부디즘

‘그린 부디즘’ 현장을 가다

‘즐거운 불편’이 시방세계 바꾼다

녹색사찰 1호 고양 금륜사

사찰행사서 일회용품부터 없애
어린이 환경장학금 마련 계획

고양=윤호섭 기자 sonic027@hyunbul.com

어느 분야에서나 ‘1호’가 갖는 의미는 남다르다. 국보 1호 숭례문, 국산차 1호 포니, 국내 최초로 우주에 간 위성 우리별 1호까지. 수많은 곳에서 수많은 사람과 단체, 물건에 1호가 붙지만 현재 불교환경운동과 관련해 가장 의미 있는 1호는 바로 ‘녹색사찰 1호’다. 원불교 햇빛교당, 개신교 녹색교회에 비하면 아직 몇 안 되는 녹색사찰이지만 이 사찰들이 신도들과 함께하는 환경운동은 소소하면서도 불편을 즐길 수 있는 뜻 깊은 가치를 담고 있다. 지난여름, 불교환경연대와의 협약을 통해 최초의 ‘1회용품 안 쓰는 녹색사찰’로 지정된 경기도 고양 금륜사(주지 본각)를 살펴봤다.

구랍 22일, 동지법회로 전국사찰이 팥죽 준비에 여념 없던 날 금륜사를 방문했다. 금륜사는 지난 7월 8일 불교환경연대 녹색사찰 1호로 선정됐다. 평소 사찰 행사에서 1회용품을 사용하지 않기 위해 노력한다는 입소문이 퍼지며 불교환경연대의 ‘1회용품 안 쓰는 녹색사찰’ 협약으로 이어진 것이다. 금륜사는 앞서 부처님오신날 신도들에게 나눠줄 떡을 비닐 대신 뻥튀기 과자 사이에 담아 주면서 화제가 된 바 있다.







① 금륜사 주지 본각 스님이 동지법회가 끝난 뒤 대중에게 팥죽을 나눠주며 팥죽용기에 적힌 ‘금륜사 회수용’ 문구를 가리키고 있다. ② 공양간에서 재사용 가능한 용기에 팥죽을 담아내는 신도들. ③ 금륜사 1층 북카페에는 종이컵이 없다. 신도들은 머그컵을 사용하고 설거지한다.

“환경 맑아야 생명도 행복”

과연 동지법회는 어떨까. 점심공양을 앞두고 금륜사 공양간부터 들여다봤다. 공양간에는 신도들이 소맷자락을 걷어붙이고 이른 아침부터 준비한 팥죽이 여러 대야에 한가득 담겨 있었다. 그리고 한쪽에서는 법회가 끝난 뒤 대중에게 나눠줄 팥죽 담기로 분주했다. 그 중에서 가장 눈에 띈 것은 팥죽을 담는 용기였다. 가정에서 사용하는 반찬통과 같은 것으로 일회용이 아닌 얼마든지 재사용 가능한 통이었다.

팥죽을 담던 한 신도에게 일회용기는 없는지 묻자 “아직까지 모든 용기를 교체하진 못했지만 내년에는 전부 새 것으로 바꿀 예정이다. 지금은 반찬통처럼 계속 재사용이 가능한 용기와 다회용 플라스틱 용기를 함께 쓰고 있다”며 “용기에 ‘금륜사 회수용’을 적어 집에 가져간 신도들이 다시 반납하도록 한다”고 설명했다.

동지법회가 끝나고 대중은 각각 용기에 담긴 팥죽을 비닐도 없이 자연스레 손에 들거나 가방에 넣었다. 많은 사찰이 행사 이후 신도들에게 물건을 나눠줄 때 으레 비닐을 사용하는 것과는 전혀 다른 모습이었다. 주지 본각 스님에게 사부대중이 함께 1회용품을 쓰지 않게 된 배경을 물었다.

“어느 날 사찰에서 나온 쓰레기를 살펴보니 우리가 편리함을 추구하면서 발생한 것들이 대부분이더군요. 경전에서는 우리 생명도 중요하지만 생명이 의지하는 환경도 똑같이 중요하다고 강조하는데 말이죠. 우리가 의지해 살아가야할 환경이 맑으면 그곳에 머무는 생명도 자연스레 행복해지는 법이잖아요? 그래서 경내에서 종이컵부터 없애고 법문시간마다, 1회용품이 눈에 띌 때마다 강조했습니다.”

본각 스님은 사찰이 환경지킴이로 거듭나기 위해 종이컵, 비닐, 페트병 등을 사용하지 않도록 권장했다. 다행히 신도들은 이를 적극 받아들이면서 한 발 더 나아가 일회용품 대체방안이 무엇인지 머리를 맞대 고민하기 시작했다. 그 결과가 바로 앞서 언급한 뻥튀기 과자로 이어진 셈이다. 이후 성지순례를 갈 때는 버스에 페트병 대신 스테인리스 대형물통을 싣고 이동하고, 얼마 전 국수잔치서도 스테인리스 그릇과 수저 등을 썼다. 일회용품에 비해 설거지와 물품관리 등 신경 쓸 일이 늘어나지만 나만이 아닌 모두를 위한 노력이다.

이외에도 금륜사는 신도들에게 평소 빈 통을 하나씩 들고 사찰에 방문하라고 당부한다. 사찰 특성상 떡이 많아 이를 신도들에게 나눠주기 위함인데 여기에도 환경을 생각하는 마음이 담겼다. 금륜사는 빈 통을 미처 가져오지 못한 신도들에게는 1000원을 받고 그릇을 빌려준다. 이 돈은 1년간 모아 어린이청소년법회에 참석하는 아이들이 환경운동을 실천했을 때 주는 환경장학금으로 사용할 계획이다. 금액은 크지 않지만 아이들이 자신의 활동에 자부심을 느낄 수 있도록 격려하는 방편이 된다.

물론 신도들은 빈 통을 가져왔다가 떡이 없어 아무것도 담아갈 수 없는 상황도 겪는다. 이럴 때 본각 스님은 “떡을 가져갈 수 있으면 얻어가는 게 있어서 좋고, 무엇도 담지 못하면 내 번뇌망상을 없애 깨끗하다고 생각하라”고 조언한다.

사찰활동, 가정으로 이어져

금륜사는 일회용품을 사용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재사용 가능한 물품을 다시 쓰는 데도 앞장선다. 대표적인 것이 ‘종이쇼핑백 수거’다. 신도들에게 가정에서 쓰다 남은 쇼핑백을 사찰로 가져오게 하고, 사찰에서 물건을 나눠줄 때 활용한다. 이 같은 활동은 사찰명이 적힌 쇼핑백을 기존보다 적게 제작하는 결과를 낳아 사찰재정에 도움이 되고, 사찰과 가정을 환경운동으로 잇는 교량 역할을 하게 했다.

신도들은 사찰에서 스님들이 환경운동을 강조하면서 자연스레 가정에서도 일회용품을 멀리하게 됐다고 입을 모아 밝혔다.

이순희(보덕행) 신도회장은 “주지 스님께서 오래 전부터 불자들이 환경을 중시하고, 지구를 깨끗이 하는 데 앞장서야 한다고 가르쳤다. 귀에 못이 박히게 듣다보니 사찰에서 일회용품을 쓰지 말자고 했을 때 받아들이기도 어렵지 않았다”고 소감을 전했다.

윤창기(혜공) 거사는 “금륜사가 일회용품을 쓰지 않는 사찰이지만 아직 미흡한 부분은 있다. 그래도 어른들부터 솔선수범 해주셔서 대부분의 신도가 뜻을 모아 하나씩 해결하고 있다”며 “이전까지 개인적으로 운전하면서 일회용컵을 많이 썼는데 요즘에는 쓰지 않는다. 처음엔 불편했지만 이젠 적응돼 괜찮다”고 웃으며 말했다.

이날 역시 주지 본각 스님은 법회가 끝나고 돌아가는 신도들에게 팥죽을 전달하며 용기에 적힌 ‘금륜사 회수용’ 문구를 손가락으로 가리켜 환경의 중요성을 다시 한 번 상기시켰다. 언제 어디서나 일회용품 사용을 자제하고, 환경을 생각하는 환경보살로 거듭나라는 당부다. 스님의 말에 “가슴에 새기겠다”고 답하는 금륜사 대중의 서원이 하나의 사찰이 아닌 전체 불교계로 전해지길 바란다.

환경정토 일구는 풀뿌리 운동

사찰 · 단체 실천할 환경운동 무엇 있나

길상사 ‘자판기와 설거지’

길상사는 2009년 자판기에서 일회용 종이컵을 없앴다. 대신 자판기 옆에 개수대와 자외선 소독기를 설치하고, 스테인리스컵을 마련했다. 종이컵을 쓰지 않으면서 각자 사용한 컵은 스스로 설거지해 환경을 돌보자는 취지다. 이 운동은 법정스님의 뜻을 따라 조직된 불교시민모임 (사)맑고향기롭게가 주도했다. 다만 겨울에는 수도 동파 문제가 발생해 봄~가을에만 활용된다.

길상사는 이외에도 북카페 ‘다라니다원’에 일회용품을 들이지 않았다. 그래서 카페를 찾는 이들은 커피를 테이크아웃(take-out) 할 수 없다. 또한 불자들은 헌옷을 리폼해 가방 · 앞치마 · 조끼 등을 만들어 녹색장터를 열고, 수제품을 판매하기도 한다.

한마음선원 ‘EM의 생활화’

한마음선원은 2000년대 초부터 신도들과 함께 비닐 대신 시장바구니 사용하기 운동을 전개했다. 이뿐만 아니라 환경중시 포스터를 직접 제작해 전국지원에 배부, 불자들이 환경운동의 중요성을 느낄 수 있도록 홍보하고 있다. 특히 EM(Effective Microorganism)을 활용한 쌀뜨물 발효액으로 공양간 설거지를 하는 한편, 매월 1 · 3주 일요법회에 대중이 만들기 체험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무엇보다 한마음선원 EM활동이 알려지면서 학교와 동사무소 등 다양한 기관단체서 직접 제작하는 방법을 문의하는 성과로 이어지고 있다. 이와 함께 어린이법회서도 지속적으로 환경교육을 실시하는 것으로 전해진다.

정토회 ‘환경활동 기본소양’

법륜 스님이 이끄는 정토회는 환경활동을 정토행자의 기본소양으로 본다. 이미 오래 전부터 빈그릇운동을 성황리에 전개하고, 쓰레기제로 운동과 지렁이를 이용한 음식물 줄이기 등 다양한 방법의 환경운동을 펼쳐왔다. 1990년부터 환경운동을 전문활동으로 전환한 뒤, 1994년 6월 환경이념 보급과 실천을 전문적으로 담당하기 위해 ‘한국불교교육원’을 구성했다. 이후 시민들의 생태교육과 환경활동가 워크숍을 통해 활동가들의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적게 먹고, 적게 입고, 적게 자는 소박한 삶의 운동을 실천하고 있다.







김경집의
사찰 속 숨은 이야기

① 진관사에 전해지는 왕조의 명암

죽음 앞에 통치 이념도, 왕의 위신도 없었다

진관사 처마에 걸린 일몰. 처연한 고려왕조의 마지막을 떠올리게 한다.

서울의 불교문화

경주와 개성 그리고 서울은 왕조의 수도였다. 그런 인연으로 어느 곳보다 많은 사찰이 세워졌다. 불교의 역사와 문화가 가장 풍성한 곳은 경주이다. 삼국유사에 전해지고 있는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불교박물관이다. 고려의 수도였던 개성 역시 많은 불교문화가 존재하지만 갈 수 없어 후일을 기약한다. 두 곳과 비교할 수 없지만 조선의 수도 한양 역시 제법 많은 불교의 역사와 문화를 간직하고 있다.

서울에 현존하는 사찰은 어림잡아도 수백 곳이 넘는다. 곳곳마다 사연을 품고 있다. 대상이 많으면 선택해야 한다. 그 기준은 역사와 사연이다. 이제 진관사를 시작으로 서울의 사찰 속에 숨은 이야기를 찾아보자.

고려 제 8대 현종과 진관사

고려 8대 임금 현종의 탄생과 어린 시절은 평탄하지 못했다. 태조는 호족을 회유하기 위해 정략결혼을 한 까닭에 배우자만 29명이었다. 그들이 낳은 자식이 25남 9녀였다. 대업을 이루었으니 정략결혼은 성공한 정책이라 말할 수 있으나 후유증도 그만큼 컸다. 외척들은 주도권을 쥐기 위해 암투를 벌였다. 왕권을 유지하기 위해 태조의 이복 남매끼리 결혼하는 일도 다반사였다.

제5대 경종의 3, 4번째 부인은 자매로 대종 욱의 여식이며 성종의 누이였다. 언니는 경종이 살아있을 때 아들을 낳았다. 그러나 어릴 때 경종이 죽어 왕위를 계승하지 못하고 대종 욱의 아들이 6대 성종이 되었다. 왕자가 없던 성종이 죽자 경종의 아들이 7대 목종이 되었다. 그를 낳은 어머니는 천추태후가 되어 권력을 휘둘렀다.

경종이 죽은 후 집에서 지내던 동생은 안종 욱과 사랑에 빠져 아들을 낳았다. 그가 8대 현종이다. 어머니는 산고로 죽고 아버지는 왕의 부인과 사통한 죄로 귀양을 갔다. 혼자 남은 현종은 궁중에서 양육되었다. 비록 정상적인 혼인관계에서 출생하지 못했지만 부모가 모두 왕족이고 어머니가 성종의 여동생이었기 때문이다.

목종의 어머니 천추태후는 현종을 못마땅하게 여겼다. 강제로 출가시켜 북한산 신현사(神穴寺)로 쫓아버리고 자객을 보내 살해하려고 하였다. 이를 눈치 챈 진관대사가 자신의 방에 굴을 파고 숨긴 덕분에 목숨을 유지할 수 있었다.

어렵게 목숨을 유지한 그는 1009년 2월 목종이 강조에 의해 폐위되자 18세의 나이로 왕위에 올랐다. 현종은 자신의 목숨을 구해준 진관대사를 위해 사찰을 창건하고 머물게 하였다. 그곳이 지금의 진관사이다. 그 후 고려왕조는 현종의 후손들로 계승되었으니 아마도 이곳은 고려왕조를 위한 길지였던 모양이다.

새로운 민심을 위한 진관사 수륙재

왕조 교체에는 불가피한 희생이 따른다. 가장 많이 피해를 본 것은 역시 고려의 왕족이다. 태조는 즉위 3일 만에 사헌부의 주청으로 왕씨 일족을 강화도와 거제도 두 섬으로 내몰았다. 그 과정에서 죽은 왕족들이 수없이 많았다.

조선의 건국에 동조하지 않은 고려의 관리도 희생되었다. 두 임금을 섬기지 않는 신념 때문이었다. 개성 광덕산 두문동에 들어간 72명을 회유하기 위해 불을 질렀지만 끝내 나오지 않고 죽음으로 절개를 지킨 일이 대표적이다.

새 왕조에 반기를 들었다가 희생된 경우도 있었다. 태조 3년(1394) 고려 왕조에서 관리를 지낸 사람들이 반란을 도모하였다. 사전에 발각되어 화를 면한 태조는 신하들의 주청에 따라 그들을 처벌하였다.

고려 왕족과 관리의 처벌은 잔혹하였다. 이를 지켜본 대중들은 저항할 수 없었지만 희생자에게 연민의 정을 보냈다. 이런 민심을 달래는 것이 조선왕조의 숙제였다. 죽은 망자를 위한 천도재가 제격이지만 유교를 국시(國是)로 삼은 탓에 불교를 내세우기 어려웠다. 그러나 유교의 내세관은 죽은 망자를 위로하기 역부족이었다. 결국 선택은 불교였다. 수륙재를 설행하여 물과 뭍에서 희생된 무주고혼을 위해 불법을 강설하고 음식을 베풀어 민심을 얻으려 하였다.

태조 4년(1395) 2월 천마산 관음굴, 삼척 삼화사, 그리고 거제에 있는 견암사에서 수륙재가 설행되었다. 이후 봄과 가을 수륙재 설행을 항식으로 삼았다. 그런데 이곳은 도성과 멀었다. 희생자를 관대하게 대하는 모습으로 새로운 왕조에 대한 지지를 얻으려는 여론 형성이 어려웠다. 고려 왕조와 멀지 않으며 새로운 왕조와 가까운 곳이 필요하였다. 한양에서 개경으로 가는 길목에 있는 진관사가 제격이었다. 이런 의도로 태조는 6년(1397) 1월과 9월 진관사를 방문하였고, 7년(1398) 1월 이곳에서 수륙재를 지냈다.



진관사 수륙대재 시연회 모습.

잔혹한 고려의 왕족 처벌
민심 달래려 수륙재 거행
아들 죽자 왕도 직접 행차

수륙도량의 모습과 이전 논의

배불정책을 본격적으로 실시한 태종이었지만 즉위하면서 1월과 10월 진관사에서 수륙재를 지냈다. 그러나 다른 곳으로 이전할 생각도 있었다. 권근이 지은 〈수륙사조성기(水陸社造成記)〉를 보면 즉위 6년 정월에 내신 이득분과 승려 조선(祖禪)에게 다른 곳을 찾아보도록 명하였다. 나라 일을 하다 운명하였지만 제사지낼 이가 없어 저승길에서 굶주리는 자들을 위해 수륙재를 베풀어 중생을 이롭게 하고 싶은 마음이었다. 이득분과 서운관 상충, 양달, 그리고 승려 지상(志祥) 등이 삼각산에서 도봉산까지 여러 절들을 살펴보았다. 그러나 진관사만큼 좋은 데가 없자 이곳에 수륙도량을 설치하도록 명하였다.

내신 김사행을 비롯하여 대선사 덕혜, 지상 등이 승려들을 모아 공사를 시행하였다. 태종은 2월 친히 왕림하여 세 단의 위치와 차례를 정하였다. 3월에도 또 행차하였다. 공사는 9월에 끝났다. 세 단은 모두 3칸씩 집을 지었다. 중단과 하단 좌우에 각각 목욕실 3칸을 두었다. 하단 좌우에는 따로 조종의 영실(靈室) 8칸씩을 설치하였다. 대문, 행랑, 부엌, 곳간 등 시설되지 않은 것이 없었다. 모두 합하여 59칸이지만 사치하지도 않고 누추하지도 않았다.

태종은 14년(1413) 지금까지 거행되던 곳에다 오대산 상원사를 추가하였다. 그리고 왕명으로 매년 2월 15일에 행하던 것을 이후 정월 15일에 개최하도록 하였다.



당시 왕의 거행을 재현한 진관사.

진관사 수륙도량은 세종 때 이전 논의가 있었다. 31년(1449) 4월 진관사의 샘물이 불결하고 또 땅이 좁아 수륙재를 국녕사로 옮기자는 것이었다. 수륙사를 포함하여 사찰 전체를 수리하려면 많은 재목과 기와를 운반하여야 하는데 도로가 좁고 험하여 어려움이 많았다. 그에 비해 영국사는 지세가 시원하고 정결하며 물이 맑고 깨끗하였다.

이런 논의에서 예조판서 허후는 태조가 설치한 것이라 다른 곳으로 옮기는 것은 옳지 않다고 하였다. 그 의견에 세종은 처음부터 조선왕조를 위한 것이 아니라 고려왕조를 위한 것이므로 옮기지 못할 이유가 없지만 갑자기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므로 불교계 고승과 협의하라 하였다. 5월에 다시 중신들과 논의하여 영국사로 옮기는 것보다 진관사를 수리하는 쪽으로 정하였다.

강력한 군주 태종도 마음 약한 아버지

조선은 유교를 국가이념으로 세웠지만 오랜 시간동안 민중들의 생활에 자리한 불교신앙을 하루아침에 없애기 어려웠다. 종묘를 지어 왕과 왕후를 제사지냈지만 마음 속 깊이 잠재해 있는 극락왕생에 대한 염원은 불교에 의지할 수밖에 없었다.

왕위에 오르기 위해 많은 정적을 죽이고, 강력한 배불정책을 펼친 태종이었지만 그 역시 개인적인 어려움은 불교에 의지한 아버지였다. 18년(1418) 3월 넷째 아들 성령대군이 죽자 변계량에게 사제의 교서를 짓게 하고 진관사에서 수륙재를 베풀었다.

"아아! 슬프다. 이에 유사(攸司)에 명하여 너의 직질을 높이고 너에게 시호를 주어 은수의 융성함을 상례보다 다르게 한다. 이제 근신을 보내어 진관사에서 수륙재를 설치하여 명복을 빌고, 또 치부하고 제사하여 말로써 권하여 음향하게 한다. 아아! 말에는 다함이 있으나 정(情)에는 끝이 없는데, 너는 그것을 아는가? 그것을 알지 못하는가?"

태종은 교서를 반쯤 읽다가 자신도 모르게 흐느껴 울었다. 끝까지 읽지 못하고 물리면서 나의 정의(情意)를 다하였다고 스스로 위안하였다. 강인한 군주였지만 자식의 죽음 앞에는 어쩔 수 없는 아버지였다.

그 후 진관사에서 태조, 정종, 태종, 세조와 그의 장남, 그리고 성종의 49재를 지냈다. 또한 조선 초 많은 왕비의 49재 역시 이곳에서 지냈고, 그들의 기신재가 지내졌다. 그 후 연산군 때 수륙재를 설행하며 선대의 왕과 왕후를 위해 향축한 것을 보면 이곳이 오래 동안 조선 왕실의 신앙처였음을 알 수 있다.

〈동산불교대학 사찰역사문화연구회 지도교수〉

김경집 교수는

동국대 불교학과와 동 대학 대학원을 졸업하고 위덕대 불교학부 겸임교수 등을 역임했다. 현재 진각대학교 교수로 재직 중이다. 한국불교학회, 한국불교학연구회 이사, 보조사상연구원 연구위원 등을 맡고 있으며, 주요 논저로 〈경허의 정혜결사(定慧結社)와 그 사상적 의의〉 〈근대불교의 기점과 개혁적 전개〉 등 60여 논문과 〈한국근대불교사〉 〈한국불교 개혁론 연구〉 〈역사로 읽는 한국불교〉 등 10여 권을 펴냈다.





궁극의 해답 제시, 불교는 코칭이다



남혜경의
Buddhist Coaching

① 최고의 코치, 붓다



그림 · 박구원

당신은 누구인가? 어떤 사람인가? 쉰내 나는 50대 중반에 들어서자 이 질문에 선뜻 답이 나오지 않았다. 명함은 이제 내려놓아야 할 처지고 나이 숫자를 꺼내봐야 뭔 소용일까. 누구의 엄마 자리는 소중하지만 그도 소임을 끝내간다.

젊었을 때는 능력 있고 멋진 사람이고 싶었다, 많은 이의 사랑을 받고 돋보이는 사람이 되려고 안달하며 살아 왔다. 이제는 남들의 평가에 상관없이 존재감을 깊이 느끼는 사람이 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 때 코칭을 만났다. 앞으로 누구로 살고 싶은지 코칭을 통해 내면을 들여다보았다. 미처 피어나지 못한 나를 끄집어내고 보니, 남들의 삶에 관심이 많고 관여하고 싶은 오지랖 넓은 사람이었다. 주변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면 신바람이 나는 유형이었다.

함께 걸으며 질문하는 사람이 '코치'

처음 코칭을 할 때는 딸 세대 여성들이 존경하고 인정하는 선배여야 한다는 부담이 있었다. 대화를 나눠보니 그들에게 필요한 건 훌륭한 경험과 지혜에서 나오는 인생의 정답이 아니었다. 마음의 소리에 귀 기울여주고 기쁨과 슬픔에 공감하고 지지해주는 일이었다. 길을 함께 걸어가며 얘기를 들어주고 힘내라고 응원해주는 파트너면 충분했다.

코치는 옳은 길을 제시하고 정답을 가르쳐주는 사람이 아니다. 스스로 자신의 정답을 찾아가도록 격려하면서 미처 알지 못했던 내면을 들여다보도록 사유하는 질문을 던지는 사람이다, 함께 길을 걸으며 변화와 성장을 돕는 동반자다. 인간을 교정의 대상으로 보지 않고, 이미 온전한 존재여서 해답은 자신에게 있다고 믿고 지지하는 것이 코칭 철학의 핵심이다.

이런! 이거야말로 붓다의 말씀이 아닌가. 불교에서는 우리 모두에게 불성이 있으며 끊임없는 수행으로 각자가 될 수 있다고 하지 않는가.

게다가 붓다께서도 퍽이나 존재의 삶에 관여하고 싶어 하는 분이셨다. 경전이 세상에 나오게 된 것이, 붓다가 세상을 떠난 직후 한 스님이 "잔소리장이가 세상을 떠났으니 이제 좀 편하게 살겠다"고 하는 말을 가섭 존자가 들은 덕분이라지 않은가. 이러다가는 붓다라는 존재가 잊히고 말겠다고 걱정한 가섭존자가 붓다의 말씀을 모으기 시작했다는 글귀를 보고 나는 빙그레 웃었다.(이미령, 〈붓다 한 말씀〉)

불교의 질문식 사유는 코칭의 첫 번째 조건

붓다는 우리 모두를 진리의 길로 이끌고 싶어 한, 오지랖 넓은 각자였으며 코치였다. 붓다께선 최초의 설법을 하기 전에 망설였다고 한다. 당신이 깨달은 법은 너무 깊어서 얘기해도 알아들을 사람이 없으리란 생각에서였다. 가르침을 펴기로 하였을 때 붓다는 스스로 진리를 구하여 수행하던 과정에서와 마찬가지로 일반적인 교설의 태도를 피하고 상대가 스스로 이해하고 깨달을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을 택하였다. 경전에 담긴 붓다의 말씀은 결론식 대답이 아니라 질문식 대답이다. 대답을 하면서도 계속 질문을 해서 대답하는 사람을 생각하게 한다. 경전을 잘 모르는 사람이라도 그 속에 담긴 질문식 사유를 배운다면 그것만으로도 큰 깨달음을 얻는다.

코칭도 불교와 같이 궁극을 향한 질문을 던진다. 직업을 찾을 때, 어떤 직업이 월급이 많고 대접받는 좋은 직장인가? 라는 물음보다 자신에게 맞는 일은 무엇이며 하고 싶은 일은 무엇인가? 라는 물음이 지혜로운 인생을 위한 질문이라 할 수 있다.

코칭 철학은 불교사상과 많이 닮았다

깨달을 것도 얻을 것도 설할 것도 없다는 불가지 불가득 불가설(不可知 不可得 不可說)은, 깨달음이란 이미 우리 속에 있어서 새롭게 얻는 것이 아니며 숨겨진 것을 알아차리는 데 있다는 붓다의 말씀이다. 깨달음에 이르는 길은 많다. 불교는 깨달음에 이르는 길을 가는 모두를 관대하게 받아들인다. 이 역시 개인 각자가 선택한 길에 큰 의미를 부여하는 코칭 철학과 만나게 된다.

코칭이 여러 인접 학문에서 어떻게 진화하고 발전해왔는지 코칭의 역사와 기원을 연구한 비키 브룩 박사는, 코칭이 조화와 통합을 바탕으로 하는 동양철학에서 상당 부분 영향을 받았다고 말한다. 코칭이 현재를 살고 과거를 놓아주며 마음을 챙기고 결과보다 과정을 중요하게 여기는 부분은 특히 선불교의 영향을 받았다고 분석하고 있다.

물론 코칭은 합리성과 인본주의 서양철학에서도 여러 이론을 융합시켰지만, 불자로서 처음 코칭을 접했을 때 불교사상을 연구하지 않고는 세울 수 없는 학문이라는 느낌이 강하게 들었다.

코칭은 행동을 다루기에 앞서 우리가 어떤 존재가 되어 가느냐에 주목한다.

"좋은 코치가 되는 데 오랜 경험과 정교한 기술이 반드시 필요하지는 않다. 더 중요한 건 얼마나 헌신하는 자세가 되어 있냐이다. 헌신은 경험과 기술보다 신뢰하고 공감하는 존재의 깊이에서 온다." (게리 콜린스 〈코칭 바이블〉)

'존재'에 관심을 두고 인간을 긍휼히 여기는 자비야말로 불교의 출발점이다. 점점 많이 가지려는 탐욕이 지구의 종말까지 가져올지 모른다는 걱정 속에 삶의 태도를 바꾸자는 깨우침이 커지면서 '소유'보다 '존재'에 관심을 두는 불교의 삶이 크게 주목받고 있다. 코칭은 이 점에서 불교와 깊은 정신을 공유하고 있다.

선불교서 영향 받은 코칭
인본주의 서양철학과 접합
불교철학 영역 개척 기대

마음챙김 코칭은 특히 불교의 명상수행에서 곧장 빌려온 것이다. 마음을 바라보면서 무의식으로 행동하는 나를 자각하고 지금 여기에 몰입하자는 마음챙김은 판단하지 않고 대상을 그대로 관찰하는 알아차림에서 시작한다. 현재의 존재감을 느끼는 프레젠스(presence) 개념을 주요하게 여기는 코칭에서도 최근 마음챙김을 여러 갈래로 응용하고 있다, 주관과 편견의 세계를 내려놓고 객관화시키면서 주변의 모두를 투명하게 받아들이는 비판단 수용은 코칭에서 늘 강조하는 핵심 가치다.

내일을 위해 지금 무엇을 하고 싶습니까

며칠 전에 만 60세가 되었다. 말하자면 환갑이다. 이런!

지난달부터 예순 된 기념으로 여행을 다녀온다고 떠벌리고 다녔다. "내가 환갑이 되거든, 그래서 못 가본 스페인을 가보려고." "언제 60이 되었는지 못 믿겠어. 나를 위로하는 여행이나 가려고."

여행에서 돌아온 다음 날 새벽잠에서 깨어나자 문득 의문이 들었다. 예순이라는 나이를 감추려 하면서 환갑 여행을 광고하고 다닌 건 뭐지.

그날 오후에 대학 졸업반 학생들의 진로 코칭이 있었다. 자신이 정말로 하고 싶어 하는 일이 무엇인지 알고 싶다는 학생에게 코치로서 세 개의 질문을 던졌다.

하나는, 직업에서 얻으려고 하는 게 무엇인지.

둘째는, 첫 번째 답이 인생에서 어떤 의미가 있는지.

마지막으로 5년 뒤와 10년 뒤를 생각하면 어떤 모습이 떠오르는지.

그 학생은 잠시 숨을 고르고 높은 하늘로 올라가는 마음의 비행을 했다. 졸업을 했으니 취업을 한다는 수순에서 벗어나 먼저 원하는 삶의 모습이 어떠한지를 구체적으로 떠올리며 10년 후를 상상해나가기 시작했다.

누구와 함께 있는지, 무엇을 하고 있는지, 그때 자신의 표정과 말투는 어떠한지….

"코치님 미래의 상상여행은 처음이에요. 10년 뒤를 생각하니 지금 무엇을 해야 하는지 하나씩 떠오르네요."

그 학생과의 코칭 대화는 나에게도 아침의 의문에 답을 하게 했다.

맞아. 나는 60 고개를 넘는다고 소문내면서 인생에서 한 발 물러나려 한 거야. 나태하고 둔한 머리와 몸으로 남은 시간을 보내도 좋을 나이가 되었다고 주변에 외쳐대면서 자신에게도 허락을 구하고 있는 거지.

그렇다면 5년 뒤에, 10년 뒤에는 나는 어떤 모습이고 싶지?

지금 이대로 늙어 편안하고 무사한 하루하루를 보내면서 생이 다하기를 기다리고 있는 모습을 원하는 건가. 일흔이 되어 공원 벤치에 앉아 지나가는 젊은이들을 엿보면서 나도 저만할 때는 열심히 살았다고 변명하며 무탈한 날들에 감사하면서?

눈을 감고 미래를 그려본, 내 마음의 비행은 그건 아니라고 고개를 저었다.

매일 조금씩 깨우치고 성장하면서 가족과 이웃을 계속 사랑하고 그들에게 헌신하는 시간으로 하루를 채우기를 원하고 있었다. 예순 살의 생일은 살아온 날들에 단지 감사하며 안락을 구하는 축배의 이벤트가 아니라 깨우침의 새로운 날로 채워갈 다짐의 자리여야 한다.

그 다짐의 하나로, 불자로서 코치로서 어떤 길을 가야 할지 붓다에게 물어보고자 한다. 이미 들켰겠지만 불자로도 코치로도 내 수행은 많이 부족하다. 이 글을 연재하면서 코치로서 던지는 물음과 답을 붓다의 말씀과 지혜에서 찾아볼 생각이다. 나의 코칭 고객들이 들고 오는 이슈는 관계에서 오는 집착과 갈등, 탐욕과 절제의 어려움이 가장 많고 그 다음으로 밥벌이에 대한 것이다. 그들이 스스로 답을 찾는 코칭의 과정을 스토리텔링하면서 불교철학과 마주하고 붓다를 만날 생각이다.

다시 물어본다면 이제 답할 준비가 되었다.

'당신은 누구인가? 어떤 사람인가?'

지금 나는 불자로서 코치의 길을 가는 사람이다. 이 길을 가면서 수행의 공부가 깊어질 수 있도록 이 글을 읽는 분들도 그 길을 함께 걷는 도반으로서 필자의 코치가 되어주시길 부탁드린다.

〈한국코치협회 전문코치〉

남혜경 코치는
숙명여대 국문학과를 졸업하고 연세대 언론홍보대학원에서 신문출판을 전공했다. 경향신문과 일요신문, 서울문화사 등에서 기자와 편집자로 20여 년간 종사했으며, 가톨릭의대와 서울대학교에서 홍보부장을 지냈다.
2014년 코치의 길을 걷기 시작했으며, 한국코치협회 인증 전문코치(KPC)로 사회초년생을 위한 진로코칭, 워킹우먼의 라이프비즈니스코칭, 저자가 되기 위한 글쓰기 코칭 등을 하고 있다. 'Vikki G. Brock'의 〈코칭의 역사〉(Sourcebook Coaching History)를 공동번역했다.





佛法 바르게 알아야 진정한 불자



김성규의
緣起 이야기

① 불교란 무엇인가?



그림 · 강병호

佛法과 만남, 최고의 행운

수억 겁을 살아도 오늘 하루는 두 번 다시 오지 않는다. 오늘 이 하루는 세세생생 살아도 다시 오지 않는 소중한 하루다. 우리는 지금 그 하루와 마주하고 있다.

이 생에서 최고의 행운은 불교와의 만남이다. 그런 의미에서 연재를 시작하면서 불법을 한 명이라도 제대로 안다면 불교연재는 성공한 것이라고 생각한다. 한 명이 불법을 알아도 세상은 불법(佛法)의 바다이기 때문이다. 이 세상은 행복한 사람 한 사람만 있어도 행복한 법이다.

관계하고 있는 수억 겁의 세월이 모여 오늘의 나를 만들었고, 30년 전의 나를 되돌아보면 그곳에 이미 오늘의 씨앗들이 웅크리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이 존재하고 있는 모든 것들에는 원인이 있어 지금의 상황이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다.

부처님이 깨친 연기(緣起)를 통해 존재하는 것들에는 어떠한 법칙이 있는지 같이 공부하고자 한다.

우리는 불교가 무엇인지 물으면 한마디도 대답을 못하는 경우가 많다. 평생을 절에 다녀도 불교의 기본적인 용어의 뜻을 모르기 때문이다. 그래서는 불교를 제대로 이해할 수가 없고, 전달할 수도 없고, 내 삶을 불교적으로 살 수가 없다.

우리는 국솥의 국자같이 살지 말아야 한다. 사찰에 1000년을 다녀도 부처님의 가르침에 대해서 정확한 이해를 하지 못하면 국자와 다를 바가 없다.

부처님께 '불교가 무엇이냐' 고 물으면 "12처가 불교니라"고 했다. 존재의 인식 구조를 아주 명료하게 설명한 것이다. 단순하게 절에 다닌다고 해서 불자가 아니다. 부처님의 법을 제대로 알 때 우리는 비로소 진정한 불자가 된다.

부처님께서 제자들한테 직접 이해시킨 6근과 6경, 12처와 18계, 육육법연기, 오온연기, 12연기 등 불교의 가장 기본적인 체제를 이루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연재를 할 생각이다. 이 부분을 이해하고 나면 불교를 아는 것이다. 법당에 골격만 세워놓으면 아름답게 칠도 할 수 있고, 부처님을 모셔놓을 수도 있고, 모든 조형물을 설치 할 수도 있다.

우리가 이 골격이 어떻게 되어있는 지를 알고 있으면 어느 생에 어떻게 태어나든지 불법에서 멀어질 수가 없다. 내가 진정으로 불법을 알고 있다면 그것으로 말미암아 불교가 아닌 다른 삶을 살 수가 없다.

시공간, 상대성 이론과 만유인력

커피숍의 탁자도 존재이며 우리도 존재다. 존재를 좀 더 나눠 보면 크게 생명이 없는 무생물과 생명이 있는 생명체로 나눌 수 있다. 무생물체는 우리가 이해하기 쉽다. 생명이 없는 물체인 책상이라든가 지구라든가 혹은 태양이라든가 이런 물체들이 어떻게 운동하고 있는지, 이런 관계들은 어떻게 존재하고 있는지를 이해하면 이 부분들을 생명체에 적용할 수 있는지 없는지도 살필 수가 있다.

지금 내 앞에 앉아있는 보살상의 모습은 동그랗게 보인다. 하지만 1초에 30만km로 달려가면서 물체를 보면 어떻게 보일까? '빛을 타고 가면서 존재하고 있는 3차원의 모습을 보면 그대로 3차원으로 보일 것인가' 하는 이 문제가 아인슈타인의 16살 때의 화두였다. 이를 푼 것이 상대성 이론이다.

상대성 이론이라는 개념을 쉽게 이해하기 위한 예는 다음과 같다. 지금 A씨가 북쪽으로 약 10m씩 달려가고 있는데 옆에 있는 B씨는 남쪽으로 10m씩 달려간다. 그럼 어떻게 될까? 북쪽으로 가는 A씨는 B씨를 보면 20m로 가는 것 같이 보이게 된다. 서로 반대 방향으로 A씨는 북쪽으로 10m를 달려가고 있고, B씨는 남쪽으로 10m로 달려가고 있다. 그럼 A씨가 B씨를 볼 때 B씨가 20m씩 달리고 있는 것 같이 보인다. 이것이 상대속도이다.

상대 속도에서 A씨가 10m를 북쪽으로 가고 있고 B씨는 10m를 남쪽으로 가고 있을 때 A씨가 B씨를 보면 20m로 가는 것처럼 보인다.

좀 더 빨리 달려보자. A씨와 B씨가 30만km로 가고 있다. 빛이 1초에 가는 거리는 30만km다. 현 우주에서 생각할 수 있는 최대 속도기도 하다. A씨가 B씨를 보면 60만km의 속도로 달리는 것처럼 보여야 한다.

사찰 다닌다고 불자는 아니다
부처님 가르침 이해 선결돼야

상대성 이론 · 프랙탈 등 통해
불법 원리 '연기' 확인 가능해

그런데 그렇지 않다. 여기서 생각할 수 있는 최대속도가 30만km라고 했다. 앞에서 분명히 10m로 가면서 10m를 봤을 때를 계산해보면 정확하게 20m가 나온다. 하지만 30만km로 가면서 30만km를 보면 30만km로밖에 보이지 않는다. 이것이 아인슈타인으로 하여금 상대성 이론을 낳게 하는 배경이다.

이는 시간은 공간과 분리된 별개의 것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공간과 하나이며, 공간의 움직임이 시간이라는 것으로 인식되는 것이다. 결국 상대론을 생각할 수 있는 '상대 속도' 라는 개념이다.

또 예를 들어 지금 A씨가 B씨의 앞쪽에 있고, 나보다는 뒤쪽에 있다. 이 같은 위치를 결정할 때 어떻게 하는가? 기준을 정해 그것을 중심으로 어디에 있다고 하는 것이다.

우주에 절대적인 것은 없다. 모든 것은 상대적으로 존재한다. 기준을 정해 어디에 있으며, 무엇에 비해서 존재한다고 인식한다.

상대성 이론은 우리의 사고에 일대 혁명을 일으켰다. 지금까지 이 우주에는 절대적인 위치가 있다고 생각했는데 알고보니 절대적인 위치가 없다는 것이다. 모든 것은 어떤 한 지점을 기준으로 했을 때 어디에 있다는 생각으로 바뀌어간다. 결국 이것이 상대성 이론을 낳게 했다.

이와 함께 '왜 모든 물체는 밑으로만 떨어지는가' 는 뉴턴의 화두였고, 이에 대한 답이 모든 물체 사이에는 힘이 작용한다는 '만유인력' 이다.

뉴턴은 우주에 존재하고 있는 모든 물체 사이에는 힘이 작용한다고 했다. 당신이 여기 앉아 있고 내가 탁자 앞에 서 있다면 두 물체 사이에는 힘이 작용한다. 그런데 우리가 힘을 느낄 수 있는가? 힘은 분명 계산해보면 얼마라는 값이 나오지만, 우리가 끌려가지 않고 제자리에 있을 수 있는 것은 서로 당기는 힘이 있기 때문이다. 우리가 제자리에 앉아 있을 수 있는 것은 힘이 존재하기 때문이지만, 그 힘은 느낄 수 없을 만큼 미약하기 때문에 그냥 그대로 있는 것이다.

뉴턴이 힌트를 얻은 것은 모든 물체는 밑으로 떨어진다는 사실이다. 왜 이것이 옆으로도 안 가고 위로도 안 가고 밑으로만 떨어지는가? 이 화두의 해답이 바로 만유인력이다. 만유인력은 우주에 존재하는 물체와 물체 사이에는 힘이 작용한다는 것을 종합적 · 구체적으로 풀어놓은 것이다. 근본적으로 모든 물체 사이에는 힘이 작용한다는 것이다.

인과의 뿌리, 프랙탈 이론

오랜만에 동네 커피숍에서 만난 60대 보살 두 명이 대학시절의 이야기를 하고 있었다. 한 보살 왈, 그때 죽도록 따라다니던 남자친구가 졸업 후 사법고시에 합격했다던데 그 친구와 결혼했더라면 어떻게 됐을지, 다른 보살은 자기가 죽도록 좋아했던 선배가 있었는데 집에서 권하는 돈 많은 집에 시집을 갔지만 만약 그때 고집을 피워 그 선배와 결혼했더라면 어떻게 됐을까?

일어날 일만 일어나는 프랙탈 이론이 불교에서는 인과법이다. 이 세상에서 예측 불가능한 사건은 없다.

예를 들어 한 사람이 현대불교신문사에 방문할 때 걸어왔는데 지난주에는 택시를 타고 왔다고 가정해보자. 지난주에는 택시 타고 올 수 밖에 없는 상황이 만들어진 것이고, 오늘은 걸어 올 수 있는 조건이 만들어져서 걸어온 것이다. 수만 번을 현대불교신문사에 걸어서 오가도, 똑같은 길을 간 적은 한 번도 없다. 버스나 택시를 타고 오갈 때에도 똑같은 길을 똑같이 오지 않는다. 그날 그렇게 일어날 수밖에 없는 행위로 일어나는 것이다.

향을 피우면 향 연기가 올라가는 모습을 생각 없이 보게 되는 게 일반적이다. 바람이 적당하게 불거나 혹은 여기에 많은 사람이 모였는가 하는 여러 가지 상황으로 향 연기가 올라가는 방향은 항상 다르다.

모든 조건을 따지면 향 연기는 그렇게밖에 올라 갈 수 없었다는 것이 프랙탈 이론의 주요 골자다. 우리가 사는 것도 이렇게밖에 살 수 없구나 하는 것이 어느 정도 맞아 떨어진다. 프랙탈 이론은 21세기가 풀어야 할 과학적인 인과론이며, 과학으로 인과론을 풀어낸 것이 프랙탈 이론이기도 하다.

엄밀하게 말하면 인과론 자체가 프랙탈 이론이다. 이 세상에는 예측 불가능한 사건은 없다. 이는 일어날 일만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우리의 모든 행위는 예측 불가능한 것이 없고, 전부 다 예측 가능하단 것이다.

부처님께서는 무엇을 고민했을까? 왜 죽어야만 하는가 하는 문제를 고민했다. '생로병사(生老病死)' 라는 문제를 고민했고 문제에 대한 해답이 '연기(緣起)' 이다. 즉 존재하고 있는 것들은 무상(無常)이고 무아(無我)다.

아인슈타인이 푼 상대성 이론은 시공간에 대한 존재의 움직임에 대한 문제이며, 뉴턴이 푼 문제는 공간에서의 존재에 대한 문제다. 프랙탈 이론은 시공간에서 일어나는 것들의 인과에 대한 문제이다.

무생물 사이에서는 이런 문제들이 일어나는데 생명을 가진 인간에게도 적용될 수 있는가 없는가? 이것이 적용된다면 불교를 이해하는 데 훨씬 수월해진다. 연기법에 대한 이해도 쉽다.

〈영남대 의대 교수〉

김성규 교수는
영남대 의대 교수. '의학물리학자' 로 방사선종양학의 개척자다. 경주고 불교학생회에서 불연을 맺은 이후 전법 행자로서의 삶을 살고 있다. 법륜불자교수회, 영남대학교의료원불교신행회, 영남대학교 의과대학 불교학생회를 창립했으며, 현재 (사)통섭불교원 이사장으로서 활발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

2019년 새해 福 많이 받으세요

사단법인 한국불교종단총연합회

이사장 산수 총재 회암 회장 정일

이 사 해일 수석부회장 지일
이 사 정심 상임부회장 미산
이 사 도선 부 회 장 정운
이 사 정연 부 회 장 성각

그 외 108개 종단 회원 일동

본회는 회원종단(단체)의 권익보호에 앞장서고,
회원 종단(사암)에서 고민하는 민원해결에 도움되는
자료를 제공하며 고통도 같이 감내하는
연합교단 입니다.



본산 정심사

본산 정심사 : 강원도 동해시 만우안길 5-3 (만우동) 법인 사무처 : 010-3300-0408 / (033)534-3956, 3957 산하 방송국 : 한국종교예술방송 http://sansoo5.cafe24.com

‘보현행원송’ 그 날의 감동 다시 한 번

안성 도피안사 불교음악 토크쇼
1992년 보현행원송 초연 주역들
송암 · 박범훈 · 손진책 · 국수호

박재완 기자 wanihollo@hanmail.net


구랍 22일 안성 도피안사에서 열린 불교음악토크쇼에서 작곡가 박범훈이 ‘보현행원송’ 초연과 관련한 인연담을 이야기 하고 있다.


토크쇼에 참석한 사부대중이 보현행원송을 부르고 있다.


송암 스님은 ‘보현행원송’ 초연 주역들에게 공로패를 전했다.

“보형행원으로 보리 이루리~ 보현행원으로 보리 이루리~”

1992년 4월 2일 서울 세종문화회관 대강당에서는 한국불교음악사에 대작불사로 남은 뜻깊은 공연이 있었다. 교성곡 ‘보현행원송’이다. 그 날의 공연은 지금까지도 회자되고 있을 만큼 감동으로 기억되는 공연이다. 2회 공연의 좌석은 모두 만석이었다. 아니 만석을 넘어 그야말로 ‘초만원’이었다. 티켓을 구하지 못한 불자들이 계단까지 채워 앉았을 정도였다.

27년 전 감동적인 대공연을 이끌었던 주역들이 모여 그날을 다시 회상하며 한 해를 마무리하는 뜻깊은 자리가 마련됐다. 초연을 총 지휘했던 안성 도피안사 주지 송암 스님은 구랍 22일 도피안사 대웅전에서 동지법회 및 송년불교음악 토크쇼 ‘보현행원송 대담’을 개최했다.

토크쇼에는 당시의 공연을 이끌었던 송암 스님, 보현행원송 전곡을 작곡하고 악단과 합창단의 지휘를 맡았던 작곡가 박범훈(불교음악원 원장), 공연을 총 연출했던 연출가 손진책(극단 미추 대표), 무용 안무를 담당했던 무용가 국수호(디딤무용단 대표)가 패널로 참여했으며, 김재영 법사, 서명원 신부 등 사부대중 3백여 명이 법회와 토크쇼에 함께 했다. 토크쇼는 송암 스님이 주역들에게 공로패를 전달하는 것으로 시작했다.

“그 때 그 무대를 한 마디로 표현하면 그야말로 천상세계였죠. 500여 명의 합창단과 150여 명의 무용단이 어우러진 보현행원의 무대는 천상세계를 그대로 옮겨놓은 듯 했어요. 그리고 보현행원송이 만들어지고 공연되기까지의 모든 과정은 저희가 한 것이 아니라 모두 부처님이 하신 것이라고 생각해요. 부처님께서 박범훈의 눈과 손을 빌려 곡을 쓰고 합창단의 입을 빌려 노래하고 무용단의 몸을 빌려 춤을 추신 것이라고 생각해요.”

당시의 공연을 총 지휘했던 송암 스님은 당시를 그렇게 회고했다.

‘보현행원송’은 불교의 대중화에 앞장섰던 광덕 스님이 보현행원품을 4 · 4조의 시로 옮긴 가사에 작곡가 박범훈이 곡을 붙인 것으로, 국악관현악과 합창 그리고 독창이 함께 하는 교성곡이다. 3개월의 정리와 준비를 거쳐 만들어진 곡은 60여 명의 국악관현악단이 연주했고, 500여 명의 합창단과 150여 명의 무용단이 함께 했다. 한국불교음악 역사상 무대 공연으로서는 처음 시도된 대합창곡이라 할 수 있다.

“그 날의 무대는 천상세계”
광덕 스님 한 걸음에 무대 올라
“그 날의 감동 잊을 수 없어”

“두 시간 동안 세종문화회관 대강당은 보현행원송으로 터져나갔습니다. 연주 마지막, 지휘봉을 멈췄을 때 들려왔던 환호의 소리는 평생 잊을 수가 없습니다. 지금도 그 노래 소리가 들려오는 듯합니다.”

작곡과 지휘를 맡았던 박범훈 원장은 당시를 회고했다. 광덕 스님으로부터 가사집을 전해 받은 박 원장은 가사집을 싸들고 지리산 불락사로 들어갔다. 겨울이었다. 건반 하나 달랑 들고 올라간 움막은 추웠다. 손과 발이 힘겨워서였을까. 곡은 애를 태웠지만 악보를 채운 노래는 감동을 품고 태어났다. 그렇게 만들어진 노래는 다시 합창단의 불심과 만난다. 불광사 신도합창단 단원들은 밤낮을 가리지 않고 보현행원송을 화두로 정진 또 정진했다. 노래를 했다기보다는 독경을 했다. 악보가 필요 없었다. 그렇게 한국불교음악사에 굵은 글씨로 남은 보현행원송은 그렇게 시작되고 만들어져 무대에 올랐다.

공연을 끝낸 지휘자 박범훈은 감격을 이기지 못하고 객석 앞줄의 광덕 스님을 무대로 모시려고 했다. 당시 광덕 스님은 거동이 여의치 못했다. 박 원장과 스님의 눈이 마주쳤다. 그리고 광덕 스님은 혼자 한 걸음에 무대 위로 올라왔다. 공연의 감동이 채 가시기도 전에 무대는 또 한 번 감동으로 출렁거렸다. 객석은 난리 그 자체였다. 무대에 오른 광덕 스님은 마이크를 잡고 법문까지 했다.

“저 역시도 그날의 감동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한국불교음악사에 의미 있는 이정표를 세운 보현행원송 공연은 저 개인적으로도 잊을 수 없는 시간이었습니다. 부처님 말씀을 경전을 통해서만 전할 일이 아니라 문화예술을 통해서도 알려야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날 공연의 총 연출을 맡았던 손진책 대표 역시 그날을 ‘감동’이라는 말로 회상했다. 그리고 150여 명의 무용단을 이끌었던 국수호 대표도 대작불사에 참여한 소회를 밝혔다.

“그 날의 공연은 저 역시도 남달랐던 무대였다고 생각합니다. 무용으로 부처님 말씀 전하는 일에 더욱 매진하겠습니다.”

광덕 스님의 원력에서 비롯된 불사는 많은 대중의 불심을 키우고 부처님의 말씀을 널리 전하는 전법의 현장으로 남았다.

“불교음악은 부처님의 말씀을 소리로 표현한 것입니다. 그 소리 하나하나가 불보살인 것입니다. 그래서 노랫말 하나하나 허투루 불러선 안 되는 것입니다.”

박 원장이 보현행원송의 마지막 부분을 선창했다. “보현행원으로 보리 이루리~” 그리고 사부대중이 다시 박 원장의 보현행원을 받았다. “보현행원으로 보리 이루리” 당시 합창단 단원으로 참여했던 여성 불자는 눈물을 글썽이며 벅차게 보현행원을 불렀다. 법당은 27년 전의 무대로 돌아가 보현행원으로 가득 찼다.

나무뿌리, 서예가 되다

월정사성보박물관 특별기획전
‘중국 근서화 대가 양옥빙 작가전’
12월 21일~2019년2월 28일

월정사성보박물관(관장 정념)은 12월 21일부터 2019년 2월 28일까지 기획전시실에서 특별기획전 ‘중국 근서화의 대가 양옥빙 작가전’을 개최한다.

중국 근서화의 창시자인 양옥빙 작가의 작품 60여 점이 전시되는 이번 전시는 탄허기념박물관이 지난 10월 24일부터 11월 7일까지 한중문화교류전으로 열렸던 양옥빙의 ‘더 루츠’ 展을 이은 것으로 양옥빙의 작품세계를 한 눈에 볼 수 있는 자리다.

근서화란 나무 뿌리의 모양을 그대로 살려서 한자(漢子)를 나타낸 글씨나 그린 뿌리그림을 말한다. 근서화는 한자 모양과 유사한 진달래 뿌리를 찾아내어 글씨나 그림을 만드는 공예로, 뿌리에는 전혀 가공을 하거나 힘을 가하지 않고 자연 그대로의 모습으로 조합하여 그림을 만드는 것이 특징이다.

양옥빙 작가는 사천성 명장으로 자연의 기묘함을 예술로 승화시켜 중국의 전통 근예기법(根藝技法)에 서예를 접목시켜 ‘근서(根書)’라는 새로운 분야를 개척한 인물이다. 양 작가는 어릴 때부터 서예를 즐겼는데 처음에는 복(福)을 부르는 다양한 상징을 뿌리로 나타내다가 점차 사람들이 좋아하는 녹(祿, 행복), 수(壽, 장수), 불(佛, 부처) 등 글씨나 문구를 표현하기 시작하면서 자연 그대로의 뿌리로 글씨를 쓰는 근서법을 창안하여 뿌리예술인 근예계의 양씨근서분파(楊氏根書分派)를 형성했다. 40년 간 조각과 서예조형작업을 하고 있는 양 작가의 작품은 자연합일의 궁극을 보여주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박재완 기자


양옥빙 作, 佛

2019년 새해 福 많이 받으세요

구국성사 용성진종대종사 대각사상으로
수행·포교하는 재단법인 대한불교조계종 대각회



이 사 불심 도문　이 사 무심 보광
이 사 봉안 효경　이 사 벽암 지홍
이 사 서해 흥교　이 사 서주 태원
이 사 선효 성학　감 사 월암 덕상
이 사 장산 도업　감 사 대해 일광
이 사 월천 혜총　용성문도회 회장 경선
이 사 금아 혜국　대각회분원 회장 지암
이 사 장산 성춘

(재)대한불교조계종 대각회 이사장
목동 법안정사 · 횡성 대각정사 주지 태원

서울특별시 양천구 목동동로 371 Tel. (02) 765-2701 / Fax. (02) 741-1385

謹賀新年

정유년 한해 묵묵히 불법홍포를 위해 애쓰신 전국의 불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무술년 새해를 맞이하여 중앙신도회는 ‘호시우보(虎視牛步)’의 자세로 신도조직화를 통한 불교발전을 위해 더욱 매진하겠습니다.
새해에도 모든 생명에게 부처님의 자비광명이 가득하길 바라며, 온 세상이 상생 화합하는 한해가 되고 불자여러분의 가정에도 건강과 만복이 깃드시길 기원합니다.

대한불교 조계종 중앙신도회
회장 이 기 흥

새해 주목할 불교NEWS

기해년 새해가 밝았다. 올해에는 어떤 일들이 대중의 관심을 끌까. 불교계 각 분야별로 올해 기대되는 사안을 정리해봤다. 〈편집자 주〉

분야별 중점사업 기상도 '맑음'

비구니 위상강화 어떻게

종단 | 새해 종단 분야에서 가장 기대를 모으는 키워드는 '비구니 위상 강화'다. 지난해 9월 조계종 제36대 총무원장에 당선된 원행 스님은 선거과정에서 꾸준히 이를 공약으로 내세웠다. 대표적인 것이 바로 '전국비구니회 종법기구화'와 '비구니특별교구 설립'이다. 또한 얼마 전 비구니 최고법계인 '명사법계'에 11명의 스님들이 배출되면서 비구니 위상이 본격적으로 강화될 것이라는 기대감이 형성되고 있다. 명사법계 배출은 2007년 10월 최초 품수자 이후 11년 만에 이뤄졌다.

이에 발맞춰 조계종 전국비구니회는 새해부터 집행부 워크숍을 시작으로 전국비구니회 종법기구화와 비구니특별교구 설립에 대한 비구니스님들의 의견을 물을 예정이다. 비구니계에서도 찬반의견이 나뉘는 사안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전국비구니회는 TF팀을 꾸려 포럼과 공청회 등을 통해 여론 단일화를 이뤄낼 계획이다.

비구니 위상 강화와 함께 주목을 받는 또 다른 사안은 '소통과화합위원회' 설치다. 이 역시 조계종 총무원장 원행 스님의 핵심 공약 중 하나다. 현재 위원회 구성을 비롯해 사업계획 등을 논의하는 단계로 알려졌다. 소통과화합위는 전방위적으로 종도의 목소리를 취합하고, 종단차원에서 풀어나갈 과제를 선정해 역량을 투입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 1년간 종단 핵심인사들의 각종 의혹으로 인해 발생한 갈등을 풀어내기 위한 대안으로도 제시되고 있다.

소통과화합위원회는 백년대계본부 산하 조직으로 꾸려질 전망이다. 백년대계본부는 이를 위해 대중공사추진위와 종책개발위를 불교사회연구소에 흡수하는 방향으로 조직개편을 진행 중이다. 소통과화합위원회가 설치된 이후 종도들의 목소리가 종단 운영에 어떻게 반영될지 세간의 이목이 쏠린다.

윤호섭 기자 sonic027@hyunbul.com

포교 · 전법 새 場 기대

포교 | 새해에는 먼저 전법 포교의 근간이 될 불교성전 편찬이 본격화된다. 조계종은 구랍 12일 불교성전 편찬을 위한 종령을 제정 공포한데 이어 새해 1월 편찬위원회, 기획위원회 위원 위촉을 진행한다. 또 매월 기획 회의와 각종 조사 연구, 세미나를 개최할 예정이다. 불교성전의 경우 450여만 부가 보급된 동국역경원의 불교성전을 상회하는 보급량을 목표로 하고 있다. 요전형식과 정전형식 등 형식, 내용에 대한 불교계 의견을 새해 지속 수렴해 발간 준비에 나설 계획이다.

이와 함께 전법포교 진흥을 위해 구축된 전법단 또한 지역중심으로 전환된다. 불교세가 약한 취약지역의 전법포교를 강화하기 위한 방안으로 조계종사암연합회 등과 상호협력을 통해 실제적인 포교역량을 확보하겠다는 방침이다. 새해에는 부산과 대전지역을 시범지역으로 지역전법단이 출범하며, 연내 총 17개 광역시도별 지역전법단이 구축된다.

조계종 중앙신도회 또한 권역별 교구신도회 네트워크 활성화에 나서는 한편, 지난해 포교원으로부터 이관 받은 신도등록을 위해 본사에 담당자 배치 등 신도등록배가운동에 앞장설 예정이다. 현재 중앙신도회는 새해 목표로 신도 100만 명이란 수치를 설정한 상태다.

계층 포교도 영역이 넓어진다. 가장 눈길을 끄는 것은 청소년 인성교육을 주제로 한 어린이 청소년 포교다.

파라미타청소년연합회는 올해부터 청소년 명상 프로그램을 활용해 지도할 예정이다. 또 청소년문화재지킴이 활동과 매년 실시하는 전국연합캠프에서도 명상프로그램을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이밖에 세대별 소그룹 구성으로 회원활동 배가운동을 펼칠 대불청, 전국지회 활성화와 리더쉽 연수 등을 진행하는 대불련 등 청년 포교에도 새로운 도전이 시작된다.

노덕현 기자 noduc@hyunbul.com

환경운동 다시 불붙나

사회 | 기해년, 불교계는 다시 환경문제에 주목한다. 먼저 조계종 환경위원회(위원장 수암)가 환경교육교재 출간 준비에 막바지라는 소식이다.

올해 초 발간 예정인 〈불교, 가장 아름다운 삶의 방식〉은 2008년 불교 사상을 바탕으로 한 교재, 2017년 교육용 교재에 이어 세 번째다.

이번 교재는 환경을 생각하는 불자들을 위한 불교생활 백서의 성격을 띤다. 환경위는 승가교육기관 및 종립학교, 주요 국공립도서관 및 대학 도서관 등에 배포할 예정이다. 그간 실린 내용을 보완해 더욱 완성도를 높인 생활지침서가 나올지 기대를 모은다.

환경 NGO단체인 불교환경연대(상임대표 법일)의 녹색사찰 프로젝트도 더욱 확대될 전망이다. 지난해 일회용품 안 쓰는 녹색사찰 총 5곳이 탄생했다. 고양 금륜사를 시작으로, 언양 백련사, 서울 열린선원, 장성 백양사 천진암, 의정부 석림사는 불교환경연대와 녹색사찰 협약을 맺고, 사찰 내 자원순환 교육 및 일회용품 사용을 최소화한 행사 진행 등을 실행했다. 불교환경연대는 일회용품에 이어 녹색사찰 유형을 세분화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불교계서 '고기 덜 먹기 캠페인'을 전개한다는 전망도 나온다. 불교계는 한국불교문화사업단의 3소식 캠페인(笑食 · 小食 · 蔬食) 등 불교적 식문화를 적극 권장해왔다.

이에 발맞춰 BBS불교방송은 지난해 10월 (재)대한불교진흥원, (사)동물권행동카라와 함께 '공장식 축산과 대량살(殺)처분 악순환 구제를 위한 아젠다 채택회의'를 열고 육식 위주의 식사를 채식 위주로 전환하는 '고기 덜 먹기 캠페인'을 시행하자고 제안했다. 종단 차원의 환경 캠페인이 본격화될지 여부가 주목된다.

김지원 기자

시대 고민 학술행사들 '눈길'

학술 | 2019년 기해년 불교학계에서 단연 눈길을 끄는 것은 불교 대표 학술계간지 〈불교평론〉 20주년이다.

1999년 겨울, 불교의 현대적 해석과 사회 속에서의 불교 이해를 모토로 창간된 〈불교평론〉은 말 그대로 불교지성을 대표하는 잡지였다. 창간 이후 정치 · 경제 · 사회적 이슈에 대한 불교적 비판을 선도하며 불법(佛法)에 근거한 대안을 제시해왔다.

올해 〈불교평론〉은 20주년을 맞아 8월 말경 '포스트세속화시대, 종교의 위상과 불교의 역할'을 주제로 기념학술대회를 연다. 이 학술대회는 탈세속화시대에 종교가 어떤 위치에 현재 서 있으며, 불교는 어떠한 방향으로 나아가야 하는지를 되짚는 자리가 될 전망이다. 또한 여름호에는 20주년 특집으로 근현대사 속에서 재가불자의 역할을 살필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할 예정이다.

한국불교학회(회장 김성철)는 월정사, 금강선원과 함께 한암 · 탄허학술상을 새롭게 제정해 올해부터 공모 · 시상한다. 한암 · 탄허학술상은 한암학술상과 탄허학술상으로 나눠 격년제로 시행된다. 올해에는 탄허학술상이 공모된다. 탄허학술상은 출재가자 구분없이 2~3년 사이 불교학에 높은 성과를 낸 학승과 학자를 1명 선발해 시상한다. 한국불교학회는 '사바 정토-불교 이상사회 모색'을 주제로 춘계학술대회를, 추계에는 '티베트의 불교와 문화'를 주제로 학술대회를 연다.

불교학연구회(회장 임승택)는 3.1운동 100주년을 맞아 '불교와 근대'를 주제로 추계학술대회를 연다. 근대성이 어떻게 불교와 연결되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자리가 될 전망이다. 또한 2020년 한국연구재단 우수등재학술지 심사가 있는 만큼 이를 대비한 학술지 내실화 작업도 추진할 계획이다.

신성민 기자



대한불교조계종
직할교구신도회
이금석
직할교구 신도회장
신도회대중일동
서울시 종로구 견지동 45번지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Tel : 02)2011-1934 Fax : 02)732-4550

2019년 새해 福 많이 받으세요
한마음선원 부산지원
선법합창단 단원모집
한마음선원 부산지원 선법합창단은 한마음의 도리를 이르신 대행선사의 가르침을 선법가로 전하는 음성 포교단입니다.
음성공양을 통하여 스스로를 닦고 밝히며 나와 세상을 이롭게 하는 생활 선법의 가르침을 널리 전하고 있습니다.
보살합창단 단장 010-9599-2095
대한불교조계종 한마음선원
거사합창단 단장 010-3860-4258



불교와 돼지

‘영리함’ 뒤엔 ‘욕심’도… 中道 삶 상징



불국사 극락전 복돼지상

지략으로 포식동물 이겨
영특하지만 욕심도 많아
수행 통한 극복도 상징

불교 속 돼지 이야기

불기 2563년 기해년은 돼지의 해이다. 돼지는 예로부터 영특함으로 널리 알려져있다. 영리함을 바탕으로 먹을 것을 잘 찾거나 재산을 늘려 복을 상징한다. 하지만 이러한 영리함이 과해 탐욕스러운 이미지도 갖고 있다.

불교서도 돼지는 지략을 갖춘 영물, 혹은 욕망에 빠져 있지만 이를 극복해 내는 중생으로 표현했다.

부처님 전생 이야기인 〈자타카〉에서는 지략으로 포식동물을 이긴 돼지 이야기가 나온다. 한 목수가 숲속에서 함정에 빠진 돼지를 구했고 이 돼지는 숲에서 호랑이에게 괴롭힘을 당하고 있는 동물들을 만나게 된다. 돼지는 동물들을 모아 훈련시키고 함정을 판다. 결국 돼지의 지략으로 호랑이를 죽여 동물들의 괴로움이 해결된다는 이야기다.

〈중아함경〉에서도 지략으로 호랑이를 이긴 돼지왕 이야기가 전해진다. 500마리의 돼지를 데리고 여행을 떠난 돼지왕이 호랑이를 만났고, 호랑이가 길을 비키지 않자 배설물을 온몸에 바르고 호랑이에게 맞선 내용이다. 호랑이가 더러움에 피하고 결국 돼지왕 일행이 갈 길을 가게 되는 내용이다.

하지만 돼지는 그 지략이 넘쳐 탐욕까지 이어지는 모습도 보인다. 불교적 내용을 담고 있는 〈서유기〉에서 저팔계는 지략이 넘치는 천상의 장군이었지만 여색을 밝혀 돼지의 몸으로 다시 태어난다. 이후 현장법사와 함께 수행해가며 각종 탐욕을 결국 극복해 가는 모습을 보인다. 저팔계의 팔계는 여덟 가지 대중이 지닐 계이며, 각각 공(空)과 청정심(淨)을 깨달아가는 손오공, 사오정과 함께 수행하는 이를 상징한다.

부처님께서는 이런 돼지에 대해 거래와 축산을 금했다. 〈대승열반경〉 〈범망경〉에는 오계 가운데 불살생과 관련하여 돼지를 기르지 말아야 한다는 내용이 나온다.

〈범망경〉에서 부처님은 “만고양이 · 살쾡이 · 돼지 · 개 따위를 기르지 말아야 한다. 만약 짐짓 그러한 일을 하면 가벼운 죄가 된다”고 하며 돼지를 비롯한 동물을 기르는 일을 금지시켰다.

불교는 돼지의 존재를 통해 중도적 삶의 필요성을 말한다. 영리함을 바탕으로 방일하거나 혹은 탐욕을 부리는 것을 경계하는 존재다.

〈법구경〉 ‘상유품’에서는 ‘모든 악행에 빠져 있는 사람은 항상 탐욕으로써 스스로 잡아매어 살찐 돼지처럼 떠날 줄 몰라 몇 번이고 포이(胞胎)로 드나든다’ 고 전한다.

새해 영리함을 바탕으로 재물과 행복을 찾는 이가 될지, 혹은 이에 안주해 게으르거나 욕심을 부리는 이가 될지는 스스로에게 달려있다.

사찰마다 돼지 조각상

기해년은 돼지해 가운데 유난히 기다려온 ‘황금돼지의 해’ 다. 돼지상과 관련된 사찰들을 소개한다.

경주 불국사에는 복돼지 두 마리가 있다. 극락전 앞과 현판 뒤에 있는 돼지들이다.

2007년 2월, 불국사 극락전 처마 아래서 돼지 목조 조각이 뒤늦게 발견되면서 세간의 관심이 모아지기도 했다. 이후 MBC 예능프로그램 ‘무한도전’ 에 소개되면서 처마 밑에 숨겨진 나무 돼지상은 더욱 유명해졌다.

극락전 목조 돼지상에는 여러 가지 설이 있다. 불국사를 창건한 김대성이 토함산에 자주 사냥을 다녔는데, 그가 곰을 사냥한 밤에 그 곰이 나타나 항의하는 꿈을 꿨다. 그는 이후 살생을 삼가고 불가에 입문했다. 그가 불국사를 창건하면서 불살생을 맹세하기 위해 몰래 처마 밑에 돼지형상을 만들어 숨겼다는 이야기가 전한다.

나머지 한 마리는 목조 조각 이후에 만든 ‘극락전 복(福)돼지’ 상이다. 편액 뒤에 있는 목조 돼지상은 높아서 만져볼 수 없기 때문에 관광객의 편의를 위해 황동으로 모형을 만든 것이다.

복돼지상 안내문에는 ‘세간에는 돼지는 풍족함을 상징하며 복을 가져다주는 길한 동물로 알려져있다. 부와 귀가 함께하는

불국사 참배객 위해 모형 조형
대산사 · 성주사 등 풍수 따라
사찰 조성시 돼지조각상 세워

곳에 착한 지혜의 근본이 있다면 그곳이 극락정토’ 라고 써있다.

청도 대산사는 규모는 크지 않지만 신라 흥덕왕 5년(830년)에 창건한 천년고찰이다. 대산사 원통전 앞에 놓인 삼층석탑 아래에도 돼지가 있다. 석탑을 받치고 있는 지대석 한쪽 모서리에 새겨진 멧돼지 형상 이야기다. 조각된 멧돼지는 부릅뜬 눈과 툭 튀어나온 주둥이가 해학적이다.

대산사가 있는 월은산(月隱山)은 풍수지리학적으로 제비가 알을 품는 형국으로 많은 새들이 살고 있는 곳이라고 한다. 그런데 대산사로 오르는 산길이 뱀의 모양과 흡사해 제비알을 훔쳐가지 않도록 돼지를 새겼다는 설이 전해진다.

창원 성주사도 이와 비슷한 사례다. 성주사 돌계단을 오르면 두 마리의 돼지석상과 만나게 된다. 성주사 돼지상의 조성 배경은 대산사와 거의 같다. 성주사 절터의 형상이 제비집 모양이고 절 앞산이 제비를 노리는 뱀의 머리 격이라, 뱀으로 상징되는 ‘사이’ 한 기운을 누르기 위해 두었다고 한다.

기해는 육십간지 중 36번째 해로, ‘기(己)’ 가 노란색을 나타내는 천간이어서 2019년은 ‘황금돼지 해’ 로 여겨진다. 다음 차례의 기해년은 60년 뒤인 2079년에 찾아온다. 새해에는 황금돼지의 기운을 받아 희망과 길운을 기대해보자.

김지원 기자 jayjace@hyunbul.co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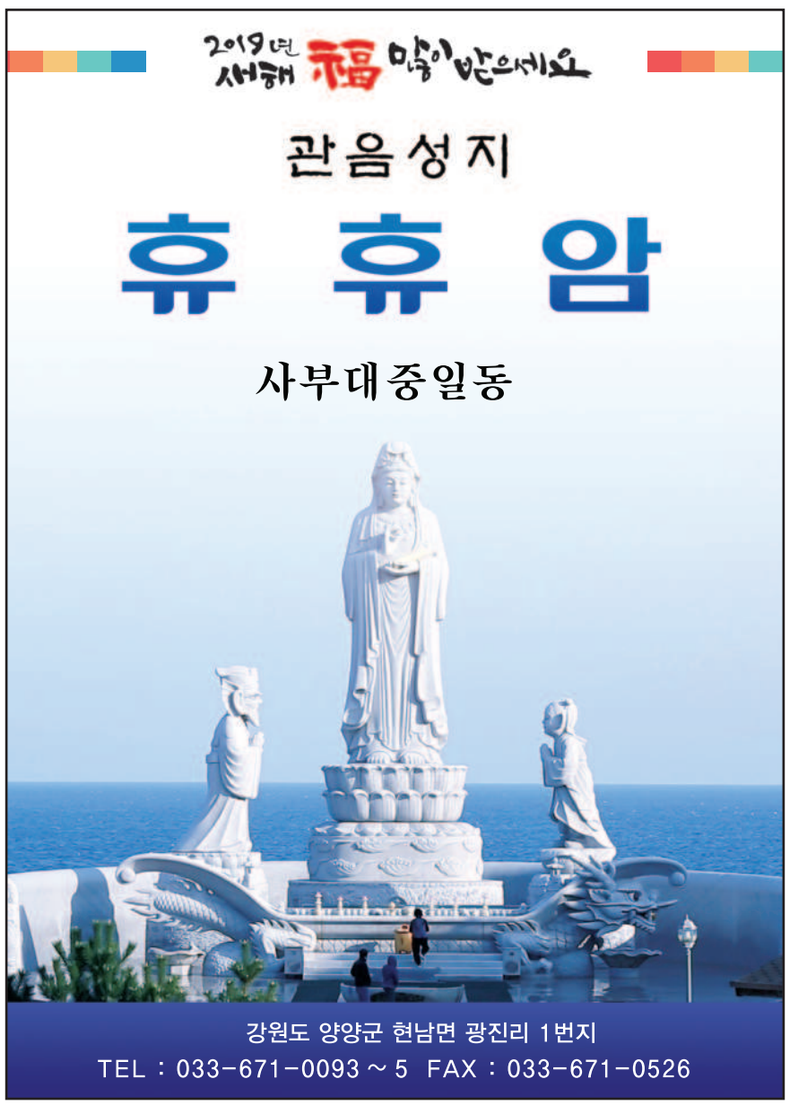
간추린 돼지해 한국불교사

1899년	해인사 대장경 4부, 통도사 · 송광사 등에 분할 봉안.
1911년	조선 총독부 사찰령 제정, 31본산제도 형성.
1923년	조선불교중앙교무원 이사제 실시. 불교소년회 창립.
1935년	조선불교선종 종헌 선포. 청주 용화사 대웅전 화재로 소실.
1947년	제1회 교정연구위원회 개최. 백양사 거점, 정법승과 호법승 이원화 제안
1959년	포항 관음사 화재. 문경 혜국사 · 속리산 법주사 사찰림 남벌
1971년	조계종 교화제도연구 위원회 발족, 승가교육 · 의식 등 현대화 논의. 4대 종정 고암대종사 취임. (재)선학원 설립. 만해사상연구회 창립.
1983년	조계사 승려대회 개최, 불교개혁과 정법수호운동 다짐.
1995년	한국불교재가회의 창립. 광주나눔의집 기공. 조계종 자원봉사단 조직. 직지사 성보박물관 개관. 원효학연구원 개원.
2007년	노무현정부, 10 · 27법난 ‘국가권력 남용사건’ 규정. 조계종, 법난 특별법 촉구. 불교중앙박물관 개관.


성주사 돼지석상.


불국사 극락전 처마 밑 돼지상.







낡은 공 아닌 마음속에 아빠 있었다



우승미의
불교동화 '캐치볼'



그림 · 강병호

이글이글 행성 사는 불타는 곰

"지훈아, 무얼 그리고 있는지 얘기해 줄 수 있을까?"

혜원 스님이 내 어깨를 톡톡 두드렸다. 빨간색 크레용을 들고 분노의 색칠하기에 열중하고 있던 나는 깜짝 놀랐다. 커다랗게 벌린 곰의 입속에서 마구 뿜어져 나오는 거대한 불꽃을 그리던 중이었다. 치켜 올라간 곰의 눈도, 곰이 들고 있는 무지막지한 몽둥이도 활활 타오르고 있다.

토요일 오후에 어린이 법회가 끝나고 나면 포교원에서 동아리 활동을 한다. 내가 활동하는 '맑고 향기롭게'는 이름만 들으면 다도모임 같지만, 혜원 스님과 함께 하는 그림 동아리이다.

칠판에는 오늘의 주제가 적혀 있었다.

'아름다운 우주.'

도화지에 동그라미를 그릴 때까지만 해도 나는 에메랄드빛의 작고 아름다운 행성을 떠올리고 있었다. 하지만 내 손은 어느새 까맣게 타버린 행성 위에 쓰레기를 잔뜩 쌓아놓고, 쓰레기를 지키고 있는 무시무시한 곰을 그리고 있었다.

"이 행성의 이름은… 이글이글 행성이에요. 원래는 에메랄드빛으로 빛나는 아름다운 행성이었죠. 이 행성을 지키는 곰은 항상 화가 나 있어요. 어마어마하게 쌓여 있는 행성의 쓰레기들을 누군가 훔쳐 가려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어느 날 행성에 작고 귀엽고 착한 꼬마가 던진 야구공 하나가 떨어졌어요. 꼬마는 야구공을 찾으러 행성에 갔는데요, 곰은 꼬마에게 도둑놈이라고 욕하며 엄청나게 화를 냈어요. 얼마나 화를 냈는지 곰의 가슴에서 피어오른 불꽃이 온몸을 휘감고, 행성까지 이글이글 타오르게 했죠. 성난 곰은 활활 불타오르는 몽둥이를 휘둘러 착한 꼬마를 쫓아버렸어요. 그런데 그 공은요, 꼬마한테 정말정말 소중한 공이거든요."

여기까지 말하고나니 가슴에서 무언가 울컥 차올랐다.

"그 공은 꼬마의 아빠가 준… 훌쩍… 아빠는 야구선수였는데, 훌쩍… 멀리, 하늘나라로 떠나면서 준… 마지막… 선물… 그만, 바보 같이 잃어버려서…"

정말 바보 같았다. 금새 차오른 눈물이 뺨 위로 줄줄 흘렀고, 눈물보다 많은 콧물이 입술을 타고 떨어지다가 훌쩍과 으아앙 사이사이에 야구공에 대해서, 너무 멀리 떠난 아빠에 대해서, 아빠와 함께하던 캐치볼에 대해서, 고물상에 발도 못 들이게 하는 곰 같은 남자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동안 혜원 스님의 표정은 점점 더 알쏭달쏭해져 갔다.

"공원 옆에 화성고물상이라는 곳이 있어요."

새침데기 가윤이가 내 팔을 잡더니 흠흠, 목청을 가다듬고 말하기 시작했다.

"쓰레기 같은 것이 잔뜩 쌓여 있는 곳이에요. 거기로 지훈이 야구공이 들어갔는데 가져올 수가 없대요. 거기에 곰처럼 덩치 큰 아저씨가 있는데요. 아이들이 다가가면 몽둥이를 휘두르며 소리를 지르기 때문에 공을 찾는 것은 물론이고, 들어가서 이야기를 해볼 수조차 없었대요. 그 공은 지훈이 아빠의 유품이라서 지훈이에게는 정말 소중한 물건이라 꼭 찾아야 한대요. 이렇게 말하고 싶은 거 맞지?"

가윤이가 20년 경력의 베테랑 동시 통역사처럼 가슴속에서 부글부글 끓어오르기만 하고 좀처럼 말이 되어 나오지 않는 이야기를 숨도 쉬지 않고 다다다 말해 주었다. 나는 울음을 그치고, 입을 헤벌린 채 고개를 끄덕였다.

"문제가 뭔지 알았으니 이제 해결하러 가자꾸나."

혜원 스님이 내 어깨를 힘차게 두드렸다.

업어치기 한판!

150cm가 조금 넘는 작은 키에 좁은 어깨, 마른 몸의 혜원 스님이 가삿자락을 펄럭이면서 걸어간다. 그 뒤를 스님과 키가 비슷한 4, 5학년 아이들이 올망졸망 따라간다. 스님의 발걸음은 힘차다. 호기심에 눈을 반짝이며 따라가던 아이들은 화성고물상이 가까워져 오자 주춤주춤 걸음이 느려진다. 허리에 끈이 묶인 것처럼 내 몸은 대열로 잡아당겨지는데, 마음은 자꾸 뒷걸음질 치고 있다.

"야구를 하지 않았더라면 네 아빠의 삶은 훨씬 더 좋았을 거야."

엄마는 말하곤 했다. 아빠에게는 직업이 없었다. 고등학생 때는 꽤 잘 나가는 야구선수였다던데, 어깨 부상으로 선수 생활을 그만둔 뒤로 아빠는 다른 직업을 갖지 못했다. 초등학교 방과 후 수업에서 코치를 하는 것이 아빠가 할 수 있는 유일한 일이었다.

훨씬 더 좋은 삶이란 뭘까. 엄마의 말을 들을 때마다 생각했다. 가족의 생활을 책임질 만큼의 돈을 버는 것일까. 자신의 삶에 만족하고 행복을 느끼는 것일까. 교통사고로 아빠가 세상을 떠난 후 나는 기억 속 아빠의 모습을 떠올려봤다. 아빠가 웃고 있을 때 아빠는 항상 야구공을 손에 쥐고 있었다. 손목에 힘이 없어 글러브도 제대로 못 드는 나에게 공을 던질 때 아빠 얼굴에는 웃음살이 번져 있었다. 아빠는 야구로 돈을 벌지 못했지만, 야구는 아빠를 행복하게 했다고, 나는 생각한다.

> "
> **아빠는 낡은 공에 있지 않고**
> **내 마음속에 있는 걸 알았다**
> **이따금 잊고 살 때도 있었지만**
> **아빠에 대한 사랑이**
> **사라진 건 아니었다**
> "

아빠가 떠난 후 나는 캐치볼을 할 수 없었다. 친구들은 야구를 하지 않았다. 그 녀석들은 늘 축구, 축구공에 한이 맺힌 것처럼 시간만 나면 공을 찼다. 대학에서 수학을 가르치는 새아빠는 야구공을 어떻게 잡는지조차 알지 못했다. 어느 땐가 공원에서 새아빠와 캐치볼을 한 적이 있었는데, 나는 30분 내내 공을 주우러 다녀야 했고, 새아빠에게 미안하다는 말을 백 번쯤 들어야 했다.

캐치볼을 할 수 없었지만, 나는 항상 야구공을 쥐고 있었다. 꼬질꼬질 손때가 묻은 공을 쥐고 있으면 아빠와 함께 있는 것 같은 생각이 들었다. 어쩌면 내가 아빠를 아직 잊지 않고 있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였는지도 모르겠다. 손에서 공을 놓는 순간, 시간이 갈수록 점점 희미해져 가는 아빠에 대한 기억이 공과 함께 사라져버릴 것 같아서 두려웠는지도.

"크아아앙!"

화성고물상에 들어서자 우렁찬 곰의 함성이 들렸다. 아이들이 스님 뒤로 숨었다. 바퀴가 찌그러진 자전거, 녹이 슬어버린 유모차, 깨진 가마솥 뚜껑 같은 것들이 수북하게 쌓여 있는 어딘가에서 곰은 모습을 드러내지 않고도 소리만으로 우리를 제압했다.

"실례합니다. 드릴 말씀이 있어 찾아왔습니다."

혜원 스님이 말했다. 조금의 떨림도 없이 맑고 또랑또랑한 목소리였다.

쿵쾅쿵쾅! 산처럼 쌓여 있는 신문 무더기 뒤에서 곰이 모습을 드러냈다. 스님은 합장하고 머리를 숙였다.

"꺼져라! 이 도둑놈들아!"

곰의 눈이 활활 타올랐다. 몽둥이를 휘두르며 우다다다 달려온다. 아이들이 비명을 지르며 우르르 물러난다. 두려움 때문에 나는 꼼짝도 할 수 없었다. 얼어붙은 듯 그 자리에 서서 달려오는 곰을 바라보고 있었다. 이상하게도 모든 장면이 영화의 느린 화면처럼 흘러갔다. 곰이 휘두르는 몽둥이가 낡은 야구 배트라는 것도 알아챌 수 있었다.

혜원 스님은 물러서지 않았다. 무릎을 살짝 굽히고 달려오는 곰을 향해 팔을 뻗었다. 한 손으로 멱살을 잡고, 다른 손으로 팔을 잡더니 몸의 방향을 틀었다. 150kg은 되어 보이는 곰의 엄청난 체구가 붕 떠올랐다가 원을 그리며 허공을 가른 후 바닥으로 쿵 떨어졌다.

잠시 정적. 눈앞의 광경을 보고도 믿을 수 없었다. 작은 체구의 혜원 스님이 자신보다 족히 세 배는 되어 보이는 남자를 업어치기 한 것이다.

"한판!"

민구가 한 손을 높이 들며 외쳤다. 멍하니 서 있던 아이들이 일제히 손뼉을 쳤다. 아저씨가 눈을 떴다. 눈에 불이 꺼지자 곰은 사람이 되었다. 순하게 눈을 깜박거리며 어리둥절한 듯 주위를 두리번거렸다.

공 주고 받으며 오가는 마음

"알고 보니 새아빠는 루미큐브의 천재였어요."

"루미큐브?"

"숫자패를 사용하는 보드게임이에요. 주말마다 저녁 설거지 내기 루미큐브를 해요. 새아빠와 내가 한 팀이고, 엄마랑 여동생이 한 팀인데요, 4주 연속으로 우리 팀이 이겼어요."

'맑고 향기롭게' 동아리 활동이 끝나고 화성고물상 마당에서 캐치볼을 하는 것은 나의 새로운 주간 행사가 되었다. 공을 던지는 동안 우리의 거리는 자연스럽게 멀어졌다가 가까워지고,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다.

아저씨는 야구 광팬이었다. 놀랍게도 아저씨는 아빠를 기억하고 있었다. 아빠가 구원투수로 나섰던 고교 야구 준결승 대회를 아저씨는 경기장에서 직접 보았다고 했다. 8회 말에 투입된 아빠가 어떻게 활약했는지, 패배 의식에 젖어있는 팀을 어떻게 승리로 이끌었는지, 공을 던지는 자세까지 하나하나 이야기해주었다. 어찌나 자세하게 말했는지, 마치 내가 경기장에서 직접 그 경기를 봤다고 착각할 정도였다.

예기치 않게 한판승을 거둔 후로 혜원 스님은 아저씨를 찾아와서 이야기를 들어주었다. 단지 이야기를 들어주었을 뿐이었는데, 아저씨는 차츰 마음의 문을 열었다. 아저씨는 쓰레기를 소중한 보물로 여기는 병에 걸렸다고 했다.

한 계절이 바뀌고 아저씨는 마침내 화성고물상을 정리하기로 마음먹었다. 팔 수 있는 것은 팔고, 보관해야할 것은 두고, 버려야 할 것은 버렸다. 쓰레기는 끝도 없이 나왔다. 커다란 트럭 세 대를 가득 채우고 나서야 화성고물상은 겨우 정리가 되었다.

그렇다고 모든 것이 바뀐 것은 아니었다. 아저씨는 긴 머리를 짧게 잘랐지만, 수염은 깎지 않았다. 혜원 스님이나 나에게는 다정했지만 낯선 사람들 앞에서는 아직 경계를 풀지 않았다.

아빠의 낡은 공은 끝내 찾을 수 없었다. 아저씨는 하얗고 반들거리는 새 공을 내게 건네며 미안하다고 말했다. 나는 아저씨가 미안해할 일은 아니라고 말하며 새 공을 고맙게 받았다. 아빠의 공을 잃어버린 것은 못내 아쉬웠지만, 아빠가 낡은 공 속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속에 있다는 걸 알고 있었다. 이따금 아빠를 잊고 살 때도 있었지만, 그렇다고 아빠에 대한 내 사랑이 사라진 것은 아니었다.

"간다!"

아저씨가 공을 던졌다. 공이 호를 그리며 날아와 내 글러브 안으로 탁! 들어온다. 다시 공을 던진다. 맑은 공기를 가르며 새하얀 공이 날아간다. 〈끝〉

우승미 작가는
1974년 강원도 양구에서 태어났다. 2005년 〈서울신문〉 신춘문예에 단편 '빛이 스며든 자리'가 당선됐고, 장편소설 〈날아라, 잡상인〉으로 제33회 '오늘의 작가상'을 받았다.







대안 스님의
24절기 사찰밥상
① 소한(小寒)

동안거 선방의 '약방감초' 밑반찬

소한(올해 양력 1월 6일)은 1년 중 23번째 절기에 해당하며 날씨로 보면 가장 추운 날이라고 한다. 오죽하면 "대한이 소한한테 와서 얼어죽었다"고 할 만큼. 소한은 은인자중하는 시기이기도 하다. 이 때 사찰은 고요를 품고, 수행자는 동안거를 통해 자신을 연마한다. 특히 동안거 준비를 위한 저장음식을 마련하는데, 소한 무렵에는 미리 저장해둔 배추와 무, 미역과 해조류, 장아찌, 김장, 두부를 이용한 음식을 주로 먹는다.

사실 30년 전만해도 사찰의 재정은 넉넉지 못했다. 오랜 세월 탁발을 통해 사찰외호를 해오신 어른스님들의 한숨이 아직도 마음에 서려있다. 비구니 최초선방인 해인사 국일암에 주석하신 성원 스님과 은사스님께서는 경남일대를 두어 달씩 걸어서 탁발을 하셨단다. 텃밭은 넉넉히 채소를 심어 김장거리를 마련하고 가장 많이 쓰이는 고춧가루조차도 농사를 지어 손수 준비하셨다. 무엇보다 아침마다 죽을 쑤어 잘 만든 밑반찬에 의지해 공양 준비를 하셨다고 한다.

은사스님이 이때 가장 많이 만든 것이 무말랭이 장아찌다. 늦은 가을빛에 잘 말린 무말랭이를 몽고간장으로 담가놓으면 스님들이 "쌔가 낼름 낼름하다"고 하셨단다. 그때 짜디짠 절간장보다 달짝지근한 몽고간장은 소위 '신세계'였다고 하신다.

무는 말리면 칼슘성분이 높아지고 골밀도에 좋은 식품으로 알려져 있다. 그래서 무를 잘 쪄 차처럼 덖어 무차를 만드는 이들이 많아지고 있다. 또한 두부장아찌는 겨울철 단백질 급원식품으로 좋은 음식이다. 채식위주 식단을 꾸리는 사찰에서 두부는 없어서는 안 되는 식재료다. 두부의 단백질도 좋지만 발효식품으로 만드는 된장, 간장, 청국장 역시 사찰의 훌륭한 양념이자 건강을 지키는 음식이다.

먼저 무쇠솥 뚜껑에 큼직하게 썰어 산초기름으로 지져낸 두부가 식으면 장물을 끓여 붓는다. 집간장에 조청을 넣어 끓인 간장은 짭조름하고 달콤한 맛이 일품이다. 요즘말로 '단짠(달고 짠)'이다. 다음엔 작은 항아리를 여러 개 씻어 말린 다음 두부를 가득 넣고 장물을 부어놓는다. 음달 아래 두부장아찌 장항아리는 추운날 두부를 하나씩 꺼내기보다 항아리째 들고 와 사용하는 사찰만의 독특한 풍경도 숨어있다.

두부장아찌와 무말랭이장아찌, 김치찌개는 소한 밥상으로 제격이다. 지리산 깊은 산골에 사는 필자 역시 시골 5일장을 즐겨 찾는다. 지난해 구한 산초로 기름을 짜서 꼭 필요한 음식에 넣고 있는데 이번 강의 때 수강생들에게 산초 1스푼을 주고 두부를 굽게 했더니 모두 산초향에 놀란 모습이 눈에 선하다.

산초기름을 구하지 못할 경우 마른 산초를 식용유에 넣고 약한 불로 기름을 만들어 사용해도 좋다. 산초는 추석 무렵 풋열매를 따서 장아찌로 만들고 잘 익은 열매는 말려서 기름을 짜서 사용한다.

동안거 위한 저장음식

칼슘 많아 골밀도에 좋은 무장아찌

겨울, 단백질 급원식품 두부장아찌

무말랭이장아찌

무말랭이 300g, 집간장 1컵, 물 5컵, 조청 1컵
1. 무말랭이는 채반에 담아 물에 담가 건져낸 후 물기가 마르면 용기에 담는다.
2. 솥에 간장, 조청, 물을 용량대로 넣고 센불에 끓인다.
3. 장물이 끓기 시작하면 불을 끈다.
4. 무말랭이가 담긴 용기에 장물을 붓고 밀봉해 둔다.
5. 한 달 정도 숙성한 후 먹는다.

두부장아찌

두부 1모, 집간장 한 컵, 조청 반 컵, 콩기름 2T, 물 3컵
1. 두부는 반모로 자른 후 다시 두께를 1㎝ 넓이로 자른다.
2. 두부에 소금을 뿌려 간을 한다.
3. 냄비에 간장과 조청을 약한 불에 끓인다.
4. 팬에 기름을 두르고 두부를 지져낸다.
5. 용기에 두부를 담고 끓인 장물을 부어 놓는다.
6. 한 달 정도 숙성한 후 먹는다.

김치찌개

김치 1/4쪽, 두부 1모, 김칫국물 2컵, 마른표고 10g, 건다시마20g, 소금 약간
1. 솥에 물 5컵과 마른표고버섯, 다시마를 넣고 7분간 끓인다.
2. 7분후 다시마와 표고는 건져낸다.
3. 냄비에 김치와 두부를 썰어 가지런히 놓는다.
4. 김칫국물 2컵과 채수 3컵을 넣고 끓인다.
5. 국물의 간이 싱거우면 소금으로 맞춘다.


무말랭이장아찌


두부장아찌


김치찌개



김동일의 건강 한방
① 수족냉증

누군가 차가운 손 녹여주고 싶다면 내 손부터

손발이 유난히 찬 사람들이 있다. 바쁘게 삶의 자국을 지어가는 손과 이를 따르는 발은 날씨가 추워지면 쉽게 차가워지기 마련이다. 하지만 유난히 손발이 차가워지는 증상인 '수족냉증'을 앓는 이들은 심한 괴로움을 겪게 된다.

근력운동과 유산소 운동을 적당히 섞어서 시작한 지 10여 년이 지난 지금은 한결 나아졌지만 40대 이전의 나는 속이 냉해서 배앓이가 잦고 손발이 무척 찬 편이었다. 그럴 때마다 내가 하는 항변은 이랬다. "마음이 따뜻한 사람이 손발이 찬 법이지요." 정말 그럴까? 마음이 따뜻하다고 다른 사람에게 느껴지려면 섬세하게 남을 배려하야 하고, 그런 사람일수록 예민하고 긴장을 잘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럴 경우에는 혈관이 긴장으로 인해 수축하고 순환이 잘 안 되어 손발이 차가워질 수 있으니 억지를 부린다면 맞는다고 할 수도 있을 듯하다.

체온은 어떻게 조절이 될까? 우리 몸의 체온을 조절하는 중추는 시상하부에 있는데, 그 중 체열을 발산시켜 온도를 낮추는 앞쪽의 중추와 체열을 생산하여 온도를 높이는 뒤쪽의 중추가 함께 조화를 이룬다. 가정의 난방 조절 장치처럼 이 체온조절 중추는 몸의 여기저기서 올라오는 온도 변화 신호를 감지하여 체온을 일정하게 유지하는 것이다. 온도를 느끼는 신경 수용체에는 차가움을 인지하는 '냉각수용체'와 뜨거움을 인지하는 '온각수용체'가 있다. 식히는 것이 중요한 가슴과 머리에는 온각수용체가 많다. 반면 몸에 가해지는 냉기를 확인하여 주의하도록 하는 냉각수용체는 손발에 많다. 특히 손과 얼굴에는 두 수용체가 모두 조밀하게 분포한다. 손과 얼굴이 쉬 벌게지고 창백해지는 이유는 민감하게 자극된 수용체에 반응하여 혈관이 수축하거나 확장하기 때문이다.

수족냉증은 우리나라, 중국, 일본 등 삼국 중에서는 일본이 가장 높은 빈도를 나타내고 그 다음이 우리나라이다. 우리나라 여성 네 명 중 한 명은 수족냉증을 앓고 있다. 차거나 습한 계절의 기간이 길수록 수족냉증이 더 심한 것으로 보인다. 수족냉증을 앓는 사람의 손발은 가을을 지나면서 기온이 내려가면 차츰 차가워진다. 더러는 창백해지고 땀에 젖기도 한다. 또 어떤 경우에는 자주색으로 변했다가 하얗게 변하기도 한다. 이런 냉증에는 성별에 따른 발생 빈도의 차이가 있다. 여자는 남자와 달리 몸에 분포하는 근육의 양이 적어 근육의 운동과 대사를 통해 체열을 생성하기가 어렵다. 또한 황체호르몬을 중심으로 한 여성호르몬의 주기적인 작용에 따른 체온변화가 있어 차가운 온도에 민감하므로 남자보다는 더 많이 수족냉증을 호소하게 된다.

자연환경에 따른 요인뿐만 아니라 인공적으로 조성된 조건 역시 수족냉증의 발생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여름철의 과도한 냉방과 겨울철의 지나친 난방으로 인해 인체의 체온조절 기능이 약화되고, 스트레스와 운동부족 및 불규칙적인 식사가 겹친 사람들이 많아 수족냉증으로 곤란을 겪는 사람이 점점 늘고 있는 실정이다.

식사를 거르거나 불규칙하게 먹는 것과 수족냉증이 무슨 상관이 있을까? 사람의 몸은 음식이 섭취되기 전까지는 가급적 저장된 에너지를 분해하여 체온을 만드는 것을 자제한다. 음식이 들어오는 순간부터 '갈색지방세포 조직'에 저장된 연료를 태워 몸을 데우는 것이다. 그러므로 규칙적인 식사와 규칙적인 에너지 방출로 체온을 유지하는 것이 수족냉증 치료의 기본이 되는 것이다.

남성보다 여성이 더 많아

지나친 냉 · 난방도 원인

근육 · 유산소 운동 규칙적 식사


규칙적인 식사와 규칙적인 에너지 방출로 체온을 유지하는 것이 수족냉증 치료의 기본이다.

수족냉증을 앓는 대부분의 여성들은 한낮의 기온이 15℃ 이하로 떨어지는 가을부터 이른 봄까지 증상을 느끼게 되지만 심한 경우에는 일 년 내내 손발이 차고 아리기까지 한다. 이렇게 되면 불편은 물론이고 대인관계에 있어 소극적이 될 수도 있다.

수족냉증이 있는 여성은 진맥의 순간부터 차가움이 와 닿는다. 이분들의 호소는 "손발이 차서 불편하다"는 것뿐만 아니라 다른 증상들을 포함한다. 어깨와 목뒤 근육이 긴장성 수축을 지속한 탓에 뭉쳐 있고 아프며, 복부의 근육 역시 체온 생성을 위해 수축을 반복한 탓에 단단하게 긴장되어 있다. 그 결과로 아랫배가 늘 뻐근한 골반통이나 심한 월경통이 나타날 수 있다. 물 같은 냉대하가 많은 것도 그 탓이다.

가끔, 손과 발은 싸늘한데 오히려 얼굴 쪽으로 열이 나고 붉은 홍조를 띠는 분도 있다. 이것은 생리적인 열이 몸 전체로 고르게 퍼지지 못하고 허열(虛熱)만 상체로 치우친 탓이다. 상체와 하체, 속과 겉, 피부와 내장, 표면 온도와 심부 온도의 순환과 조화가 깨진 것이다. 이것의 근원에는 긴장과 불안 혹은 만성적인 피로가 흔히 존재한다. 노화 역시 중요한 원인이다. 또 드물게 난치성 질환이 숨어 있을 수도 있다.

손발이 차다고 다 임신이 잘 안 되는 것은 결코 아니지만 월경이 불규칙하면서 차거나 몸이 차가워지면서 월경통이 심해진 사람들은 수족냉증과 난임을 함께 앓는 경우가 많다.

단순히 냉증이나 그에 동반된 통증과 같은 증상을 개선시키거나, 건강증진, 학업성취도의 향상 등 여러 가지 이유로 수족냉증을 치료하고자 한다면 그저 체온을 높이는 약물만을 투여해서는 안 된다. 체질과 냉증에 수반된 다른 증상, 생활습관, 계절 등 환자의 특성과 환경적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한 치료가 바람직하다.

근육이 부족하고 움직임이 적은 사람은 근력운동을 하고 유산소 운동으로 몸을 움직여야 한다. 규칙적인 식사는 기본이다. 더하여 한약과 침뜸 역시 중요한 치료이다. 아랫배에 어혈(瘀血)이 뭉쳐 돌지 못하는 경우에는 한의약 치료를 통해 어혈을 풀어야 하고, 냉증과 욕구가 정체되었다면 경락을 소통시켜야 하며, 비만하고 기름진 음식을 많이 섭취하여 담음(痰飮)과 지방이 순환을 막았다면 담음과 체지방을 줄여주어야 한다. 기혈(氣血)이 약해졌거나 양기(陽氣)가 부족한 경우에는 이들을 보하는 약을 투여한다. 그리하여 차가운 겨울 지친 삶에서도 누군가의 차가운 손을 녹여줄 수 있는 사람으로, 그리고 자신의 삶에 주어진 역할을 건강하고 훈훈하게 이루는 이로 살아가게 하는 것이다.

〈동국대학교 일산불교한방병원 병원장〉



